

잭 보스 — 천목이 열린 수련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 우리 이전

BEFORE US

지구라는 무대에서 펼쳐진 2억 년의 연극

 THE LIVES  
MEDIA

# 우리 이전

(BEFORE US)

지구라는 무대에서 펼쳐진 2 억 년의 연극

저자: 잭 보스 기자가 천목(天目)이 열린 한 영적 수련인의  
구술을 바탕으로 집필했습니다.

---

Copyright © 2025 THE LIVES MEDIA. 모든 권리 보유.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 편집자 주

이 책은 실화, 실제 사건 및 배경을 바탕으로 저술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인물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등장인물의 이름과 일부 신상 정보를 문학적 형태로 변경, 축약 또는 재구성했습니다.

책의 일부 내용은 당사자의 개인적인 관점에서 서술되었으며, 이는 당시 그들 각자의 경험과 인식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관점들이 반드시 THE LIVES MEDIA 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체에 있어서는 편집부에서 필요한 수정을 거쳤으나, 원 인물의 개성을 존중하고 이야기의 정신과 생동감을 보존하기 위해, 저희는 인물의 소박함과 본래의 어조를 최대한 유지하고자 노력했습니다.

## 편집부



# 서문

역사, 고고학, 그리고 아직 설명되지 않은 현상들을 전문으로 다루는 국제 기자로서의 제 삶은 저를 여러 먼 땅으로 이끌었고, 수많은 기이한 이야기와 통상적인 모든 이해를 거부하는 고대 유적들과 마주하게 했습니다. 이집트 사막 한가운데 우뚝 솟은 피라미드부터, 유럽의 신비로운 스톤 서클, 남미의 정글 속에 사라진 도시들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여정은 제게 답보다는 더 많은 질문을 남겼습니다. 과거의 파편 속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저는 문자 역사의 한계를 더욱 뚜렷하게 느꼈으며, 아마도 인류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장엄하고 비극적인 시간들을 겪었을 것이라는 모호한 번민에 사로잡혔습니다.

사라진 문명들의 비밀, 시대를 앞서간 듯한 그들의 기술, 황당무계해 보이지만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의 씨앗을 품고 있는 전설들이 계속해서 저를 사로잡았고, 끊임없이 탐구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바로 그 이끌림이, 몇몇 동료들과 열정적인 연구가들로부터 얻은 모호한 단서들과 함께, 제 발걸음을 네팔의 카트만두로 향하게 했습니다. 그곳은 신비로운 히말라야 땅의 심장부이자, 많은 고대 지식과 특별

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전해지는 곳  
이었습니다.

이끼 낀 사원들과 나직이 울려 퍼지는 염불 소리 사이로  
시간이 멈춘 듯한 이 고풍스러운 도시의 고요한 공간 속에  
서, 저는 기이한 인연을 만났습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깊  
이에 닿아 있는 이야기들을 들을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만남은 시끌벅적한 거리에서 벗어난 조용한 골목길에 자  
리한 작은 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내부 공간은 소박했고,  
약초 차 향과 은은한 침향이 감돌며 이상하리만치 고요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제 앞에 앉아 있던 남자를, 저는  
감히 ‘모한’이라는 친근한 별명으로 부르고자 합니다. 현  
지어로 된 그의 본명은 저 같은 외국인에게는 꽤 길고 복  
잡했으며, 더 중요한 것은, 그분 자신이 세간의 주목을 받  
는 것을 원치 않는 듯했다는 점입니다.

오십 대가 넘은 모한 씨는 평범하지 않은 과거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의학을 공부했던 시절, 중국에서 20  
년간 일하고 경험을 쌓았던 시간을 거쳐, 쉰 살의 나이에  
고향인 네팔로 돌아오기로 결심했습니다. 현재 그는 평범  
한 삶 속에서 조용히 수련하며 소박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그가 소유한 비범한 능  
력이었습니다. 그의 천목이 열려, 그는 책이나 추측을 통

해서가 아니라, 지구의 수억 년에 걸친 역사의 흐름을 직접 '목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때 번성했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문명들, 이 행성에 존재했던 생명 형태들, 그리고 우리보다 아주,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해 온 우주의 비밀들을 말입니다.

그의 태도는 동서양의 여러 문화를 접해본 사람 특유의 개방적이고 현대적인 면모를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마치 온 하늘을 비추면서도 잔물결 하나 일지 않는 호수처럼 형언할 수 없는 고요함과 깊이를 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내내,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아무리 경천동지할 만큼 충격적이라도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 차분하고 평온했습니다.

다음에 기록된 내용은 모한 씨가 드러낸 고대 기억의 흐름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이는 어떠한 과학적 학설이나 신념과도 옳고 그름을 논쟁하려는 목적이 없습니다. 단순히, 이것은 하나의 나눔이자 성찰로의 초대이며, 독자 각자가 스스로 느끼고 자신만의 의미 있는 메시지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잭 보스** (Jack Voss)



THE LIVES MEDIA

\* \* \*

# 첫째 날

---

## 모한 선생님의 이야기 시작

---

잭 보스 (Jack Voss):

안녕하세요, 모한 선생님!

지난번에 약속드렸듯이, 오늘 선생님께서 천목(天目)을 통해 보셨거나 신불(神佛)로부터 계시를 받은, 지구의 현재와 과거 역사에 관한 몇 가지 점에 대해 말씀을 듣고자 찾아왔습니다...

**모한 선생님 (Mr Mohan):**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모한 선생님의 목소리는 나지막하고 차분했다. 그는 책에게 차를 따라주었는데, 네팔 산의 향기가 은은하게 풍기는 약초 차였다.)

안녕하세요, 잭 씨. 앉으시지요. 방금 우려낸 차입니다. 카트만두의 저녁은 늘 이렇게 고요해서, 차분한 마음이 필요한 이야기들을 나누기에 아주 적합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잭 씨 말이 맞습니다. 제가 곧 나누려는 이야기들은 책에서 얻은 지식이나 순전한 개인적 추론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제가 수련 과정에서 운 좋게 '보게' 되고, '목격하게' 된 것들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천목이라 부르는 것을 통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이미지와 정보의 흐름이거나, 혹은 마

음이 어느 정도 고요한 경지에 이르렀을 때 마치 '계시'를 받은 것처럼 저절로 드러나는 깨달음 같은 것들이지요.

[ 모한은 잠시 말을 멈추고, 진심 어린 눈빛으로 잭을 바라 보았다. ]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누군가를 설득할 의도도 없고, 어떠한 학설과도 옳고 그름을 논쟁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저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는 사람처럼, 혹은 제가 보았던 그림 한 폭을 묘사하는 것처럼, 제가 아는 바를 나눌 따름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느끼고 성찰할지는 전적으로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 잭 씨. 이 길고 광대한 지구와 우주의 이야기,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까?

\* \* \*

**잭 보스:**

네, 아마도 지구 역사에 대한 가장 개괄적인 관점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구의 "수명"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현재 과학계에서 보는 것처럼 약 45 억 년이 맞습니까?

**모한 선생님:**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모한 선생님의 눈빛은 보이지 않는 역사의 책장을 넘기는 듯 먼 곳을 응시했다.)

네, 시작하기에 아주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잭 씨. 현대 과학이 제시하는 45 억 년이라는 숫자는, 제가 본 바로는, 이 행성을 구성하는 물질 덩어리의 나이입니다. 즉, 우주에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으며, 이전의 각기 다른 층차 우주의 여러 성주괴멸(成住壞滅) 주기를 거친 원시적인 '원재료'들의 나이지요. 이는 마치 새집을 짓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오래된 벽돌이나 고목의 나이와 같습니다.

[ 모한 선생님은 잠시 멈추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할 방법을 찾았다. ]

하지만 만약 우리가 현재 지구의 "생명 프로그램"에 관해 이야기한다면, 즉, 지구가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형성되고, 영적 지능을 가진 생명이 존재하며, 신들의 개입과 안배가 있고, 생명을 위한 특수한 법칙이 운행되는 한 단계를 말한다면, 그 기간은 훨씬 짧습니다. 제가 '본' 바에 따르면, 우리가 이 지구에서 겪고 있는 '생명 프로그램'은 약 2 억 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잭 씨. 이 광활한 우주에는 무수히 많은 층이 있고, 각 층마다 고유한 존재의 주기가 있습니다. 이전 우주의 한 주기가 끝난 후, 신들께서는 우리가 잠시 창조주(創造主)라 부를 수 있는 더욱 위대한 의지의 인도 아래, 그 이전 우주에서 남은 '원재료'들, 즉 45억 년 혹은 그 이상 된 물질 입자들을 사용하여 '정화'하고, '재창조'하여 우리 지구가 속한 새로운 공간을 위한 새로운 순환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45억 년은 '기반 물질'의 나이이고, 2억 년은 이 지구가 우리가 아는 영혼을 가진 생명과 함께, 특정한 사명과 각본을 가지고 '활성화'된 기간입니다. 이것은 우주의 중요한 전개를 위해 준비된 특별한 시기, 하나의 무대인 셈입니다.

[ 모한 선생님은 가볍게 미소 지었다. ]

보시다시피,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역사란, 그것이 수천 년이든 수만 년이든, 사실 이 2억 년이라는 흐름 속에서 아주, 아주 짧은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 \* \*

**잭 보스:**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보신' 바로는, 지구의 '생명 프로그램'은 약 2 억 년 전에야 시작된 것이지, 45 억 년의 역사 전체에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은 생명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지구는 자연적인 조건에 따라 저절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여러 다른 "원재료"로부터 신들께서 창조하신 것이고요...

**모한 선생님:**

(주의 깊게 듣고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잭 씨께서 요점을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셨습니다. 다만 오해를 피하기 위해 한 가지 작은 점만 더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제가 45 억 년이라는 숫자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숫자는 제가 설명했듯이, 신들께서 사용하신 기본 물질 입자들, 즉 오래된 '벽돌'의 나이로서 여전히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오래된 사원의 목재 나이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목재는 사원을 짓기 수백 년 전부터 존재했을 수 있으니까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영혼을 가진 생명들을 위한 구체적인 목적과 안배를 지닌 이 "무대", 즉 지구의 현재 "생명 프로그램"은 약 2 억 년 전부터 비로소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때가 바로 지구가 더없이 높고 자비로운 한 의지의 인도 아래 신들에 의해, 고대 우주의 "원재료"들로부터 "재구성"되고 "영혼이 불어넣어진" 시점입니다.

그리고 지구가 임의의 자연적 조건에 따라 저절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창조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네, 잭 씨께서 이해하신 대로 그것이 제가 '본' 바입니다. 생명, 특히 영적 지능을 가진 생명을 위한 복잡한 모든 조건을 갖춘 한 행성의 형성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큰 계획, 즉 창조주들의 정교한 안배 속에 있는 것입니다.

[ 모한 선생님은 잠시 멈추고, 비어 있는 찻잔을 바라보았다. ]

물론, 이것들은 여전히 제가 제 경지에서 '목격'한 것들입니다. 과학은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발견할 것이고, 각각의 탐구의 길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습니다.

\* \* \*



**잭 보스:**

그렇다면 2 억 년 전에 지구가 창조된 후, 인류와 동식물도 동시에 함께 창조되었습니까?

**모한 선생님:**

(미소 지으며, 그는 찻잔을 탁자에 내려놓았다.)

잭 씨의 이 질문은 지구의 "생명 프로그램"에 있어 매우 깊고 복잡한 측면에 닿아 있군요.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모든 종류의 인류, 동물, 그리고 식물이 2 억 년 전 그 시점에 한꺼번에 창조되어 지금과 같은 형태를 유지해 온 것은 아닙니다. 그 과정은 훨씬 더 정교하고 역동적입니다.

[ 모한 선생님은 잠시 생각에 잠겨, 단어를 골랐다. ]

그 2 억 년이 여러 대주기(大週期)로 나뉘고, 각 대주기 안에는 또다시 무수한 더 작은 소주기(小週期) 문명들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각 단계, 각 주기마다 신들께서는 당시의 환경 조건, 그 시기의 구체적인 목적, 그리고 그때 지구의 주된 생명들의 도덕과 인식 수준에 부합하는 생명 형태들을 안배하고 창조하셨습니다.

식물과 동물에 대해 말하자면, 그것들이 먼저, 점진적으로 창조되어 균형 잡힌 생태계와 적합한 생활 환경을 형성했습니다. 종들 역시 변화가 있었고, 지구의 변화와 신의 안배에 따라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종들도 있었습니다. 거대한 공룡들이나 고대의 기이한 생물들이 모두 동시에 존재했던 것도 아니며, 그것들이 많은 사람이 이해하는 방식의 "무작위적 진화"의 결과도 아니었습니다.

"인간"에 대해서는,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인간"이라는 개념 역시 오늘날의 우리처럼 단 하나의 고정된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그 2 억 년 동안, 모습, 크기, 수명, 그리고 능력이 매우 다른 수많은 종류의 인간들이 지구에 존재했습니다. 거인(巨人)의 시기도 있었고, 소인(小人)의 시기도 있었으며, 오늘날 우리가 "초인적"이라고 여길 만한 특징을 가진 인종들도 있었습니다. 그 각각의 인종 역시 신에 의해 특정 시기, 특정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으며, 발전과 번영, 그리고 쇠퇴와 궤멸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주기에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따라서 2 억 년 전 지구가 "재창조"되고 "생명 프로그램이 시작"된 후, 각종 "인간"과 동식물을 포함한 생명은 한꺼번에 불변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각 단계에 따라, 층층이 순차적으로 씨앗이 뿌려지고 발전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창조주들께서 여러 다른 계절에 걸쳐 끊임없이 씨앗을 뿌리고, 돌보고, 수확하는 광대한 우주 정원과 같습니다.

최초의 생명들은 우리와 매우 달랐을 수 있으며, 지구 생명의 역사는 완전히 잊힌 여러 장(章)들을 간직한, 지극히 풍부하고 다양한 한 폭의 그림과 같습니다.

\* \* \*

**잭 보스:**

선생님 말씀은 2 억 년 동안이 하나의 연속적인 과정이 아니라, 각기 다른 다양성과 흥망성쇠를 지닌 여러 주기를 거쳤다는 뜻이군요?! 이 주기들에 대해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모한 선생님:**

(고개를 끄덕이며, 잭 보스의 이해 방식에 동의하는 눈빛을 보였다. 그는 잠시 멈추었다. 그의 시선은 우주의 보이지 않는 역사의 책장을 다시 넘기는 듯 먼 곳을 향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그의 얼굴에 잠시 깊은 사색이 스쳐 지나갔다.)

"네, 잭 씨께서 제 뜻을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셨습니다. 지구 '생명 프로그램'의 2 억 년 역사는 한 시작점에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단조롭고 연속적인 흐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 이어지는 크고 작은 여러 주기들로 짜인 지극히 복잡한 한 폭의 그림이며, 각 주기는 저마다의 흥망성쇠와 특징, 그리고 매우 독특한 생명 형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역사의 흐름에 대한 이미지들이 떠오를 때, 제가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숨 막힐 듯한 웅장함인 동시에, 가슴 시리도록 비장함입니다. 그것은 마치 끝없는 대양 앞에 서서, 수없이 많은 파도가 일었다가 스러지는 것을 목격하는 것과 같습니다. 각각의 파도가 하나의 문명, 하나의 생명 형태, 하나의 이야기인 셈이지요...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는 그 2 억 년을 대략 두 개의 주요 대주기(大週期)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대주기는 약 1 억 년 동안 지속되며, 이 지구라는 서사시의 두 개의 큰 장(章), 두 개의 지극히 중요한 막(幕)과 같습니다.

제 1 대주기는 더 원시적인 시기로, 지구가 고대 우주의 '원재료'로부터 신들에 의해 재창조된 후의 시대입니다. 당시의 지구는, 잭 씨, 지금과는 매우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기의 성분이 달랐을 수 있고, 대륙이 현재처럼 형성되지 않았을 수 있으며, 생명 형태 또한 오늘날 우리

가 기이하다고, 심지어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여길 만한 특징들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대한 식물들로 이루어진 원시림과, 우리가 단편적인 화석 조각을 통해서만 알고 있는 거대한 생물들을 '뵙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단지 지각없는 짐승이 아니라, 저마다의 영적 지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 제 1 대주기 동안에도, 각기 다른 '인간' 종족들의 문명들이 나타나 찬란한 정점으로 발전했다가 다시 쇠퇴했습니다. 그들의 과학 기술이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원리에 기반하여, 아마도 오늘날 우리가 꿈도 꾸지 못할 성취를 이루었던 시기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법칙처럼, 도덕이 더는 중시되지 않고, 이기심과 야망이 최초의 선한 가치들을 압도하게 되자, 휘멸이 찾아왔습니다. 그 제 1 대주기는 지극히 전면적인 '대정화(大淨化)', 즉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 위한 거의 철저한 청소로 끝을 맺었습니다. 그 규모의 휘멸을 목격하며, 저는 우주의 힘 앞에선 생명의 미미함과, 만물을 지배하는 법칙의 엄격함 속에서도 가득한 자비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 모한 선생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감정을 가라앉힌 후 말을 이었다. ]

그리고 제 2 대주기가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대주기이며, 이 또한 약 1 억 년 동안 지속됩니다. 제 1 대주기가 궤멸한 후, 우리가 창조주라 부를 수 있는 더욱 위대한 의지의 인도 아래 신들께서는 다시 한번 지구를 부활시키셨습니다. 새로운 생명 형태, 새로운 '인간' 종족, 그리고 새로운 역사 시나리오와 함께 새로운 '생명 프로그램'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 제 2 대주기 동안에도, 거목의 잎이 계절마다 바뀌듯, 무수한 소주기 문명들이 서로 이어지며 번성했다가 스러져 갔습니다. 각 문명은 아무리 찬란했더라도, 아무리 오래 존속했더라도, 결국 무상(無常)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서, 저는 물질에 속한 것들의 덧없음과, 정신적 가치, 도덕적 가치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한 문명이 진정으로 영속하거나, 적어도 선한 흔적을 남길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모한 선생님은 책 보스가 받아들일 시간을 주기 위해 잠시 멈추었다. ]

이 소주기 문명들에 대해 말하자면, 실로 천태만상입니다. 제가 한번 공유한 적이 있듯이, 대다수는 보통 5,000 년에서 10,000 년 정도 지속되지만, 그 속의 생명들의 도덕 수

준과 신불(神佛)에 대한 공경심에 따라 훨씬 짧거나 길게 존속한 문명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거의 모든 소주기에서 발견한 한 가지 공통된 법칙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깨우침입니다. 인간 또는 영적 지능을 가진 생명체들이 신이나 참된 수련인의 인도를 받아 도리와 우주에 대한 이해를 전수받는, 순박함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점차 발전합니다. 그 도덕적 기반 위에서 사회는 문화, 예술뿐만 아니라 (우리와는 다를 수 있는 그들만의 방식으로) 과학 기술 면에서도 찬란하게 발전합니다.

그 후에는 점차 타락하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물질이 풍요로워지고, 인간은 점차 최초의 가르침에서 멀어져 도덕이 무너지며, 이기심, 탐욕, 투쟁이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마침내 멸망의 단계에 이릅니다. 도덕이 더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을 때, 재앙이 닥쳐옵니다. 자연 재해일 수도 있고, 전쟁, 혹은 다른 우주적 변고일 수도 있으며, 이는 그 문명의 종말로 이어집니다. 그 후, 지구는 새로운 소주기를 준비하기 위해 어느 정도 '정화'됩니다.

그렇게, 한 문명 층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또 다른 문명 층이 그 뒤를 잇는 것이 시간이라는 대양 위의 파도와 같습니다. 각 문명은 물질적이든 비물질적이든 어떤 흔적을 남기지만, 대부분은 이미 묻히거나 유실되었습니다.

우리, 인류의 현 문명 또한 그 무수한 소주기 중 하나일 뿐이며, 이 제 2 대주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 모한은 이 개괄적인 그림에 대해 잭이 더 궁금한 점이 있는지 보려는 듯 그를 바라보았다. ]

\* \* \*

**잭 보스:**

만약 각 문명 주기가 통상적으로 약 5,000 년에서 10,000 년 정도만 존재하다가 신의 안배에 따라 한번 "리셋"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현재 인류 역사가 실제로 기록된 것이 약 5,000 년 전부터라고만 느끼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군요?!

**모한 선생님:**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스쳤다.)



잭 씨는 사건들을 연결하는 능력이 참으로 뛰어나십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가 역사를 이런 방식으로 바라볼 때 나타나는 논리적인 귀결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소주기 문명이 약 5,000 년에서 10,000 년 정도만 지속된 후, "재설정" 또는 "리셋"을 겪는다는 사실 – 그것이 큰 규모이든 작은 규모이든, 완전한 황폐이든 혹은 새로운 시작에 자리를 내주기 위한 주도적 문명의 붕괴이든 – 바로 이것이 우리 인류의 역사적 기억이 마치 "단절"된 것처럼 보이고, 오직 지난 5,000 년 정도만 비교적 명확하게 보존된 것처럼 보이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 모한 선생님이 덧붙여 설명했다. ]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물질적 황폐에 대하여. 한 문명이 끝날 때마다, 특히 그것이 큰 재앙이었다면, 건축물, 문자 기록, 유물 등의 대부분은 파괴되거나, 묻히거나, 유실됩니다. 오직 극소수만이, 보통은 외진 곳에 있거나 기적적으로 보존되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지식 전승의 단절에 대하여. 큰 변고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보통 생존에 집중하며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옛 문명의 지식, 기술, 그리고 역사 대부분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남은 것이라곤 보통 여러 세대에 걸쳐 구전되면서 점차 왜곡된 전설, 신화, 또는 모호한 기억의 조각들뿐입니다.

신의 안배에 대하여. 이전 주기의 기억 일부를 "삭제"하는 것 자체가 신의 안배의 일부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주기의 생명들이 과거의 성공이나 실패에 너무 많이 영향을 받지 않고 "백지" 상태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자유롭게 선택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현재 연구 방법의 한계에 대하여. 우리의 현재 고고학적, 역사적 방법들은 매우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먼 과거의 것을 탐사하고 해독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물질적 흔적이 많이 남아있지 않거나 접근하기 매우 어려울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문자 역사가 약 5,000 년 전부터 명확하게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 이전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우리가 그 희미해진 역사의 장들을 "읽을" 충분한 도구나 기연(機緣)을 아직 갖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사실, 2 억 년 동안 우리보다 훨씬 더 찬란했던, 오늘날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과학 기술과 영적 성취를 이룬 무수한 문명들이 있었습니다. 단지, 매번 "리셋"될 때마다 과거의 장막이 다시 내려졌을 뿐입니다.

[ 모한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이 떠오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

저 달은, 잭 씨, 그토록 많은 주기의 말없는 증인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저 달 또한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지구의 많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을 겁니다.

\* \* \*

**잭 보스:**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와 대홍수는 실재했던 사건이며, 그것이 이전 주기를 끝내고 현재의 주기를 여는 한 형태였던 것이군요?

**모한 선생님:**

(모한 선생님의 눈빛이 조금 더 아득해지며, 마치 오래된 영상 필름을 다시 보는 듯했다.)

네, 잭 씨. 성경에 기록된 대홍수와 노아의 방주 이야기, 그리고 수메르, 그리스, 인도, 중국에서부터 아메리카, 호주 대륙의 원주민 부족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수많은 고대 문화의 신화에 나오는 비슷한 전 지구적 대홍수 전설들은 모두 단순한 허구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본" 바로는, 그것은 실로 실재했던 사건, 즉 이전에 있었던 한 거대한 문명 주기의 종말을 고하고 지구 역사의 새로운 단계를 열었던 전 지구적 대재앙의 남은 기억입니다.

[ 모한 선생님이 더 자세히 설명했다. ]

지구의 2 억 년이라는 긴 역사 속에서, 홍수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궤멸적 재앙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극심한 지각 변동, 지구 축의 변화, 거대한 운석 충돌, 혹은 각기 다른 세력 간의 대전쟁 등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매번 그러한 사건들은 일종의 "정화"와 "재건"의 형태였습니다. 노아의 이야기가 언급하는 대홍수는 그러한 사건들 중 하나이며, 아마도 우리 현재 문명 주기와 가장 가까운 대사건이었기에, 그에 대한 기억이 여러 문화권에 비교적 선명하게 보존된 것일 겁니다.

이러한 대재앙들은 자연의 무작위적이거나 잔혹한 징벌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보통 인간(또는 당시 지구의 주된 생명체)의 도덕이 더는 구제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을 때, 그들이 신의 가르침에서 너무 멀어져 죄악과 상호 파괴에 빠져들었을 때 일어납니다. 그때, 남은 선한 씨앗들을 보존하고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신들께서는 "대정화"를 안배하십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이 하느님께 선택받아 살아남은 이야기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은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선량함, 신앙, 그리고 신에 대한 경외심을 지켰던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그 방주는 어떤 의미에서 선택의 상징입니다. 오직 선한 심성을 지킨 자만이 새로운 주기로 나아갈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방주에 태워진 동물들 또한 재앙 이후의 새로운 생명을 위한 유전자원, 즉 "씨앗"을 보존하기 위함이었습시다.

그 대홍수 이후, 지구는 재창조의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생존자들은 새로운 문명 주기의 민족들의 조상이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주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약 5,000 년의 문자 역사는 이 거대한 "리셋" 사건 이후에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속 이야기는, 비록 여러 세대를 거치며 해석되거나 덧붙여졌을 수 있지만, 그 핵심은 중요한 역사적 사실, 즉 지구 문명의 흐름에 있어 거대한 전환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흥망성쇠의 법칙, 도덕의 중요성, 그리고 인류 역사에 대한 신의 개입을 상기시켜 줍니다.

\* \* \*

**잭 보스:**

그렇다면, 튀르키예의 아라라트산 정상 부근에 있다는 노아의 방주 유적은 실재하는 것입니까?

**모한 선생님:**

(모한 선생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하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잭 씨, 고대 문서에 기록된 것들, 신비로워 보이는 전설들은 때때로 오늘날 우리가 통상적인 과학적 방법으로는 검증하기 어려운 역사적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아라라트산 지역에 있다는 노아의 방주 유적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제가 '보고' 느낀 바로는, 그것은 대홍수 사건과 실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노아의 이야기가 언급하는 그 대홍수 재앙 때, 물은 매우 높이 차올라 거의 모든 지표면을 잠기게 했습니다. 그때의 해일은, 제게 현현하는 이미지에 따르면, 아마도 약 2 천 미터 혹은 그 이상의 무시무시한 높이에 달해, 길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휩쓸고 파괴했을 것입니다. 오직 가장 높은 산봉우리들만이 망망대해 위로 솟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물이 빠지기 시작했을 때, 그 거대한 방주는 여러 날을 표류한 끝에 이 높은 산맥 중 하나에 닿았습니다. 아라라트산 지역은 그 높이로 보아 고대 기록에 묘사된 것과 완전히 부합합니다.

물론,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시간의 풍화, 지각 변동, 그리고 만년설과 빙하의 퇴적이 겹치면서, 거대한 목선의 명확하고 온전한 물질적 증거를 찾는 것은 지극히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멀리서 찾거나 촬영할 수 있었던 것들은 아마도 단지 흔적이나, 파편, 혹은 변형되거나 일부 화석화된 구조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흔적들의 존재 자체는, 여러 다른 문화권의 기록들과 함께, 우리에게 과거에 일어났던 한 사건에 대해 시사하는 중요한 지표들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역사적 기억이며, 이번 주기의 지구와 인류 역사의 모습을 재편한 사건입니다. 탐험가들과 연구가들이 그 지역에서 끊임없이 증거를 찾고 있는 것 또한,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언가 깊은 것이 그들을 이끌고 있는 것이지요.

\* \* \*

**잭 보스:**

아이패드를 열어서 이 유적 사진을 다시 검색해 보겠습니다... 여기, 바로 이것입니다. 튀르키예의 아라라트산에 있는, 방주와 아주 흡사한 형태의 사진입니다...

**모한 선생님:**

(모한 선생님은 잭 보스가 보여주는 사진들을 훑어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는 기색 없이 깊은 사색이 담겨 있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산비탈에 놓인 거대한 방주 같은 형태의 그 구조물 사진들은 지난 수년간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아왔지요.

[ 모한은 잠시 말을 멈추고, 자신이 '본' 것과 이 구체적인 이미지들을 연결하려는 듯했다. ]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홍수 이후 그 거대한 방주가 물에 닿았을 때, 그것은 높은 산악 지대에 남게 되었습니다. 수천 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 동안 지구 지각의 변동, 지진, 빙하와 비바람의 침식을 겪고, 또 일부가 묻혔다가 다시 드러나기를 반복하면서, 원래의 형태가 변형되거나 남은 것이 핵심 구조의 일부에 불과하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사진들에서 보는, 거대한 선체를 연상시키는 선들이 있는 그 특별한 형태는, 아마도 그 방주가 남긴 흔적이거나, 혹은 수천 년에 걸쳐 지형과 뒤섞이고 변형된 그것의 중요한 일부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것은 더는 처음과 같은 온전한 목선이 아니라, 일부가 화석화되었거나, 시간이 흐르면서 구성 물질이 광물로 대체되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의 에너지 '틀'과 핵심적인 물리적 흔적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특별한 형태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과학계에서는 이 지질 구조의 형성에 대해 여러 다른 가설을 내놓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저의 '보는' 관점에서는, 이 장소, 이 형태와 대홍수를 이겨낸 방주 이야기 사이에는 매우 강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시간의 흐름에 희미해졌지만, 지구의 중대한 과거사에 대한 말없는 상기, 하나의 증거와도 같습니다.

그것이 높은 산악 지대에 있다는 사실 또한, 수위가 수천 미터까지 상승했던 전 지구적 홍수의 시나리오와 완벽하게 부합합니다.

[ 모한은 여전히 평온한 목소리로 잭을 바라보았다. ]

물론, 실증 과학의 기준으로 절대적으로 확증하려면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아는' 세계에서는, 때로는 남아있는 흔적들, 에너지, 그리고 고대 기록과의 연결이 그 자체로 확신을 가져다주기도 합니다.

\* \* \*

**잭 보스:**

네,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과거를 더 거슬러 올라가서, 만약 각 문명 주기가 5 천 년이나 1 만 년

정도 지속되었다면, 근래의 문명 주기 중 하나가 바로 전설 속의 아틀란티스일 수도 있겠군요?!

**모한 선생님:**

(미소 지었다. 그의 미소에는 아틀란티스라는 이름이 마치 익숙한 이미지를 불러일으킨 듯한 아련함이 스쳤다.)

잭 씨께서 또다시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이자, 지나간 시대에 대한 인류의 가장 깊은 기억 중 하나를 건드리셨군요. 네, 전설 속의 아틀란티스, 혹은 다른 전설들에서 언급되는 비슷한 이름들은 단순히 상상력의 산물이 아닙니다.

제가 이 지구에서 '본' 무수한 소주기 문명들 가운데, 오늘날 우리가 흔히 아틀란티스라고 부르는, 지극히 발전하고 찬란했던 문명이 실재했습니다. 그것은 이번 제 2 대주기의 정점 중 하나였으며, 과학 기술, 에너지, 그리고 우주의 법칙에 대한 특정 이해에 있어 놀라운 성취를 이룬 문명이었습니다.

[ 모한은 잠시 말을 멈추고, 허공의 먼 한 점을 응시하며 마치 그 광경들을 재현하는 듯했다. ]

저는 그들의 장엄한 도시들, 복잡한 건축과 정교한 아름다움을 '봅니다'. 그들은 거대한 보석 결정체에서 나오는 에

너지를 널리 사용했는데, 단지 조명이나 기계 동력 공급뿐만 아니라, 치료, 통신, 심지어 오늘날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용도에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공중과 바닷속을 자유자재로 이동하는 수단을 가졌고, 놀라운 속도로 나아갈 수 있는 선박도 있었습니다.

초기의 아틀란티스인들 역시 영적인 측면, 즉 인간과 우주의 연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바로 그 물질의 지나친 발전, 뛰어난 기술 성취에 대한 자만심, 그리고 점차 심각해진 도덕적 타락, 이기적인 목적을 위한 권능의 남용, 권력 다툼과 오만함이 그들을 자멸의 길로 몰아넣었습니다.

아틀란티스 문명 역시, 깨우침, 발전, 타락, 그리고 훼멸이라는 공통된 법칙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도덕이 더는 구제할 수 없을 정도로 추락했을 때, 오만과 야망이 신의 최초 가르침을 가려버렸을 때, 아마도 일련의 극심한 지진과 거대한 해일 같은 끔찍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 그들의 대륙 전체 혹은 주요 섬들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혔습니다.

아틀란티스에 대한 기억은, 비록 모호하지만, 여러 세대와 여러 문화를 통해 비극적인 경고로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아무리 물질적으로 발전한 사회라 할지라도 도덕적 기

반과 신에 대한 경외심을 잃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고 말입니다. 사라진 섬들, 바다 깊이가라앉은 도시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모두 훨씬 더 큰 역사적 진실의 파편들입니다. 아틀란티스는 전형적인 예이며, 지구의 긴 서사시 속에서 비극적인 한 장이자 깊은 교훈을 주는 장입니다.

아틀란티스 사건은 아마도 노아의 대홍수 바로 직전의 문명이 아니라, 그보다 더 이전에 있었던, 지구의 더 긴 역사 흐름 속에 자리한, 찬란했지만 비극으로 가득했던 주기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기억은 비록 모호하지만, 여러 세대와 여러 문화를 통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아무리 물질적으로 발전한 사회라 할지라도 도덕적 기반과 신에 대한 경외심을 잃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고로서 말입니다.

사라진 섬들, 바다 깊이가라앉은 도시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모두 훨씬 더 큰 역사적 진실의 파편들입니다. 아틀란티스는 전형적인 예이며, 지구의 긴 서사시 속에서 비극적인 한 장입니다.

\* \* \*

**잭 보스:**

네, 방금 아이패드로 빨리 계산을 해봤는데, 2 억 년을 평균 7 천 년으로 나누면 약 2 만 8 천 6 백 개의 문명 주기가 지나갔다는 결과가 나오네요…

이 문명들에 대해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모한 선생님:**

(잭 보스가 방금 계산한 숫자에 모한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의 미소는 조롱이 아니라, 유한한 숫자로 무한한 것을 파악하려는 인간의 노력을 이해하는 미소였다.)

잭 씨께서 방금 계산해 낸 숫자, 거의 삼만 개에 가까운 주기는 실로 우리가 시간의 광대함과 이 지구가 겪어온 무수한 흥망성쇠를 상상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각 주기의 길이는 결코 균일하지 않아서, 어떤 주기는 매우 짧았고, 또 어떤 주기는 그 평균 숫자보다 훨씬 더 길게 이어졌습니다. 우주와 생명의 역사가 항상 우리의 단순한 선형적 계산을 따르는 것은 아니니까요.

[ 모한은 잠시 말을 멈추고, 카트만두의 밤이 온통 내려앉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회상하는 듯 더 낮아졌다. ]

그 기나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실로 무수한 문명들이 존재했었고, 각 문명은 저마다의 특징과 성취, 그리고 교훈을 남겼습니다. 전부 다 이야기하자면 아마 아주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제가 '보았던' 몇 가지 이미지, 제가 깊은 인상을 받았던 대표적인 몇몇 문명의 예를 나누어 드릴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인들이 실제로 이 지구를 걸어 다녔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형적인 생물이나 괴물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보다 몇 배는 더 클 수 있는 거대한 체구의 한 인종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체격에 걸맞은 거대한 건축물들을 갖춘 고유의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오늘날 고고학자들이 화석으로 발견하는 거대한 공룡들은, 잭 씨, 그 시기에는 일부 종들이 이 거인들의 애완동물이거나 심지어 탈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의 문명 또한 오늘날 우리가 아마 잊어버렸을 에너지와 자연법칙에 대한 이해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문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거대한 물질적 구조물을 짓는 데에는 치중하지 않고, 대신 소리와 주파수를 사용하

는 능력을 최고조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들은 소리를 이용해 병을 고치고, 무거운 물건을 옮기고, 아주 먼 거리까지 소통했으며, 심지어 물질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에게 건축물이 있었다면, 그것은 보통 주파수를 이용해 돌이나 자연 재료의 형태를 빚어, 주변 환경과 절대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을 만드는 방식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마 나중에 더 자세히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인어들의 문명처럼 바닷속의 신비로운 문명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아틀란티스처럼, 수정과 빛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기술을 가졌지만 도덕을 잃어 자멸해 버린 문명들도 빼놓을 수 없지요.

모습, 피부색, 그리고 능력이 각기 다른 여러 인종의 사람들이 광대한 땅에서 함께 평화롭게 살며, 다양하고 풍요로운 사회를 이루었던 시기들도 있었습니다. 각 인종은 저마다의 강점을 가지고 공동체 전체의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 모한은 잠시 멈추고, 가볍게 미소 지었다. ]



그 각각의 문명들은, 잭 씨, 모두 지구의 위대한 역사책 속의 한 장(章)입니다. 그것들은 나타나서 빛을 발하다가, 다시 스러져 가며 교훈과 흔적을 남겼고, 때로 우리 후손들은 그것을 다시 찾아 해독하는 데 아주 큰 어려움을 겪어야만 합니다.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는 단지 몇 가지 매우 개략적인 스케치에 불과합니다. 그 문명들의 풍부함과 다양성은 실로 우리의 통상적인 상상력을 훨씬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 \* \*

**잭 보스:**

방금 거인, 소인, 그리고 바닷속 인어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히 동화 속 상상력의 산물이 아닐 수도 있겠군요...

**모한 선생님:**

(모한은 주의 깊게 듣고는, 깊은 이해심을 담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시간의 장막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네, 잭 씨. 우리가 어릴 때, 우리는 종종 거인, 소인, 혹은 바다 밑에 사는 아름다운 인어공주에 대한 동화들을 듣곤 합니다. 자라면서, 우리 중 많은 사람은 그것이 단지 옛사람들의 풍부한 상상력의 산물, 즉 오락이나 도덕적 교훈을 위해 꾸며낸 이야기일 뿐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고' '게시'받은 바에 따르면, 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동화 속에만 있을 법한 그 수많은 이미지와 인물들은, 실은 이 지구의 지나간 문명 주기들로부터 비롯된 실제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 모한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더 단호해졌다. ]

그 다양성에 대해 더 명확히 상상하실 수 있도록, 잭 씨, 이전 문명 주기들에 존재하며 깊은 족적을 남겼던 몇몇 특별한 인종들에 대해 몇 가지 개략적인 모습을 나누어 드리고자 합니다.

거인에 대하여:

그들은 기형적인 생물이나 단순한 신화가 아니었습니다. 지구 역사의 여러 단계, 특히 제 1 대주기와 제 2 대주기 초기 단계에서, 거인은 실제로 주도적인 인종이자 강력한 문명이었습니다. 그들의 체격은, 잭 씨, 각 종족과 시기에

따라 매우 다양할 수 있었지만, 보통 오늘날 우리 평균 키의 서너 배, 심지어 어떤 종족은 대여섯 배에 달했습니다.

그들의 문명 또한 매우 발전했지만, 다른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건축물, 즉 오늘날 우리가 특별한 능력이나 기술 없이는 어떻게 옮기고 설치했는지 상상하기 어려운 거대한 돌덩이들로 지어진 도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고고학자들이 화석으로 발견하는 거대한 공룡들, 그 생물들은, 거인들의 황금기에는 일부 종들이 단지 애완동물, 집에서 기르는 가축, 혹은 심지어 이동 수단, 즉 그들의 탈것에 불과했습니다. 잭 씨께서는 우리가 말을 타듯, 한 거인이 브론토사우루스나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의 등에 올라탄 모습을 상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복잡한 기계를 통하지 않고도, 자연의 법칙, 지구와 우주의 에너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비범한 신체적 힘에는 매우 긴 수명도 동반되었는데, 도덕이 아직 순박했던 시기에는 수백, 심지어 수천 년에 달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문명들과 마찬가지로, 오만, 자만, 그리고 도덕적 쇠퇴가 나타나자, 그들 역시 성주괴멸(成住壞滅)의 법칙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그들의 흔적은 일부 지역에서 드물게 발견

되는 거대한 유골이나, 과학이 아직 완전히 설명하지 못하는 신비로운 거석 구조물의 형태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소인에 대하여:

거인과 마찬가지로, 소인 역시 동화 속 상상력의 산물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존재했던 한 인종으로, 거인이나 우리와 같은 크기의 다른 인종들과 공존하거나 다른 문명 주기에 존재했습니다. 그들의 크기 또한 다양해서, 어떤 종족은 키가 수십 센티미터에 불과했고, 어떤 종족은 어린아이만 했습니다.

그들은 보통 우리보다 큰 인간들이 접근하기 어렵거나 눈치채지 못하는 깊은 숲, 깊은 동굴, 혹은 외딴 계곡 등지에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숨어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환경에서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한 특별한 기술을 가진, 그들만의 세계와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동식물과 소통하는 능력이 있었을 수 있고, 각종 약초에 대한 지식을 가졌으며, 우리가 잃어버린 섬세한 정신적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소인의 문명은 보통 거대한 물질적 구조물을 남기지 않고, 주로 정신생활의 발전과 자연과의 조화에 집중했습니다. 여러 민족의 신화에 나오는 "요정", "숲의 정령" 혹은 "난

쟁이"에 대한 이야기들은, 아마도 이 인종에 대한 모호하게 남은 기억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암시했듯이, 근래에도 세계의 일부 외진 지역에서 소인의 출현에 대한 보고나 이야기가, 비록 매우 드물고 검증하기는 어렵지만, 여전히 존재합니다.

"인어"나 물속에 사는 생명들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더 복잡합니다.

제가 '본' 바에 따르면, 그들은 실제로 지구의 대양 밑에서 여러 역사 주기에 걸쳐 독특한 문명을 존재시키고 발전시켜 온 한 인종, 또는 여러 다른 인종들이었습니다.

## **대양 아래 인어들의 신비로운 세계**

인어 종족의 기원과 차이점:

인어의 존재는 단일 현상이 아니라, 각기 다른 시기에 나타나고 각기 다른 기원을 가질 수 있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인어 종족은 지각 변동으로 육지가 바다에 잠기거나, 혹은 그들이 자발적으로 바다에서의 새로운 삶을 찾아 나선 결과, 육지의 일부 인류가 수천, 수만 년에 걸쳐 물 환경에 점진적으로 적응한 결과물입니다.

또한, 물속에서 문명을 살고 발전시키기에 적합한 신체적 특징과 능력을 처음부터 갖추도록 신에 의해 특별히 창조된 인어 종족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대양의 생태 균형을 보호하거나, 어떤 고대 지식을 보존하는 것과 같은 고유의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들의 모습 또한 매우 다양하며,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반은 사람, 반은 비늘 덮인 꼬리를 가진 이미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전설 속 묘사와 가까운 것으로, 상반신은 인간과 같고—얼굴, 손, 그리고 보통 녹조류색, 바다색, 심지어 금속성 빛을 띠는 긴 머리카락을 가졌지만—허리 아래로는 강력하고 유연한 물고기 꼬리가 있으며, 여러 가지 색의 빛나는 비늘로 덮여 있습니다. 그들은 손가락과 (만약 있다면) 발가락 사이에 물갈퀴가 있거나, 목 양쪽 또는 귀 뒤에 아가미가 있어 물속에서 호흡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일부 종족은 인간과 더 비슷한 모습을 가졌을 수 있지만, 그들의 피부는 특별한 구조를 가져 미끄럽고 물과 직접 기체를 교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뚜렷한 물고기 꼬리가 없는 대신, 수영할 때 다리가 큰 지느

러미로 변하거나, 이동을 위해 특별한 보조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능은 높지만 모습은 인간보다 해양 동물에 더 가까운 바다 생명체에 대한 기록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잡한 소통 능력과 사회를 구축할 수 있는 돌고래나 고래 형태의 존재들입니다.

인어의 문명은 보통 육지 문명과 매우 다릅니다.

그들은 대양 밑바닥에 장엄한 도시를 건설하는데, 보통 산호, 발광석, 혹은 깊은 바다에서만 발견되는 특별한 종류의 광물 같은 자연 재료를 사용합니다. 이 도시들은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설계될 수 있으며, 발광 생물이나 지열 에너지원으로부터 얻는 자연광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해류, 해수 온도차로부터 에너지를 얻거나, 아틀란티스인들과 비슷하지만 물 환경에 맞게 조정된 형태의 수정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무거운 기계 장치보다는, 생명 공학, 소리, 주파수, 그리고 자연 에너지 흐름을 제어하는 능력에 더 치중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해양 생물이나 식물로부터 도구, 건축 자재, 심지어 이동 수단까지 "배양"해낼 수 있습니다.

많은 인어 종족은 섬세한 영적 능력, 텔레파시로 소통하는 능력, 에너지로 병을 고치는 능력, 혹은 해양 환경의 변화를 감지하고 예측하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해양 생물들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들과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인어와 육지인이 교류하거나 심지어 협력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갈등이나 오해가 있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대체로, 인어들은 육지 세계의 소란과 변동을 멀리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인간의 도덕적 타락이나 환경 파괴 행위를 인지했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은 대양의 평화와 아름다움을 소중히 여깁니다.

다른 문명들과 마찬가지로, 인어 역시 성주괴멸의 주기를 겪습니다. 한때 매우 번성했다가 쇠퇴한 인어 문명들도 있었습니다. 인어 역시, 육지의 인간과 마찬가지로 영혼이 있으며 윤회를 겪습니다.

저는 감동적인 이야기들, 예를 들어 "인어의 서원" 같은 것을 '봅니다'. 이는 여러 생애 걸친 깊은 서원을 품은 한 인어에 대한 이야기로, 육지 세계의 무언가를 찾거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그 서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의 영혼은 계속해서 인어의 모습으로 윤회합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실 수도 있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현대에도 여전히 우리 인간이 아직 다 탐험하지 못한 깊은 바다, 외딴 지역에 숨어 사는 인어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는 예전만큼 많지 않을 수 있으며, 아마도 전 세계에 약 1 만 명 정도만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현대 문명과의 접촉을 피하는 데 매우 신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위험성과 삶의 가치관에 대한 너무나 큰 차이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양 아래의 세계는, 잭 씨, 우리가 이제 겨우 아주 작은 부분에 닿았을 뿐인 무수한 비밀과 경이로운 생명 형태들을 품고 있습니다. 인어는 그 다양하고 풍부한 그림의 일부입니다.

[ 모한은 깊은 눈빛으로 잭을 바라보았다. ]

보시다시피, 인간의 상상력은 때로 완전히 새로운 창조가 아니라, 회상이며, 과거에 존재했고 일어났던 것들에 대한 인류의 집단 잠재의식 속에 남은 모호한 기억의 조각들, 이미지들입니다. 동화, 신화들을 만약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그것들은 바로 우리에게 이 지구 생명의 다양하고 경이로운 역사의 일부 진실을 엿볼 수 있게 해주는 열린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창조주께서는 그 무한한 창조 속에서 온갖 형태의 생명들을 만드셨고, 우리의 역사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부합니다.

\* \* \*

**잭 보스:**

선생님께서 방금 말씀해주신 인종들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다면 지나간 문명들 가운데, 선생님께서 특별히 더 공유하고 싶으신, 유달리 찬란했거나 깊은 교훈을 남긴 문명이 있습니까?

**모한 선생님:**

(모한 선생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에는 잠시 가벼운 놀라움이 스쳤다가, 이내 마치 기억의 "폴더"들을 재정리하는 것이 익숙한 일인 듯 깊은 사색의 표정으로 돌아왔다.)

네. 기억의 흐름이 돌아올 때, 때로는 시간과 순서에 대한 세부 사항들을 아주 정확하게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무수한 문명들 가운데, 제가 더 깊이 나누고 싶은 특별히 찬란했던 시기, 하나의 정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1 대주기의 마지막 단계에 속하는 황금시대(黃金時代)로, 위대한 창조물이 탄생했던 시기입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그 찬란했던 시기는, 실은 지구의 제 1 대주기 마지막 단계에 속합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 대주기의 가장 눈부신 정점이자 마지막 장(章)이었으며, 인간이 진실로 신과 아주 가깝게 살았고, 사회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찬란한 발전 수준에 도달했던 시대, 아마 오늘날 우리가 온전히 상상하기 어려운 조화의 시대였습니다.

[ 모한 선생님의 목소리가 마치 매우 신성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듯 더 장엄해졌다. ]

그것은 창조주께서 무량한 자비심으로 우주의 따파(大法)를 처음으로 세상에 널리 전하신 시기였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시험, 즉 오늘날 우리 인류의 작은 일부가 목격하고 있는 공식적이고 보편적인 전파를 포함하여, 훗날 있을 전파를 위한 씨앗을 뿌리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순박함을 간직하고 있었고 심성(心性)수준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들이 따파를 받아들이는 방식 또한 매우 특별했습니다, 잭 씨. 경전이나 복잡한 해설을 통해서가 아니라, 주로 직접적인 감응, 즉 자기 내면으로

부터의 깨우침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충분히  
고요하고 순수해지면, 우주의 높은 법리(法理)들이 마치  
자비와 지혜의 에너지 흐름처럼 그들의 의식 속으로 스며  
들어, 그들을 문득 깨닫게 했습니다. 그렇게 점화된 후, 어  
떤 사람들은 갑자기 별들의 언어를 이해하게 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가장 미세한 입자의 구조를 보게 되었으며, 또  
다른 공간의 생명들과 쉽게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회는, 잭 씨, 거의 이상적인 사회였습니다. 도덕이  
모든 활동의 기반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진실함, 선  
량함, 그리고 인내심으로 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은 속임수나 쟁탈, 심한 질투가 없었습니다. '신이  
사람과 동행한다'는 것은 은유가 아니었습니다. 신들, 혹  
은 매우 높은 경지에 도달한 수련인들이 늘 나타나 사람들  
을 가르쳤습니다. 저는 장엄한 사원이 아니라, 아마도 숲  
속이나 시냇가에서, 사람들이 앉아 자비와 지혜의 가르침  
을 듣고, 직접 질문하며 자신의 깨달음을 나누는 법회(法  
會)들을 '봅니다'. 당시 신과 인간 사이의 소통은 매우 자  
연스럽고 가까웠습니다.

특별한 점은 과학과 정신세계가 결코 분리되지 않고 하나  
로 융합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과학자들은

동시에 정신 수련 수준이 매우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외부 물질세계만 연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 존재의 내부로부터 우주와 생명의 비밀을 탐구했습니다.

덕분에 당시 사람들은 비범한 능력을 소유했는데, 이는 복잡한 외부 기계를 통해서가 아니라, 주로 따파에 따라 심성을 수련함으로써 얻게 된 지혜의 개방과 특이공능의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염력으로 거대한 물체를 옮길 수 있었고, 자비심의 에너지로 질병을 치유할 수 있었으며, 수명 또한 매우 길었고, 신체는 늘 건강하고 에너지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만약 기술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원리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신에 기반한 기술'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내연 기관을 사용하는 대신, 그들은 공간에서 직접 얻는 에너지나 혹은 조종자의 강력한 정신 에너지 자체로 운행되는 활공기를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에너지를 저장하고 증폭하는 능력을 지닌 특별한 수정을 '재배'하여 조명, 통신, 심지어 보호막을 만드는 데 사용했습니다. 거대한 건축물을 짓는 데에도 무거운 기계 장비가 필요 없었고, 염력과 집단 에너지를 사용하여 재료의 형태를 만들고, 돌이 스스로 움직여 뜻대로 조립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법(法)에 순응하여 살고, 그들의 심성이 순수했을 때, 그들의 지혜는 무한히 열렸습니다. 그들은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았고, 만사만물 사이의 연결을 통찰했으며, 자연 및 우주와 조화롭게 살았습니다.

[ 모한은 잠시 말을 멈추었고, 그의 눈에 슬픔이 스쳐 지나갔다. ]

그것은 실로 찬란한 시대, 아마도 제 2 대주기의 후대 문명들 중에서는 거의 따라올 수 없는 정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너무나 찬란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서 일부 사람들이 점차 자만하게 되고, 최초의 가르침에서 멀어지며, 자신의 능력을 사적인 목적에 남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주괴멸(成住壞滅)의 법칙이 다시 한번 응험하여, 그 제 1 대주기 전체의 종말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찬란했던 황금시대, 그리고 제 1 대주기의 마지막 단계에서, 신과 창조주의 인도 아래 당시 사람들은 위대한 걸작, 즉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존재하며 매일 밤 우리를 조용히 비춰주는 하나의 창조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달입니다.

[ 모한은 마치 낮인데도 달을 볼 수 있다는 듯이 밖을 올려다보았다. ]

달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잭 씨?

\* \* \*

**잭 보스:**

오, 선생님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달이, 바로 그 찬란했던 문명 주기의 사람들이 만든 "산물"이라는 뜻입니까?

**모한 선생님:**

(모한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잭 보스를 의미심장하게 바라보며, 마치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자신이 "본" 진실임을 확인시켜주는 듯했다.)

네, 잭 씨.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하고, 심지어 회의적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현대 과학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천체의 기원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우주의 기억의 흐름 속에서 "묵격한" 바에 따르면, 우리가 매일 밤 바라보는 달은, 전적으로 자연적이고 우연하게 형성된 천체가 아닙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 그것은 바로 그 황금시대의 사람들—지구 제 1 대주기의 정점이자 마지막 단계였던 시기의 사람들이 만든 하나의 "산물", 위대한 걸작입니다.

[ 모한은 잭 보스가 이 정보를 받아들일 시간을 주기 위해 잠시 멈추었다. ]

달과 같은 천체를 만드는 일은 물론 몇몇 개인이 할 수 있는 간단한 작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문명 전체의 지혜, 능력, 그리고 믿음의 결합을 요구하는 위대한 공사였으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것이 신들의 인도와 가르침, 그리고 도움 아래 수행되었고, 창조주의 전반적인 안배 속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신세계를 기반으로 한 과학 기술에서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은 우주의 운행 법칙, 에너지, 그리고 미시적 및 거시적 차원의 물질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에너지를 제어할 수 있었고, 오늘날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물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달을 만든 목적 또한 단순히 밤을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구의 생명과 균형에 있어 지극히 복잡하고 중요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잭 씨, 제가 "본" 바에 따라 그것의 다양한 역할에 대해 조금 더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구를 위한 생태 및 미세 에너지 조율. 오늘날 과학이 이미 알고 있는 조수간만을 일으키는 기능 외에도, 달은 거대하고 정교한 조절 장치로서의 역할을 하여, 지구의 에너지 흐름의 균형을 맞추고, 기후와 날씨 패턴에 조화롭게 영향을 미치며, 심지어 무수한 생물 종의 생체 리듬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것은 단지 태양 빛을 반사하는 것이 아니라, 미세한 우주 에너지를 수신, 변환 및 분배하여 행성의 생명을 양육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둘째, 우주 에너지 중계 및 정화 기지. 그것은 거대한 렌즈, 혹은 우주 변압기처럼 작동하여, 먼 별들로부터, 다른 공간 층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끌어모은 다음, 그것을 "정화"하고, 주파수와 강도를 조절하여 지구 환경과 그 위의 생명들에게 적합하고 유용하게 만듭니다.

셋째, 필요시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우주선". 이것은 가장 기적적인 기능 중 하나입니다. 이 자가 이동 능력은 일반적인 탐사 여행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재앙의 순간, 행성 규모의 궤멸적인 변고가 있을 때 지구 혹은 생명의 정수를 보호하기 위한 지극히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것의 운행은 우리가 아는 로켓 엔진이나 조잡한 기계적 수단에 의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의 운행은 정신 에너지의 원리, 지혜로운 이들의 염력의 결합, 그리고 신의 인도 아래 우주 에너지 흐름을 제어하는 능력에 기반을 둡니다.

넷째, 능동적인 방어 시스템, 즉 지구를 보호하는 방패. 달은 보호 에너지장을 생성하여, 지구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운석이나 소행성의 궤도를 바꾸거나, 외부 공간으로부터 오는 부정적인 영향, 심지어는 불선(不善)한 세력으로부터 오는 영향까지도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잭 씨, 한 가지 더 특별하고 섬세한 점이 있습니다. 의도적인 설계와 달과 지구 생명 사이의 깊은 연결에 대한 명백한 증거인데, 그것은 바로 달의 주기와 인간의 중요한 일부 생체 리듬, 특히 여성의 월경 주기가 놀랍도록 동기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창조주와 신들께서 인간의 생활 환경을 창조하실 때의 원시 설계에서, 달의 주기는 창조와 종족 유지의 신성함과 밀접하게 연결된 여성 신체의 내재적 리듬과 섬세하게 조화를 이루도록 안배되었습니다. 그것은 소우주(인간)와 대우주 사이의,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과 하늘에서 운행하는 것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반영합니다. 이것은 모든 요소가 서로를

돕고, 그 황금시대 인간의 생명과 조화로운 발전을 지원하는 전체적인 설계의 일부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달을 올려다볼 때, 그것이 단지 공간에 떠다니는 무생물의 돌덩이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한때 존재했던 찬란한 문명의 흔적이 질게 배어 있는 유산이며, 우주 역사와 신의 인도 아래 이루어진 비범한 창조의 손길에 대한 말없는 증인입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걸작의 역사는 그 찬란했던 순간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잭 씨. 그것은 또한 생존과 충성, 그리고 말없는 희생의 서사시이기도 합니다.

제 1 대주기의 황금시대가 막을 내릴 무렵, 당시 지구상의 대부분 생명들의 도덕이 구제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기 때문에, 신께서는 그 대주기 전체를 끝내기 위해 지극히 끔찍한 "대정화", 즉 전면적인 휘멸을 안배하셨습니다. 당시의 지구는, 제가 "본" 바로는, 매우 큰 규모의 붕괴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마치 무수한 파편으로 "폭발"해 버리는 것처럼 상상할 수 있는데, 그 후 신들께서 위대한 신력(神力)과 무한한 자비로 우주의 기본 물질을 사용하여 완전히 재창조하여,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제 2 대주기의 새로운 지구를 건설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종말의 상황 속에서, 달의 운명은 지극히 특별해졌습니다. 옛 지구가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황금시대의 가장 현명한 이들, 가장 높은 경지의 수련인들이 예지력과 신 및 창조주의 직접적인 지시 아래 비범한 계획, 즉 위대한 "대피"를 실행했습니다. 달—그들의 우주선이자, 제 2의 집이며, 요새—은 순수한 염력과 정신 에너지로 조종되어 지구 궤도를 일시적으로 벗어나, 끔찍한 멸망의 지역 밖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것은 그 문명의 정수와 귀중한 우주 지식의 씨앗뿐만 아니라, 일정 수의 가장 순선(純善)한 사람들, 즉 우주적 대재앙을 넘어 그들을 보존하기 위한 중요한 생명의 씨앗들도 함께 싣고 갔습니다.

옛 지구가 완전히 휘멸되고 더 깨끗한 새로운 지구가 재창조되어 제 2 대주기의 새로운 장이 시작된 후, 달은 기적적인 안배에 따라 정해진 바로 그 시점에, 조용히 익숙한 궤도 위치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이 새로운 푸른 행성의 생명을 지원하고, 보호하며, 조절하는 신성한 사명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돌아왔을 때, 달은 기본적으로 황금시대로부터의 복잡한 구조와 거대한 잠재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피난했던 사람들은, "방주"와 함께 표류했던 긴 시간 동안 여러 세대에 걸쳐 번성하여 그 수가 매우 많아졌습니다. 신의 안배에 따라, 달이 새로운 지구로 돌아왔을 때, 이 사람들은 지표면에 사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고, 대신 이미 오래전에 준비된 땅속의 광대한 공간으로 이동하도록 인도받았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나중에 다시 언급하게 될 신비로운 내면 문명의 초석을 놓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 \* \*

### **잭 보스:**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 예전에 인터넷 어디에선가 과학자들이 달 표면에 큰 탄두를 발사하는 실험을 했을 때 달이 속이 빈 종처럼 울리는 반응을 보였다는 글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정말로 내부가 빈 물체일 수 있겠군요? 심지어, 만약 그것이 이전 주기의 사람들에게 의해 창조된 것이라면, 그 안에는 많은 기관이나 복잡한 구조물들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 **모한 선생님:**

(모한 선생님의 눈에 한 줄기 빛이 스쳤다. 마치 잭 보스가 방금 나눈 정보가 그의 기억 속 그림의 핵심적인 한 지점을 정확히 건드린 것 같았다.)

잭 씨, 당신이 인터넷에서 읽은 그 정보들은, 비록 아직 많은 논쟁이 있고 주류 과학계에서 널리 인정받지는 못했을 지라도, 제가 "본" 진실에서 결코 멀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이 수행한 실험, 즉 어떤 물체가 달 표면에 충돌했을 때 마치 거대한 속 빈 종처럼 비정상적으로 길게 지속되는 진동을 만들어낸 바로 그 현상은, 달의 진짜 본질을 드러내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네, 맞습니다. 달은 완전히 꽉 찬 덩어리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제가 창조 과정과 현재의 구조를 "목격한" 바에 따르면, 실로 광대한 공간들이 있습니다.

[ 모한은 여전히 평온하지만 설득력 있는 목소리로 덧붙여 설명했다. ]

황금시대의 사람들이 신의 인도 아래 달을 창조했을 때, 그들은 단순히 돌덩이를 "빚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것을 지극히 복잡하고 정교한 우주 건축물로 건설했습니다. 그것은 견고한 외피를 가지고 있지만, 내부는 매우 구체적인 목적들을 위해 설계된 시스템과 기반 시설을 갖춘 다층, 다중 구획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단지 자연적인 천체가 아니라, 거대한 우주선, 인공적인 "비행 도시"로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안에는, 그것이 처음 만들어졌던 시기와 그 후 오랜 기간 동안, 실제로 제어 기관, 실험실, 에너지 저장 구역, 생명 유지 시스템, 그리고 심지어 수련과 영적 연구를 위한 공간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수천만 년에 걸쳐 우주 먼지와 운석 조각들로 덧씌워지기 전, 그것의 원래 형태조차도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처럼 완전히 둥근 구체가 아니었습니다. 원시 형태는 하나의 큰 알과 같은 모양, 완벽한 타원형이었습니다. 이는 우주 공간에서의 이동과 에너지 안정성 유지를 위한 최적의 구조였습니다. 우리가 현재 관찰하는 껍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형성된 외부의 "외투"일 뿐이며, 그 내부의 핵심 실체, 즉 에너지 골격과 주요 구조는 여전히 그 알 모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부에서 강한 충격이 가해졌을 때, 그것이 속이 빈 구조물처럼 길게 진동하는 것은 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지질학적 우연이 아니라, 위대한 인공 구조물의 고유한 특성입니다.

달은, 잭 씨, 더 많은 비밀, 즉 황금시대와, 인간이 우주와 조화롭게 살며 신의 인도를 따를 때 가질 수 있었던 비범한 능력들에 대한 비밀들을 품고 있습니다.

\* \* \*

**잭 보스:**

네, 달에 대한 선생님 말씀은 정말 놀랍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수천만 년이 흐르는 동안, 운석과 우주 먼지가 떨어져 쌓인 암석층은 아마 수백 미터, 어쩌면 수 킬로미터에 달할 수도 있겠군요... 이 때문에 우리는 그것의 겉모습이 순전히 암석층인 것처럼만 보게 되는 것이고요.

**모한 선생님:**

(모한은 잭 보스의 추론에 동의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잭 씨 말씀이 아주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나간 시간, 즉 제 1 대주기 말에 창조된 이래로 수천만 년, 어쩌면 거의 일억 년에 가까운 시간이 흐르는 동안, 달 표면이 무수한 크고 작은 운석 조각, 우주 먼지, 그리고 공간의 다른 물질들로 덧씌워진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암석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명히 매우 두꺼워졌을 것입니다. 잭 씨께서 추정하신 것처럼 일부 지역에서는 수 백 미터, 심지어 수 킬로미터라는 숫자는 전적으로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연적인 갑옷, 혹은 거대한 퇴적 층처럼, 그 아래에 있는 위대한 구조물의 원시적인 모습을 거의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바로 이 두꺼운 피복층 때문에 우리가 지구에서 달을 관찰 하거나, 우주선이 그 표면에 착륙하더라도, 우리가 주로 보고 분석할 수 있는 것은 단지 가장 바깥쪽 껍질, 즉 암석, 운석구, 그리고 현무암 평원으로 이루어진 "피부"뿐입니다. 과학자들이 달에서 가져온 암석 샘플을 연구할 때도, 그들은 주로 이 퇴적된 껍질의 성분을 분석합니다.

이것은 또한 제가 언급했던 복잡한 인공 구조물들, 내부의 시설이나 기관들이 왜 통상적인 표면 관측 방법으로는 쉽게 발견되지 않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것들은 그 퇴적층 아래 깊숙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피복층이 아무리 두껍더라도, 내부 핵심 구조의 기본적인 특성들—예를 들어 속이 빈 공간이 있다거나, 원시적인 알 모양의 실체를 가졌다는 점 등—은 여전히 간접적인 현상을 통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강한 충격에 반응하는 방식이나, 혹은 미래에 과학계가 수집할 수 있는 자기

장, 중력장 또는 특별한 지진 데이터에 대한 더 깊은 분석을 통해서 말입니다.

또한, 달의 특정 지역에서는, 그것의 내재적인 지질 변동이나 과거의 거대한 충돌로 인해, 아래에 있는 원시 구조물의 일부가 노출되거나 표면에 더 가깝게 위치하여, 과학자들이 여전히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지질학적 이상 현상을 만들어 냈을 수도 있습니다.

요컨대, 우리가 보는 순수한 암석의 외관은 단지 시간의 껍질일 뿐입니다. 그 아래에는, 여전히 지나간 시대의 걸작, 즉 우리가 멀리서 인지할 수 있는 것들을 훨씬 뛰어넘는 비밀과 기능들을 품고 있는 인공 구조물이 있습니다.

\* \* \*

**잭 보스:**

만약 달이 거대한 인공 "유람선"과 같다면, 그것은 지구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합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황금시대" 주기에, 그때 지구는 어떻게 멸망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달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모한 선생님:**

(모한은 고개를 끄덕이며, 명확히 해야 할 세부 사항들을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는 기억 속의 이미지들을 더 선명하게 떠올리려는 듯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네, 잭 씨. 이야기가 더 조리 있고 정확해지도록, 그 중대한 사건들에 대해 조금 더 명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 1 대주기의 황금시대 동안 달과 지구의 상호작용에 대해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능동적인 상호작용 관계였습니다. 달은 거대한 에너지 및 생태 조율 센터이자, 지능적인 보호막 역할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신의 감독 아래, 매우 높은 수련 수준과 지혜를 가진 사람들에게 의해 운용되었으며, 지구의 균형과 번영을 유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황금시대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지구 생명들의 도덕적 타락으로 인해, 신께서는 제 1 대주기 전체를 끝내기 위해 지극히 끔찍한 "대정화"를 안배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통상적인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타락한 모든 것을 완전히 제거하고 완전히 새로운 공간을 창조하기 위해, 제 1 대주기의 지구는 전면적인 궤멸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제 2 대주기의 새로운 지구가 신들의 위대한 신력(神力)으로 우주의 기본 물질

을 사용하여 완전히 재창조되기 전에, "폭발"하거나 매우 큰 수준으로 붕괴된 것으로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달의 운명에 대한 질문은 지극히 특별해집니다. 옛 지구가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당시의 현자들, 높은 경지의 수련인들이 예지력과 신 및 창조주의 지시 아래 비범한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바로 이 위대한 우주선인 달을 조종하여 일시적으로 지구 궤도를 벗어나 궤멸 지역 밖으로 이동시킨 것입니다. 그것은 문명의 정수와 귀중한 지식의 씨앗, 그리고 아마도 대재앙을 넘어 그들을 보존하기 위한 중요한 생명의 씨앗들까지 싣고 갔습니다.

옛 지구가 완전히 궤멸되고 새로운 지구가 재창조되어 제 2 대주기가 시작된 후, 달은 기적적인 안배에 따라 정해진 시점에, 자신의 궤도 위치로 돌아와 이 새로운 푸른 행성의 생명을 지원하는 사명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돌아왔을 때, 달은 기본적으로 황금시대로부터의 구조와 잠재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지구의 균형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기능들을 계속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성기처럼 모든 초월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는지의 여부는, 제 2 대주기 문명들의 인식 수준과 도덕 수준에 달려 있었습니다.

달의 손상이나 심각한 기능 저하에 관해서는, 제가 "본" 바로는, 그것은 제 2 대주기 초반에 돌아왔을 때 바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부 기능이 약화되거나 손상되는 등 더 심각한 영향은, 훨씬 더 최근인 지난 5,000 년에서 10,000 년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달은 지구의 수호자로서, 지구를 침략하거나 조종하려는 나쁜 의도를 가진 "외계인" 세력의 함대들과 치열한 전투를 벌여야만 했습니다. 그 전투들에서 달은 일정한 손실을 입었고, 일부 시스템이 손상되어 이전처럼 강력하고 전면적으로 작동할 수 없게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제 2 대주기의 수천만 년에 걸쳐 그 표면은 계속해서 우주 먼지와 운석으로 덧씌워져, 우리가 보는 두꺼운 껍질을 형성했습니다.

달의 이야기는 실로 영광, 궤멸, 재생, 그리고 끊임없는 수호의 전투를 모두 반영하는 파란만장한 서사시입니다.

\* \* \*

**잭 보스:**

네, 달이 손상된 상황을 더 명확하게 보실 수 있습니까?

## 모한 선생님:

(모한은 잭 보스가 구체적인 시간대를 언급하자 집중하는 눈빛으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기억의 흐름이 더 명확하게 현현하고, 동시에 사건들을 더 정확한 순서로 정리하려는 듯 잠시 침묵했다.)

잭 씨, 우리가 달이 꺾어야 했던 손상에 대해 이야기할 때, 실로 시간의 자연적인 풍화나 일반적인 전투들뿐만 아니라, 깊은 흔적을 남긴 구체적인 시기와 변고들이 있었습니다.

제 1 대주기의 지구가 훼손되고 제 2 대주기의 새로운 지구가 재창조된 후 달이 지구 궤도로 돌아왔을 때, 그것은 여전히 황금시대로부터의 거대한 잠재력과 구조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지원하는 사명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달에서 보존되었던 사람들은 돌아왔을 때 특별한 운명을 맞았는데, 이는 더 큰 계획의 일부였고 아마 나중에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제 2 대주기의 흐름 속에서, 달의 기능과 심지어 구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최소 두 번의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1 만여 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지구에는 어느 정도 발전 수준에 도달한 국가들과 문명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불선(不善)한 옛 세력의 조종 아래 그들 사이에 갈등과 충돌이 생겨나 잔혹한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전쟁들에서, 그들은 아마도 파괴력이 큰 종류의 무기나 에너지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지구의 보호자이자 조율자 역할을 하던 달은 휘말려 재앙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의 외피가 손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생태를 조율하고 지구의 미세한 에너지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이 이 사건 이후 심각하게 저하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일으킨 그 두 국가는 결국 신의 징벌을 받아, 국토와 백성 모두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 변고 이후, 땅속에 남아 있던 사람들, 즉 고대 지식의 일부를 계승한 이들은 달의 손상된 외피를 수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고, 아마도 그것이 비록 예전처럼 온전하지는 않더라도 사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위치나 궤도의 일부를 재조정해야 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약 5,000 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이때는 외부 우주에서 더 큰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사악한 "외계인" 세력의 강력한 함대가 태양계에 나타나, 지구를 침략하고 통제하려는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당시 땅속 문명은, 비록 먼 옛날 황금시대만큼 강하지는 않았을지라도, 공동

의 집을 지키기 위해 일어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지구를 지키는 그 전투에서, 달은 다시 한번 최전선에 서서, 요새이자 거대한 수호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전투들은 분명 매우 치열했을 것이고, 달은 추가적인 손실을 입어 방어 시스템과 남은 기능들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두 사건 모두 달에 작지 않은 "상처"를 남겼고, 그것이 창조될 때부터 지녔던 많은 기적적인 능력들을 감소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는 수백만 년에 걸쳐 계속된 우주 먼지와 운석의 퇴적을 제외하고서도 그렇습니다. 그 퇴적은 달의 외관을 더욱 고풍스럽게 만들고 많은 비밀을 감추게 했습니다.

이처럼, 달의 "혜멸"이나 "손상"에 대한 이야기는 단일 사건이 아니라, 지구뿐만 아니라 이 우주 공간 전체의 큰 변동을 반영하는 중요한 이정표들을 가진 장구한 과정입니다.

\* \* \*

**잭 보스:**



오, 방금 선생님께서 달의 "주인"이 땅속으로 들어가 살게 된 사람들이라고 하셨지요...

그렇다면, 한 가지 큰 질문이 생깁니다. 지구 내부는 비어 있고, 그 안에 선진 문명이 존재한다는 것입니까?

**모한 선생님:**

(모한은 잭 보스의 호기심을 이해한다는 듯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는 시계를 보고는, 완전히 어둠이 내린 창밖을 바라보았다.)

잭 씨, 우리가 과거 이야기에 빠져 있다 보니 시간이 참으로 빨리 가는군요. 당신은 많은 사람이 고뇌해왔던, 매우 흥미로운 질문이자 큰 미스터리를 제기했습니다.

[ 모한은 잠시 멈추었다가, 잭 보스의 질문으로 돌아왔다. ]

그리고 지구 내부 세계에 대한 당신의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잭 씨, 제가 "본" 바로는, 우리 지구는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완전히 꽉 찬 덩어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각 아래에는, 실로 광대한 공간들과 복잡한 층

구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들 안에는, 실제로 하나의 문명, 한 인종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주 먼 옛날부터 특별한 안배에 따라 땅속에서 생존하고 발전하는 법을 찾아낸 고대 인종입니다. 그들의 문명은 어느 정도 옛 찬란했던 시기의 많은 지식과 기술을 여전히 보존하고 있으며, 아마 지표면의 우리가 가진 것보다 뛰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통제된 환경 속에서 살며, 고유의 광원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 지표면 세계에 개입하거나 거의 나타나지 않는 이유 또한 매우 복잡합니다.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이 아주 먼 옛날부터 신들로부터 받은 엄격한 분부, 즉 특별한 시기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지표면 인간들의 자연스러운 발전과 선택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분부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의 외부 세계로 통하는 주요 출입구들이 사악한 "외계인" 세력에 의해, 그들의 높은 기술로 봉쇄되거나 방해받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표면 인류에 대한 그들의 상호작용과 도움을 막기 위함입니다.

\* \* \*

**잭 보스:**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언급하신 제 1 대주기에 속하는, 달을 창조한 "황금시대" 주기 외에, 선생님께서 명확히 "보신" 다른 대표적인 문명들, 즉 그 기나긴 역사의 흐름 속에서 특별한 족적을 남긴 문명들에 대해 조금 더 공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모한 선생님:**

(모한은 잭의 학구열을 존중하는 듯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먼 곳을 응시하며 보이지 않는 다른 역사의 책장을 넘기는 듯했다.)

물론입니다, 잭 씨. 그 황금시대 외에도, 무수한 다른 문명들이 있었고, 각 문명은 저마다의 특징과 성취, 그리고 교훈을 남겼습니다. 제가 두 문명을 더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놀라운 우주적 성취를 이룬 제 1 대주기에 속한 문명이고, 다른 하나는 비극적인 결말과 성찰할 만한 타락을 겪은 제 2 대주기에 속한 문명입니다.

## **제 1 대주기의 우주 항해 문명**

달을 창조한 황금시대보다 훨씬 전인 제 1 대주기 중반에, 지극히 찬란한 우주 과학 기술 수준에 도달했던 한 문명이

존재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모습은 오늘날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수 있지만, 뛰어난 지혜와 우주의 물리 법칙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태양계 범위 내에서의 행성 간 항해 기술을 일상적으로 마스터했고, 심지어 가장 가까운 항성계까지 탐험을 수행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우주선들을 '보입니다'. 그것들은 우리처럼 화학 연료를 사용하는 육중한 로켓이 아니라, 초경량·초강력 합금으로 제작되었을 수 있는 날렵한 비행선이었습니다. 그것은 통제된 반물질 에너지나, 혹은 공간에서 직접 에너지를 채취하는(제로 포인트 에너지) 깨끗하고 강력한 에너지원으로 운행되었습니다. 그것들은 극도로 빠른 가속과 감속이 가능했고, 우주 방사선과 우주 파편으로부터 보호하는 보호막을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여행 목적은 매우 다양했습니다. 과학 연구, 다른 행성 탐사, 자원 탐색, 그리고 화성이나 거대 가스 행성의 일부 위성에 전초 기지나 작은 식민지를 건설하는 것까지 포함되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나중에 일부 "외계인" 종족들처럼 차원 간 이동을 완전히 마스터하지는 못했을지라도, 우주의 구조와 여러 다른 차원에 대해 놀라운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문명의 정신생활과 도덕 또한 초기에는 꽤 높았습니다. 그들은 우주의 법칙에 대해 일정한 존경심을 가졌고, 그들의 사회는 과학적이고 질서 있게 조직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많은 문명들과 마찬가지로, 물질 기술의 지나치게 빠른 발전과 우주 정복의 성취에 대한 자부심이 점차 그들 중 일부를 오만하게 만들고, 핵심적인 정신적 가치에서 멀어지게 했습니다.

제 1 대주기가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이 우주 향해 문명은 기술의 정점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쇠퇴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옛 "무대" 전체와 함께 훼손되었습니다. 그들의 성취, 우주선, 다른 행성의 전초 기지 대부분은 파괴되거나 버려져, 우주 공간 속에서 말없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 **"외계인"으로 타락한 문명**

제 2 대주기로 넘어가서, 무수한 소주기 문명들 가운데, 제게 특별히 비극적인 인상을 남긴 한 문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찬란함 때문이 아니라, 그 타락과 슬픈 결말, 그리고 훗날 나쁜 의도를 가진 "외계인" 종족들의 한 기원이 되었다는 점 때문입니다.

이 문명은 약 수백만 년 전에 발전했으며, 역시 과학 기술, 특히 생명 공학, 유전학, 그리고 인공지능 분야에서 매우 높은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초기 단계부터 그들은 영적 가치와 도덕을 경시하고, 물질 기술의 힘에 절대적인 믿음을 두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신의 인도나 어떠한 도덕 법칙 없이도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고, 세상을 개조하며,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개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타락 과정은 느리지만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개인적인 이기심, 끝없는 탐욕, 그리고 통제에 대한 욕구가 발전의 주요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유전 기술을 사용하여 자신들의 목적에 부합하는 생물을 만들어냈고, 심지어 인공 전사까지 창조했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남용하여 부자연스럽게 수명을 연장했지만, 영혼은 점점 공허해지고 부패해갔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지능적인 기계를 만들었지만, 그것들에게 연민이나 도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단계에 이르러, 그들 사회의 내부 갈등이 격화되어 첨단 기술 무기를 사용한 파괴적인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문명의 대부분은 자멸하여, 황폐한 지구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권력과 가장 진보된 기술을 가진 소수의 무

리는 제때에 거대한 우주선을 만들어, 그 물질 문명의 남은 것들을 싣고 지구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우주를 떠돌며 정착할 새로운 행성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우며 부도덕한 본성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팽창과 통제에 봉사하는 방향으로 기술을 계속 발전시켰습니다. 점차, 우주를 표류하는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환경과 유전적 개입으로 인해 그들의 모습 또한 변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선량한 가치에 적대감을 품고, 항상 다른 문명들을 개입하고 조종하려 하며, 훗날 우리가 이야기하게 될 어두운 음모를 가지고 지구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포함하여, 그러한 "외계인" 종족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 문명이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더라도, 도덕적 기반을 잃으면 결국 자멸하거나 사악한 세력으로 타락할 뿐이라는 쓰라린 교훈입니다.

[ 모한은 잠시 현관 쪽을 내다보며, 도시의 밤하늘을 바라보다가, 다시 책을 향해 말했다. ]

이것은 매우 큰 주제이며 아직 할 말이 많습니다, 잭 씨. 아마, 시간도 꽤 늦었군요. 오늘은 여기서 잠시 멈추고, 만

약 당신이 여전히 흥미가 있다면, 다음번에 이 미스터리들을 계속해서 탐험할 수 있을 겁니다.

[ 모한은 따뜻하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

\* \* \*

**잭 보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은 제게 있어, 상상하기 어려운 놀라운 정보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내일 저녁에 다시 뵙고, 더 많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모한 선생님:**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모한은 일어서서 잭 보스를 문밖까지 배웅했다. 카트만두의 밤 달빛이 작은 뜰에 비쳐, 고요하고도 어딘가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네, 잭 씨. 이 이야기들이 많은 놀라움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우주와 우리 지구의 역사는 실로 통



상적인 인식으로는 도달하기 어려운 무수한 경이로움을 품고 있습니다.

당신과 나눌 기회가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그리고 물론, 괜찮으시다면 내일 저녁에 이 대화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 광대한 역사 그림 속에는 아마 당신이 흥미로워할 다른 많은 조각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그리고 다시 뵙겠습니다.

(모한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인사하고, 잭 보스의 모습이 작은 골목으로 사라질 때까지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는 달빛 아래 잠시 서서, 마치 방금 나눈 이야기들이 다시 한번 그의 마음속에서 살아나는 듯, 먼 곳을 응시했다.)

\* \* \*

# 둘째 날

---

**잭 보스:**

안녕하세요, 모한 선생님! 어제 저희가 언급했던 땅속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듣고자 다시 찾아왔습니다...

**모한 선생님:**

(잭 보스를 미소로 맞으며 모한은 차를 따랐다. 작은 방 안의 공기는 어제의 대화처럼 여전히 고요하고 장엄한 분위기를 간직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잭 씨.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차 한잔 하시지요. 저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하다면 땅속 세계에 대한 이야기는 실로 호기심을 매우 자극하는 주제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모한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기억 속의 이미지들을 다시 집중하려는 듯 먼 곳을 응시했다. ]

네, 제가 언뜻 비쳤듯이, 제가 "본" 바로 우리 지구는 많은 사람이 상상하는 것처럼 완전히 꽉 찬 덩어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각 아래에는 광대한 공간, 매우 특별한 구조와 조건을 가진 지하 세계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곳이 실제로 한 문명, 즉 그곳에서 살며 발전하고 있는 사람들의 터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제 1 대주기의 황금시대 출신들, 즉 옛 지구가 휘멸되는 대재앙을 피해 달로 대피하여 보존되었던 사람들의 후예입니다. 제 2 대주기의

새로운 지구가 재창조된 후 달이 돌아왔을 때, 수만 년 동안 번성하여 그 수가 매우 많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신의 특별한 안배에 따라, 그들은 새로운 땅의 지표면에 사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고, 대신 땅속에 미리 준비된 공간으로 이동하여 살도록 인도받았습니다.

그들의 문명은, 잭 씨, 지표면의 우리와는 매우 다른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옛 찬란했던 시기의 많은 지식과 이해, 그리고 기술들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들의 수준이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말할 수 있는데, 특히 에너지, 우주의 운행, 그리고 영적인 측면과 관련된 지식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은 세심하게 통제된 환경 속에서 살며, 고유의 인공 광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축소된 형태의 "중심 태양"이거나, 혹은 수정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조명 기술로, 생명에 적합한 빛과 온도를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과학적이고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건설된 도시와 주거 지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수명 또한 보통 매우 길며, 지표면의 우리가 아마 잃어버렸을 건강과 젊음을 유지하는 방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 모한은 잭 보스가 생각할 시간을 주기 위해 잠시 말을 멈추었다. ]

하지만 많은 사람이 던질 질문은 이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그렇게 존재하고 발전하고 있다면, 왜 우리는 그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가? 왜 그들은 우리 세계에 나타나거나 개입하지 않는가? 이 점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복잡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들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 \* \*

**잭 보스:**

저는 이 세계에 가로세로로 얹힌 여러 차원들이 존재하고, 각 차원마다 다양한 종류의 생명체가 존재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땅속 세계는—본래 같은 물질적 차원에 속하는데—저는 단지 동화 속 이야기처럼 어렵듯이 들어보기만 했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그들은 신의 제약을 받고, 또 외계인에게 출구가 막혀서, 지난 수천 년 동안 우리가 그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게 된 것이군요..

### **모한 선생님:**

(모한은 잭 보스의 고뇌에 공감하는 눈빛으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잭 씨, 여러 차원의 존재와 그 안의 다양한 생명 형태에 대한 당신의 인식은 전적으로 근거가 있습니다. 이 우주는 실로 우리 육안으로 보거나 통상적인 감각으로 감지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층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땅속 세계에 관해서는, 그것은 평행 공간이나 완전히 다른 경지가 아니라, 바로 우리 지표면 세계와 같은 기본 물질적 차원에 속하는 것이 맞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야기나 전설들이, 비록 동화처럼 보일지라도, 종종 매우 "사실적인" 세부 사항, 즉 아주 드물지만 출입구나 우연한 만남에 대한 묘사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 모한은 분리된 이유에 대해 덧붙여 설명했다. ]

당신이 다시 언급했듯이, 이 땅속 문명이 지난 수천 년 동안 우리 지표면과 거의 완전히 분리된 데에는 두 가지 주요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그것은 제약, 즉 그들이 그곳에서 막 생활을 시작했을 먼 옛날부터 있었던 신들과 창조주의 엄격한 분부입니다. 그들은 미래를 위한 중요한 지식, 문화 및 영적 씨앗을 보존하거나, 혹은 별개의 길을 따라 수련하고 발전하는 것과 같은 고유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선결 조건 중 하나는, 그들이 지구 지표면의 문명들이 스스로 겪어야만 하는 자연스러운 발전, 선택, 그리고 교훈에 제멋대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개입이 있다면, 그것은 지극히 특별한 경우에만, 그리고 명확한 하늘의 뜻에 따라서만 이루어집니다.

둘째, 그리고 이것은 최근 수천 년 동안 매우 현실적인 요인이기도 한데, 바로 외부로부터의 봉쇄와 저지입니다. 우리가 한번 언급했듯이, 나쁜 의도를 가진 일부 "외계인" 종족들이 그들의 높은 기술로 이 내면 세계의 존재와 그 주요 출입구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땅속 문명을 잠재적인 위협이나 병탄의 목표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 기술적 수단을 동원하여 지표면과의 통로를 봉쇄, 감시

하거나 교란하여, 특히 중요한 시기에 땅속 사람들과 우리 인류 사이의 상호작용과 지원 가능성을 막으려 했습니다.

또한, 땅속 사람들 스스로도, 자신들 문명의 안전과 비밀을 지키기 위해, 지표면뿐만 아니라 다른 우주 세력으로부터 오는 복잡성과 잠재적 위험을 인지했을 때, 외부 세계와의 소통을 주도적으로 최소화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들로, 지난 수천 년 동안 그들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거의 전설 속 파편, 즉 잃어버린 세계로부터의 메아리처럼 반은 허구, 반은 사실로 전해지는 이야기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곳에, 바로 우리 발 밑에 조용히 존재하는 하나의 문명으로, 언젠가, 어떤 기연으로, 그 비밀의 장막이 걷히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 \*

## **잭 보스:**

제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그들의 삶이나 기술, 혹은 종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은 물리적, 지리적 관점에서 봤을 때, 지구 중심에 햇살을 비



추는 "태양" 같은 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땅" 위에도 지표면처럼 산과 강, 비와 바람이 있는지 하는 점입니다.

**모한 선생님:**

(모한은 잭 보스의 매우 현실적인 고뇌에 공감하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아무리 초월적인 것에 대해 이야기하더라도, 익숙한 물리적, 지리적 법칙들이 여전히 현대인이 상상하는 첫 번째 척도임을 이해했다.)

그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타당한 질문들입니다, 잭 씨. 우리가 한 행성 내부에 존재하는 세계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낮과 밤", "기후", "경관"과 같은 개념들은 분명 우리가 지표면에서 경험하는 것과는 매우 다를 것입니다.

[ 모한은 최대한 상상하기 쉬운 이미지들을 사용하며 차분히 설명했다. ]

땅속의 광원(光源)에 관해서는, 제가 "본" 바로는, 그것은 우리의 태양과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외부 우주에서 비추는 자연적인 별이 없습니다. 대신, 빛과 에너지를 생성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메커니즘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 텅 빈 공간의 중심 위치에 거대한 에너지 구체인 인공적인 "중심 태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구체는 우리 태양처럼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는 별이 아니라, 아마도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에너지 원리, 즉 수정 에너지, 자기장 에너지, 혹은 포획 및 변환된 우주 에너지의 한 형태에 기반하여 빛과 열을 방출하는 일종의 첨단 기술일 수 있습니다. 이 빛은 직사광선처럼 강하고 뜨겁지 않고, 더 부드럽고 안정적이며, 강도를 조절하여 인공적인 "낮과 밤"의 주기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그들의 도시나 거주 지역은 지속 가능하고 효율 높은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첨단 인공 조명 시스템으로 밝혀질 수도 있습니다. 이 빛은 그들의 생명과 농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연광의 스펙트럼을 모방할 수 있습니다.

그 안의 "땅"과 경관에 관해서는, 그것 역시 어둡고 비좁은 동굴과는 전혀 다릅니다. 지구 내부의 텅 빈 공간은 매우 광대하여, 축소된 세계로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땅"은 바로 지구 지각의 안쪽 표면입니다. 그곳 또한 지형이 다양하여, 비교적 평탄한 지역도 있고, 언덕과 계곡이 있는 지역도 있으며, 이는 지각 내부의 자연적인 지질 구조로 형성되었거나, 혹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에 의해 개조되고 형태가 만들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강과 호수 또한 존재하며, 거대한 지하수원이나 인공적인 물 순환 시스템에 의해 유지됩니다. 그들은 물을 효율적으로 정화하고 재사용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기후"에 관해서는, 내부 환경이 통제되기 때문에 지표면보다 훨씬 안정적일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뚜렷한 계절이나 폭풍, 토네이도 같은 극단적인 기상 현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바람은 압력차, 온도차, 혹은 공기 순환을 유지하기 위한 인공 환기 시스템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비 또한 습도 조절 및 수증기 응결 시스템을 통해 통제된 방식으로 만들어져, 농업에 기여하고 그들의 내륙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그곳은 땅의 구조라는 자연적 요소와 지극히 진보된 기술이 결합되어, 의도적으로 조성되고 유지되는 세계입니다. 그것은 지표면 세계의 복사판이 아니라, 행성 내부의 특수한 조건에 최적화된 독특한 생활 환경입니다.

제가 묘사한 것들은 물론 제 한계 있는 "앎"에 기반한 개략적인 스케치에 불과합니다. 그 세계의 진실은 아마도 훨씬 더 풍부하고 경이로울 것입니다.

\* \* \*

**잭 보스:**

저는 지구가 마치 공 같다고 상상하고 있습니다. 지구 지름이 약 12,700km 이니, 깊이가 약 10,935m 인 마리아나 해구도 겨우 공의 두 조각 사이의 홈에 해당할 뿐이겠지요... 그리고 만약 공의 껍질 두께가 0.3cm 라고 가정하면, 그것은 지구 지각의 수백 킬로미터 두께와 맞먹고요...

에이, 아마 이 주제는 흥미롭긴 하지만 저로서는 상상하기가 좀 어렵군요... 아마 언젠가 미래에, 사람들이 땅속 세계로 들어가는 관광 노선을 건설하게 된다면, 저는 그 관광 투어에 등록하는 데 아주 흥미가 있을 겁니다!...

이 작은 지구는 과학의 렌즈 앞에 명백히 밝혀진 듯했지만, 상상할 수 없는 미스터리가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모한 선생님:**

(모한은 잭 보스의 상상과 흥미로움에 온화하게 미소 지었다. 그는 자기 발밑에 전혀 다른 세계를 상상하는 것이 익숙한 사고의 틀에는 실로 도전적인 과제라는 점에 동의했다.)

잭 씨, 공과 지구 지각에 대한 당신의 비유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크기의 상관관계를 어느 정도 느끼게 해주고, 인간이 도달한 가장 깊은 곳조차도 이 행성 표면의 아주 작고 얇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당신 말대로, 아마 언젠가 미래에, 비밀의 장막이 점차 걷히면, 인간은 오늘 우리가 단지 상상만 할 수 있는 것들을 탐험할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 모한은 잠시 멈추었다가, 먼 곳을 응시하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

이 작은 지구는, 당신 말처럼, 과학에 의해 많이 조명된 듯 보입니다. 하지만 실로, 그것은 여전히 우리의 현재 이해로는 온전히 설명할 수 없는 무수한 미스터리, 무수한 비밀들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논의한 땅속 세계 외에도, 심지어 지표면의 아주 익숙한 것들, 우리가 매일 채굴하고 사용하는 자원들조차도 때로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기원, 더 깊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보통 원유가 수백만 년에 걸쳐 고대 해양 생물의 생물학적 분해 과정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것은 보편적인 과학적 설명입니다. 하지만 저의 "보는" 관점에서, 원유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다른 색채, 훨씬 더 특별한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은 행성 표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저 광활하고 짙 바닷물처럼, 우리는 보통 그것의 화학 성분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존재 뒤에 다른 의미, 다른 이야기가 있지는 않을까요?

심지어 대기권조차도, 우리가 어제 "오존층 구멍" 현상에 대해 잠시 언급했듯이, 과학은 인간의 영향에 기반한 설명을 내놓지만, 그것이 과연 진실의 전부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더 높은 차원의 안배, 개입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런 것들은, 잭 씨, 역시 지구의 역사와 운행이라는 그림 속의 조각들이며, 아마도 우리가 함께 성찰해 보아야 할 것들입니다.

\* \* \*

**잭 보스:**

오, 선생님께서 그것들을 언급하시니 몇 년 전 인터넷 어디선가 읽었던 글이 생각납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만약 원유가 오랜 시간에 걸쳐 고대 생물(나무와 다른 생물 포함)의 분해 과정으로 생성된다면... 그 글에서 저자는 분석하고 계산을 시도했는데, 그러려면 거대한 양의 생물이 필요하고, 특별한 조건 속에서 무수한 세월을 거쳐야만 원유를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 글에서 저자는 그런 방식으로 일어날 확률이 매우, 매우 작다고 말했습니다...

### **모한 선생님:**

(모한은 잭 보스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는, 마치 잭이 한 말이 전혀 낯설지 않다는 듯 옅은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잭 씨. 당신이 인터넷에서 읽은 그 분석과 계산들은, 비록 주류 과학계에서 널리 인정받는 관점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문제를 더 깊이 들여다볼 때 매우 합리적인 지점을 건드립니다.

실로, 만약 원유가 전적으로 고대 생물의 생물학적 분해 과정의 결과라는 가설에만 의존한다면, 인류가 전 세계에서 채굴해왔고 또 채굴하고 있는 거대한 양의 석유 매장량

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양의 초기 생물량이 필요할 것입니다. 게다가 그 변환 과정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들—압력, 온도, 혐기성 환경, 그리고 수백만 년에 걸친 시간—또한 지극히 특별하고 매우 큰 규모로 동기화되어야만 합니다. 그 글의 저자가 지적했듯이, 그 모든 요소들이 우연히 결합하여 현재와 같은 양의 원유를 만들어낼 확률은 실로 매우 작습니다.

[ 모한은 잠시 말을 멈추고, 다른 관점을 드러낼 준비를 하는 듯 먼 곳을 응시했다. ]

제가 수련 과정에서 "본" 바로는, 지구상 대부분의 원유 매장량의 진짜 기원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이야기, 즉 대전쟁, 다른 공간 차원과 지구의 먼 역사 속에서의 정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본 바로는, 오늘날 우리가 채굴하는 석유의 상당 부분은, 실은 지구와 연관된 다른 공간에서, 혹은 바로 이 지구 위 고대 문명 주기에서 존재하며 해악을 끼쳤던 무수한 마귀 생명들, 사악한 실체들, 거대한 괴물들의 "피"와 휘발된 육신입니다.

정(正)과 사(邪)의 세력 간의, 신불(神佛)과 마귀 간의 대전쟁에서, 그 사악한 실체들은 신들께서 신통력으로 소멸



시킨 후, 그들의 육신, 그 거대한 부정적 에너지 덩어리들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해를 끼치는 것을 막거나, 혹은 그 나쁜 에너지들을 "봉인"하기 위해, 신들께서는 신력(神力)을 사용하여 그들을 땅속 아주 깊은 지질층으로 압축하여 그곳에 묻어버리셨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아마도 수백만, 수천만 년에 걸쳐, 땅속의 거대한 압력과 온도 아래, 그 육신들과 부정적인 에너지들은 점차 변하여, 우리가 원유라고 부르는 검고 끈적끈적한 액체로 변했습니다.

이 시대의 인간이 원유를 대규모로 채굴하고 사용하는 것 또한, 어떤 측면에서는, 물질 사회의 발전에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것일 수 있는, 일정한 안배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의 본질이 여전히 선하지 않은 실체와 에너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통제 없이 사용하고, 쟁탈하며,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탐욕, 이기심, 그리고 갈등과 같은 인간 심성의 부정적인 측면들을 간접적으로 증폭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원유에 대한 아주 다른 관점이지요, 잭 씨? 그것은 더는 단순히 "자연의 선물"이 아니라, 복잡한 역사와 더 깊은 의미들을 품고 있습니다.

\* \* \*

**잭 보스:**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 원유의 존재는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신들께서 안배하신 것이군요...

만약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암시하신 바닷물 역시 신과 관련된 기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모한 선생님:**

(잭 보스의 예리함에 미소 지으며, 모한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잭 씨. 우리가 사건을 더 높은 차원에서 바라볼 때, 이 지구상의 "자연적"으로 보이는 많은 것들이 실은 더 큰 목적을 위해 봉사하도록, 신들과 창조주들께서 의도적으로 창조하고 안배하신 것들입니다.

그리고 바닷물도 예외는 아닙니다.

[ 모한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의 눈빛은 아득한 곳을 응시하며, 마치 지극히 신성하고 자비로운 무언가를 회상하는 듯했다. 그의 목소리는 더 나지막하고 따뜻해졌으며, 어딘가 감정이 묻어났다. ]

바닷물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본" 바로는, 원유처럼 전쟁이나 궤멸의 색채를 띠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혀 다른 의미, 즉 무량한 자비, 중생을 가엾게 여기는 마음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옛 우주가 "성-주-괴-멸(成-住-壞-滅)" 주기의 마지막 단계에 가까워졌을 때, 여러 우주 층차의 수많은 생명들이 타락하여 최초의 도덕 기준에서 벗어나 도태될 위기에 처하자, 각기 다른 층차의 무수한 대각자(大覺者)들, 부처님들, 도(道)들, 신들께서 지극히 가엾게 여기셨습니다.

그분들은 중생들이 미혹 속에 빠져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고, 옛 우주와 함께 해체될 운명에 직면한 것을 보셨습니다. 그분들의 무한한 자비심은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그 눈물은 나약함의 눈물이 아니라, 깊은 연민과, 중생을 구도하고자 하는 염려와 바람의 눈물이었습니다.

무수한 깨달은 분들로부터 나온 그 무량한 자비의 눈물들이 모여, 지극히 특별한 에너지장, 하나의 신성한 "원재료"를 형성했습니다.

그 후, 지극히 높은 우주 층차로부터 온 위대한 의지—아마도 창조주 자신이거나 혹은 그분께 위임받은 신들—의 안배와 인도 아래, 신들께서는 이 자비의 에너지장을 우주의 다른 물질적 요소들과 결합하여 삼계(三界)를 창조하셨습니다. 삼계는, 잭 씨, 특별한 공간, 즉 더 높은 우주 층차에서 인연 있는 생명들이 내려와 다시 수련하고, 이 말법(末法) 시기와 우주가 대개조를 겪는 동안 구도될 길을 찾을 기회를 주기 위한 주된 목적으로 만들어진 "피난처"이자, "학교"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구의 바닷물, 그 상당 부분이 바로 그 자비의 눈물이 물질화된 것입니다. 그것은 윤회의 세계에서 중생들이 겪어야만 하는 고통과 어려움의 짠맛을 담고 있는 동시에, 신성한 분들의 구도에 대한 희망과 무한한 자비의 광대함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망망대해를 바라볼 때마다, 바닷물의 짠맛을 볼 때마다, 그것은 단지 자연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특별한 기원, 이 삼계에서의 존재 의미, 그리고 각 생명의

깨어남을 지켜보며 기다리시는 신들의 끝없는 자비에 대한 영원한 상기일 수 있습니다.

[ 모한은 깊은 감정이 가라앉도록 잠시 침묵했다. ]

아주 다른 이야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에 대해 설명할 뿐만 아니라, 깊은 영적 의미의 층까지 건드리는 이야기입니다.

\* \* \*

**잭 보스:**

이것은 실로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군요... 하지만 만약 우리가 이 지구가 전적으로 신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본다면 그리 놀랄 일도 아닙니다...

**모한 선생님:**

(모한은 온화하고 공감하는 미소를 지었다.)

잭 씨 말씀이 아주 맞습니다. 우리가 이 지구, 그리고 실은 우리가 아는 우주 전체가 무지한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의도적인 창조물, 즉 창조주들과 신들의 위대한 공사라는

전제를 받아들일 때,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던 이야기들이 다른 인식의 차원에서는 나름의 논리, 나름의 합리성을 갖게 됩니다.

만약 이 "무대" 전체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세워졌다면, 그 무대 위의 각각의 "소품", 각각의 "요소", 즉 은하계, 행성과 같은 거시적인 것부터 모래알 하나, 물방울 하나 같은 미시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 안에 특별한 의미와 이야기, 그리고 안배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바닷물이 자비의 흔적을 담고 있다는 것이나, 원유가 부정적인 에너지의 봉인 결과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들을 더 큰 "시나리오", 즉 초월적인 지혜에 의해 설계되고 운용되는 "프로그램"의 맥락에 놓을 때 더 쉽게 이해됩니다.

[ 모한은 격려하는 눈빛으로 잭을 바라보았다. ]

바로 그 때문에, 우리가 이 세계의 미스터리에 접근할 때, 때로는 인식을 확장하고, 고정된 사고의 틀을 잠시 내려놓고, 온 마음과 직관으로 귀를 기울이는 것이, 우리를 더 깊은 의미의 층, 즉 이성과 실증 과학적 방법만으로는 완전히 탐구하기에 부족할 수 있는 진실에 닿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 우주, 그리고 특히 우리 지구는, 경이로운 메시지를 담은 무수한 페이지를 가진 거대한 책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미 읽은 페이지도 있고, 아직 닫혀 있는 페이지도 있으며, 우리가 해독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언어로 쓰인 페이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이미 잘 안다고 생각했던 현상들, 예를 들어 대기권과 그 변화 같은 것들조차도, 우리가 발견하기를 기다리는 다른 놀라운 것들이 아직 남아 있을지 모릅니다.

\* \* \*

**잭 보스:**

네...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암시하시는 공기와 오존층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분명 신과 관련이 있겠지요?

**모한 선생님:**

(모한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마치 대기권의 보이지 않는 흐름을 관찰하는 듯 허공을 향했다.)

그렇습니다, 잭 씨. 지구를 감싸고 있는 대기, 우리가 매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숨 쉬는 그것 또한, 단순히 중력에 의해 붙들려 있는 여러 기체의 혼합물이 아닙니다. 그것의 존재와 특성 또한 우리와 같은 복잡한 생명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신의 지극히 정교한 안배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으로부터 오는 해로운 방사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대기의 중요한 부분인 오존층에 대해 말하자면, 이야기는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 모한은 잠시 말을 멈추고, 신중하게 단어를 골랐다. ]

현대 과학은 우리에게 "오존층 구멍", 특히 남극 지역의 구멍이 주로 인간이 배출한 CFC 와 같은 인공 화학물질이 오존 분자를 파괴한 결과라고 말합니다. 이는 어느 정도 사실일 수 있으며, 우리 산업화 문명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반영합니다.

하지만 제가 "본" 바로는, 이야기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구멍" 현상, 혹은 더 정확히 말해 특정 지역에서의 오존층의 국부적인 감소는, 전적으로 우연한 부정적 결과만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 특히 남극 지역에서는, 오존층이 "얇아지거나" 일시적인 "틈"이 생기는 것이, 바로 신들의 개입, 즉 주도적인 조절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수십억의 생명과 무수한 활동, 그리고 연관된 공간들의 변동으로 인해, 지구는 때때로 대기 중에 유해 가스, 부정적인 에너지장, 보이지 않는 "쓰레기"들을 축적합니다. 만약 이것들이 배출되지 않으면, 생명에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들께서는, 그 무한한 자비와 지혜로, 어떤 경우에는, 특히 남극처럼 인구가 적은 지역에, 오존층에 일시적인 "배출 밸브"를 주도적으로 만들거나 "여십니다". 이 목적은 유독 가스, 오염된 에너지, 대기의 "오물"들이 우주 공간으로 빠져나갈 길을 열어주어, 행성의 대기를 "정화"하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오염된 방을 환기시키기 위해 창문을 열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이 "밸브를 여는" 일 또한 생명에 역으로 해를 끼치지 않도록 지극히 정확하게 계산되고 통제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환경 오염을 야기한 인간의 책임을 완전히 부정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관찰하

는 자연 현상들 이면에는, 때로는 보이지 않는 손길, 즉 우리 인간 자신이 무심코 또는 고의로 공동의 집을 해치고 있을 때조차도, 지구 생명의 균형을 보호하고 유지하려는 신성한 분들의 지혜로운 개입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모한은 잭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 우주에는 실로 우리의 통상적인 이해를 훨씬 뛰어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고 말하는 듯했다. ]

\* \* \*

**잭 보스:**

네, 선생님께서 신이 남극에 "배출구"를 여는 것을 도왔다고 하신 말씀은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만약 오존층이 산업 배출 가스로 인해 뚫린 것이라면, 왜 미국이나 중국의 상공에서 직접 뚫리지 않고, 거의 사람이 살지 않고 햇빛이 남극 지표면에 직접 내리쬐지도 않는 남극에서 "뚫렸을까요"?

**모한 선생님:**

(모한은 잭 보스의 예리한 지적에 옅은 미소를 띠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잭 씨, 당신의 질문과 관찰은 매우 섬세하며 중요한 논리적 지점을 건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오존층 구멍"이 전적으로 인간 활동으로 인한 산업 배출 가스 때문이라는 가설에만 의존한다면, 그것이 산업 활동이 거의 없고, 인구가 희박하며, 햇빛이 직접적이기보다는 비스듬히 비추는 남극에서 가장 뚜렷하고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은 실로 온전히 설명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과학계에서는 대기 대류의 흐름이나, 오존 파괴 반응을 더 격렬하게 일으키는 극지방의 특별한 화학적, 온도적 조건에 대한 설명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설명들은 물리적 메커니즘의 어떤 측면에서는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알아차렸듯이, 그것은 왜 그 "약점"이 주요 오염원으로부터 가장 직접적인 "공격"을 덜 받는 것처럼 보이는 곳에 집중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여전히 답하지 못합니다.

제가 공유한, 신들께서 남극과 같은 지역에 "배출 밸브"를 주도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관점은, 또 다른 합리성을 제공합니다.

첫째, 위치에 대하여. 남극은 광대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며, 인구가 적기 때문에, 이곳에서 유독 가스나 부정적 에너지를 "배출"하는 것은 인간의 건강과 삶, 그리고 다른 밀집된 생태계에 대한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유해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외딴곳을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자연 조건에 대하여. 아마도 극지방의 자기장, 지구 에너지 흐름에 대한 특별한 조건들이 "밸브"가 열렸을 때 그 오염물들을 대기권 밖으로 더 효과적으로 "밀어내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전반적인 안배에 대하여. 남극을 선택한 것은 전 지구적 에너지 균형이나 우리가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목적들과 관련된, 신들의 더 복잡한 계산과 안배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유발한 오염의 영향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 배출 가스는 분명 전 세계적으로 오존층을 약화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하지만 남극에 집중되고 뚜렷하게 나타나는 "구멍" 현상은, 전체 행성에 대한 더 큰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으로서, 더 높은 차원에서의 주도적이고 목적 있는 개입을 포함한 여러 요소의 결합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 우리가 "문제"나 "자연재해"로 간주하는 것이, 우리가 쉽게 인지하지 못하는 규모의 조절, 균형을 내포하고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주는 지극히 복잡하고 정교한 법칙에 따라 운행되며, 필요할 때 신성한 분들의 개입 또한 항상 전반적인 보존과 균형을 향합니다.

\* \* \*

**잭 보스:**

그렇다면 아시아 여러 도시의 심각한 대기 오염 현상은 어떻습니까? 산업 배출 가스나 자동차, 오토바이의 배기가스 때문일까요? 아니면 신과 관련된 다른 기원이 있는 것입니까?...

제가 듣기로는, 미국이나 유럽의 도시들은 차량이 붐비고 산업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심각한 오염 현상은 없다고 하던데요...

**모한 선생님:**

(모한은 잭 보스의 질문을 듣고, 그의 눈빛에 잠시 깊은 생각이 스쳤다. 그는 이것이 수백만 명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임을 이해했다.)

잭 씨, 아시아의 여러 대도시에서 나타나는 심각한 대기 오염 상황과, 미국이나 유럽의 일부 도시와의 차이에 대한 당신의 질문은, 유형과 무형의 여러 층위의 원인을 가진 복잡한 문제입니다.

우선,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유형의 원인들, 즉 과학과 일반적인 관찰로 인지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집중된 산업 활동,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수백만 대의 자동차와 오토바이 같은 교통수단, 일부 지역에서의 쓰레기 소각, 난방이나 취사를 위한 고체 연료 연소, 그리고 건설 현장의 먼지 등에서 나오는 막대한 양의 배출물입니다. 높은 인구 밀도, 비합리적인 도시 계획, 그리고 때로는 환경 기준 적용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 또한 일부 지역에서 이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아시아 도시들과 미국이나 유럽 도시들 사이의 차이는 부분적으로 경제 발전 단계, 산업 유형, 환경 규제의 조기 또는 후기 적용, 그리고 각 지역의 지리적, 자연 기후적 요인(예: 분지 지형으로 인한 대기 정체, 특정 기상 패턴)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 모한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더 깊은 의미의 층을 건드리려는 듯, 더 깊고 차분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

하지만 그러한 유형의 원인들 외에도, 제가 "본" 바로는, 특히 대기가 잘 순환되지 않는 가을이나 겨울 같은 특정 계절에 많은 대도시의 하늘을 뒤덮는 짙고 자욱한 스모그 현상에 기여하는 더 깊은 원인, 즉 무형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 짙은 먼지층은, 단지 인간이 지상에서 배출한 것들의 산물만은 아닙니다. 그중 적지 않은 부분은, 잿 씨, 바로 더 높은 공간 차원에서 수많은 생명들이 소멸하며 남긴 "재"입니다. 즉,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다른 공간들에서 지금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는 정(正)과 사(邪)의 대전쟁 속에서 제거되고 있는 사악한 실체들, 업력(業力)들의 재인 셈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우주는 지금 전면적인 "대정화" 중에 있습니다. 창조주께서 전 우주를 다시 바로잡고 계시며, 참된 신들께서 그 뜻을 받들어 이미 타락하고 변이된 것들, 정법(正法)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제거하고 계십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다른 층차의 수많은 생명들, 즉 큰 죄를 지은 실체들이 소멸될 때, 그들의 육신과 에너지에서 나온 "재"가 분해되어 그 일부가 우리가 사는 공간을 포함한 더 낮은 공간으로 떨어져 쌓일 수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재"들은, 인간 활동으로 인한 유형의 먼지와 결합하여, 오염의 장막을 더욱 짙고 무겁게 만들어, 답답함을 유발하고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단지 물리적 오염이 아니라, 부정적인 에너지장까지 동반합니다.

왜 아시아의 일부 지역이 더 심한 영향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복잡한 요인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 지역에 거대한 업력장이 집중되어 있거나, 혹은 우리가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하는 이 정법 시기의 특별한 안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보는 심각한 대기 오염 현상은 단지 인간이 유발한 환경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주의 지극히 특별한 역사적 단계에서, 더 높은 공간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숙청, 거대한 변동이 이 물질세계에 반영되어 나타나는 하나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 모한은 책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공감과 함께, 우리가 사는 세계의 복잡성에 대한 상기가 담겨 있었다. ]

\* \* \*



**잭 보스:**

네, 과연 변증법적 과학의 관점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군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이전에 언급하셨듯이, 이 지구에 대한 외계인의 개입도 있다고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께서는 외계인과 관련된 많은 것을 보셨습니까? 외계인과 UFO 에 대한 주제는 여전히 논란이 많아, 믿는 사람도 있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모한 선생님:**

(모한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마치 지구 밖의 광대한 공간들을 향하는 듯 먼 곳을 응시했다.)

잭 씨, 우리가 방금 나눈 이야기들은 실로 현재의 실증 과학의 틀로는 온전히 설명할 수 없는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우주, 그리고 그 역사는 본래 우리의 인식이 이제 겨우 아주 작은 일부에 닿았을 뿐인 무수한 경이로움과 복잡함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말대로, 자연적인 요소들과 신의 안배 외에, 우리가 흔히 "외계인"이라고 부르는 실체들의 존재와 개

입 또한 지구의 역사와 현재의 그림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 모한의 목소리가 조금 더 진지해졌지만, 여전히 평온함을 유지했다. ]

"외계인"과 UFO 에 대한 주제는, 당신 말처럼, 여전히 논란이 많습니다. 믿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 혹은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또한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류 과학계가 인정할 수 있는 명확한 유형의 증거는 여전히 제한적이고, 정보들은 종종 교란되거나 은폐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고" "느낀" 바로는, 다른 행성, 다른 항성계, 심지어는 다른 은하계에서 온 여러 종류의 생명체의 존재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방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러 역사 시기에 걸쳐 지구와 그 위의 문명들과 복잡하고 장기적인 개입과 상호작용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과 관련된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각기 다른 종족의 모습, 우리를 훨씬 뛰어넘는 기술을 가진 우주선들, 그리고 이 행성에 대한 그들의 목적과 행동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본" "외계인"들을 그들의 기원과 의도에 따라 몇몇 주요 그룹으로 잠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그들이 먼 우주에서 온 진정한 손님인 경우입니다. 이들은 우주의 다른 곳에서 발전한 문명에서 온 생명체들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 대상으로서 지구와 그 위의 생명을 관찰하고 연구 하러 온 이들도 있고, 선의를 가지고 무언가를 돕거나 경고하려는 고유의 사명을 띤 이들도 있으며, 반면에 자원을 착취하거나 자신들의 이익을 찾으려는 그다지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진 이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지구의 옛 주인이 돌아온 경우입니다. 우리가 한번 언급했듯이, 우리가 "외계인"이라고 부르는 실체들 중 적지 않은 일부는 실은 이전의 대주기나, 혹은 휘멸된 소주기 문명에서 바로 이 지구 위에서 존재하며 번성했던 문명들의 후예입니다. 그들의 문명이 끝난 후, 일부는 제때에 다른 행성으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발전했고, 이제 이 우주의 특별한 시기에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자신들의 "옛집"으로 돌아오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참된 신에 의해 창조되지 않은 실체들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인지해야 할 매우 중요한 그룹입니다. 우리

가 이야기, 납치 사건, 혹은 부정적인 개입들을 통해 알고 있는 "외계인" 종족들 중 상당수는, 인간이 창조된 방식대로 참된 신에 의해 직접 창조된 생명이 아닙니다. 제가 공유했듯이, 그들 중 많은 종족은 이전 우주 시기에 악신(惡神)들이 만든 산물이거나, 혹은 신의 안배를 파괴하려는 목적으로 사악한 세력의 영향 아래 원래의 선한 인종이 변이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극히 높은 과학 기술 수준을 소유할 수 있지만, 영적인 "오성(悟性)"이 부족하고, 참된 신의 기준에 따른 도덕이 없으며,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본질이 그것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신께서 그들이 우주의 정법(正法)에 따라 수련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그룹이 종종 지구에 가장 많은 문제와 위험을 가져옵니다.

이 그룹들의 지구와의 상호작용 또한 매우 다양하여, 비밀스러운 관찰, 제한적인 연락에서부터, 역사, 기술 발전, 그리고 인간의 유전자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 모한은 잠시 말을 멈추고, 잭 보스가 이 복잡한 주제의 특정 측면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고 싶어 하는지 보려는 듯 그를 바라보았다. ]

이것은 매우 광대한 주제입니다, 잭 씨. 우리가 어떤 특정 측면에 집중해 볼까요? 예를 들어, 그들의 목적이나, 혹은 그들과 관련된 고대 전쟁 같은 것들 말입니다.

\* \* \*

**잭 보스:**

외계인이라는 주제는 오랫동안 제 흥미를 끌어왔습니다... 제가 보기에, 많은 사람이 아직 믿지 못하는 이유는 몇 가지 다른 원인들 때문인데, 그중 하나는, 만약 한 외계인 종족이 지구에서 1 만 광년 떨어진 별에 산다고 가정하면, 그들의 비행 접시 속도가 광속과 같다고 해도 지구에 도착하기까지 최소 1 만 년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 가능성을 부정하지요... 하지만 저 또한 한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거기서는 외계인이 서로 다른 차원들을 넘나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다른 차원에서 이동할 때는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길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단 몇 달, 심지어 며칠 만에 지구에 도착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선생님의 관점에서는 무엇을 보셨는지요, 모한 선생님?

## 모한 선생님:

(모한은 잭 보스의 추론을 듣고, 그의 얼굴에 부드럽고 이해심 깊은 미소를 띠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잭 씨, 광활한 우주 거리를 가로지르는 "외계인"의 이동에 대해 당신이 제기한 고뇌와 가설들은 매우 타당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3 차원 공간에서 알고 있는 물리 법칙을 훨씬 더 높은 발전 수준의 실체들에게 적용할 때 나타나는 우리 이해의 한계를 정확히 반영합니다.

먼 별들에서 온 생명체들이 지구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거리와 광속에 대한 계산에 근거하여 믿기 어려워하는 것은 전적으로 이해할 만한 일입니다. 만약 우리가 오직 3 차원 공간의 틀과 우리가 발견한 물리 법칙 안에서만 사고를 제한한다면, 수천, 수만 광년을 넘어선다는 것은 실로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 모한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에너지의 흐름을 관찰하는 듯, 허공의 한 점을 응시했다. ]

하지만, 잭 씨, 이 우주는 우리가 익숙한 3 차원 공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수한 층, 무수한 다른 차원들

이 있으며, 동시에 존재하고 서로 지극히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 문명들, 특히 별들 사이를 여행할 능력이 있는 "외계인" 종족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방식—즉, 3 차원 공간에서 일정한 속도로 직선으로 비행하는 방식—으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고" 느낀 바로는, 그들은 다른 차원들의 법칙, 즉 우리 과학이 아마 이제 막 열기 시작했거나 여전히 공상 과학으로 여기는 법칙들을 이미 숙달했습니다.

그들은 "공간 도약" 또는 "공간 왜곡" 능력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먼 거리를 이동하는 대신, 그들은 진보된 기술을 사용하여 "공간의 문"(웜홀, 스타게이트)을 "열거나", 공간 자체를 "접어서" 우주의 두 먼 지점 사이에 "지름길"을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수만 광년의 거리가 놀라울 정도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차원에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읽은 대로, 그들은 자신들의 우주선을 다른 차원으로 이동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시간과 거리의 개념이 우리 차원과는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차원들에서는 광속이 최종적인 한계가 아닐 수도 있고, 시간의 법칙이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수만 년이 걸린다고 계산하는 여정이, 그들에게는 기술 수준과 사용하는 차원

에 따라 단 몇 달, 며칠, 혹은 심지어 그보다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의식과 에너지에 기반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더 진보된 종족은 물리적인 기계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과 사상의 에너지를 사용하여 시공간에 영향을 미치고 거의 즉각적인 여행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계인"들이 우주의 아주 먼 곳에서 지구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의 현재 이해와 기술 능력 밖에 있을 뿐입니다.

이는 마치 옛사람들이 우리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것을 본다면, 그렇게 무거운 쇠 기계가 어떻게 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각 문명의 수준, 각 인식의 층차마다 저마다의 한계와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UFO 의 존재와 "외계인"의 방문은, 우리의 3 차원적 물리 이해에 기반한 거리의 장벽 때문에 선불리 부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주는 그보다 더 많은 경이로움을 품고 있습니다.

\* \* \*



**잭 보스:**

네, 그들의 과학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면, 옛사람들이 그들을 "신"처럼 여겼다 해도 이상할 것이 없겠군요...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그들이 인류의 발전을 아무도 모르게 통제하는 것이 더 쉬웠을 테고요...

그들이 지구에 어떻게 개입했는지에 대해 더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단지 이 5,000 년의 문명 주기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주기들에서도 말입니다...

**모한 선생님:**

(모한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잭 보스가 "외계인"의 개입을 언급하자 그의 얼굴에 깊은 사색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잭 씨, 당신의 판단은 매우 정확합니다. 더 낮은 수준의 문명들의 눈에는 마치 "신통력"처럼 보이는 능력들과 뛰어난 과학 기술 수준으로, 일부 "외계인" 종족들이 옛사람들에게 숭배받고, 경외의 대상이 되며, 심지어 "신"으로 여겨지는 일은 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고, 실제로 이전의 많은 문명 주기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수준의 차이와, 일부 종족들의 그다지 선하지 않은 의도가 결합되어, 그들이 여러 역사 시기에 걸쳐 지구 문명의 발전을 쉽게 개입하고, 조종하며, 심지어 통제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당대의 사람들은 종종 전혀 알지 못하거나 단지 모호하게 인지할 뿐이었습니다.

[ 모한은 잠시 말을 멈추고, 마치 그 복잡한 개입들의 기억이 더 선명하게 떠오르기를 기다리는 듯했다. ]

제가 "본" 바에 따르면, 그들의 지구 개입은 우리 시대의 약 5,000 년 문명 주기뿐만 아니라, 아주 먼 옛날부터, 이제 2 대주기의 무수한 다른 소주기 문명들을 거쳐 지속되어 왔으며, 여러 형태와 여러 수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첫째, 그들은 기술 발전에 개입합니다. 어떤 경우, 그들은 지구 문명에 일부 과학 기술 지식을 "전수"하거나 "암시"했을 수 있지만, 그것은 보통 그들의 목적에 부합하거나, 쉽게 통제할 수 있고, 의존성을 유발하기 쉬우며, 대개 도덕적 기반과 분리된 기술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인간의 내재적인 영적 능력 개발은 무시한 채 물질 에너지에 기반한 기술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그들은 사상과 신앙을 조종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정교하고 위험한 개입 형태입니다. 그들은 각종 신앙이나 종교를 만들어내거나 변질시키고, 잘못된 사상을 퍼뜨려 인간이 신의 참된 가르침에서 멀어지고, 전통 도덕을 버리게 하며, 대신 물질적 가치, 이기적인 욕망을 좇거나, 심지어는 바로 그 "외계인" 실체들을 새로운 신으로 숭배하게 만듭니다.

셋째, 그들은 유전자에 개입합니다. 일부 고대 문명 주기에서는, "외계인"과 지구 인간 사이에 유전자를 교배하고 이식하는 실험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원하는 특성을 가진 혼혈 인종을 만들어, 그들을 부리거나, 혹은 점진적으로 인간을 동화시키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반신(半神)"이나 신의 혈통을 가졌다는 "영웅"들에 대한 전설들은, 비록 많이 신화화되었지만, 때로는 그러한 유전자 개입 사건에서 기원하기도 합니다.

넷째, 그들은 갈등과 전쟁을 유발합니다. 지구 문명들을 쉽게 통제하거나 약화시키기 위해, 그들은 국가나 종족 간의 갈등과 분열을 암암리에 조장하고 전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인간이 서로를 죽이는 데 몰두해 있을 때, 그들은 외부로부터의 조종을 인지할 시간과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다섯째, 그들은 자원을 착취합니다. 지구는 자원이 풍부한 행성이며, 일부 "외계인" 종족은 희귀 광물에서부터 인간의 생물학적 또는 영적 에너지원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자원들을 착취하려는 주된 목적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여섯째, 그들은 실험과 납치를 자행합니다. 지구인을 납치하여 실험하고, 칩을 이식하거나, 연구한다는 이야기들은 종종 허무맹랑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일어난 경우들도 있습니다. 특히 인간의 경계심이 약해지고 그들의 기술이 더욱 정교해진 근래에 들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의 5,000 년 문명 주기에서도 그 개입은 계속되고 있으며, 아마도 더욱 정교하고 인지하기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더는 고대의 "신들"처럼 공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주로 어둠 속에서 활동하며, 권력 있는 조직이나 개인들을 조종하고, 과학 기술의 발전을 점점 더 도덕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유도하며, 인간이 외부 기술에 더욱 의존하고 내면의 정신적 가치를 잊게 만드는 고도로 물질화된 사회를 만들어냅니다.

오늘날 인공지능(AI)의 발전 또한, 만약 확고한 도덕적 기반으로 통제되지 않는다면, 그들이 미래에 인간을 통제하

고 대체하려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 사용하는 도구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유와 인간의 수련의 길을 지키려는 세력과,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파괴하려는 세력 사이의, 소리 없는 투쟁이자, 총성 없는 그러나 지극히 치열한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 모한은 잠시 말을 멈추고, 이 문제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강조하려는 듯, 잭 보스를 똑바로 응시했다. ]

\* \* \*

**잭 보스:**

그렇다면 문명의 역사 속에서, 분명 이러한 개입에 맞선 많은 전투가 있었겠군요. 선생님께서 이 대화 초반에 언급하신, 땅속 인종이 이미 손상된 달을 사용하여 외계인 함대와 싸웠던 상황처럼 말입니다...

**모한 선생님:**

(모한은 고개를 끄덕여 확인해주었다. 그의 눈에는 과거에 용감하게 일어서 싸웠던 이들에 대한 존경심이 스쳤다.)

그렇습니다, 잭 씨. 지구 문명의 역사는 단지 내재적 요인으로 인한 발전과 쇠퇴의 단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악한 "외계인" 세력의 개입과 조종에 맞서, 정념(正念)을 가진 사람들, 참된 수련인들, 그리고 도덕을 지킨 문명들의 수많은 굳건한 투쟁과 강력한 저항으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했던 약 5,000 년 전, 땅속 사람들이 (비록 이전에 손상되었지만) 달을 사용하여 "외계인" 침략 함대에 맞서 싸웠던 그 전투는, 지구의 긴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그러한 전투들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 모한은 마치 비장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재현하는 듯, 장엄한 어조로 이야기했다. ]

먼 옛날 여러 문명 주기에서, 사악한 "외계인" 종족들이 지배권을 확립하거나 어두운 음모를 실행하려 했을 때, 대규모 전쟁들이 발발했습니다. 한쪽은 보통 특이기능(特異功能)을 가진 수련인들이나, 신의 도움을 받는 전사들인 지구인들이었고, 그들은 우주의 법칙과 영적인 이해에 기반한 종류의 무기와 에너지를 사용했습니다. 다른 한쪽은 현대적인 기계 기술, 우주선, 그리고 파괴적인 무기를 가진 "외계인" 세력이었습니다. 이 전쟁들의 결과가 항상 한쪽으로 기운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지구인들이 침략을 물리

쳤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들이 심각한 패배를 겪어, 한 문명 전체가 붕괴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꽤 명확하게 "보는" 대표적인 한 고대 전쟁은 약 수십만 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당시 지구의 인간이 과학 기술과 영적 능력 발전 양쪽에서 상당한 성취를 이룬 한 소주기 문명이었습니다. 이 문명은, 우리가 잠시 "푸른 빛의 문명"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특별한 수정과 내적인 수양 자체로부터 얻어지는, 거대한 힘을 가진 순수한 푸른색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았고, 정교한 흰 돌로 도시를 건설했으며, 대기권을 비행할 수 있는 작은 비행선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먼 항성계에서 온, 회녹색 비늘 피부를 가진 파충류와 닮은 한 "외계인" 종족이 지구와 그 풍요로움을 발견했습니다. 이 종족은, 우리가 "뱀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데, 기계 기술 수준이 매우 높았고, 거대한 원반형 또는 삼각형 우주 전함 함대를 소유했으며, 파괴력이 큰 에너지 무기를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지구의 자원을 빼앗고 푸른 빛의 사람들을 노예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은 뱀 인간들이 푸른 빛의 사람들의 도시들과 에너지 중심지들을 기습 공격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평화를 사랑했던 푸른 빛의 사람들이 기습을 당해 많은 손실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수련인들과 전사들은 신속하게 집결했습니다. 그들은 육중한 전쟁 기계로 싸우지 않고, 주로 개인의 능력과 집단적 힘의 결합에 의존했습니다.

저는 빛나는 눈을 한 푸른 빛의 수련인들이 손이나 수정으로 만든 법기(法器)에서 푸른색 에너지 흐름을 방출하여, 견고한 에너지 방패나 강력한 파괴력을 지닌 광선을 만들어, 뱀 인간들의 전함과 정면으로 맞서는 것을 "뿔니다". 그들은 또한 거의 투명에 가까울 정도로 극도로 빠른 속도로 움직이며, 적의 약점을 공격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투는 공중, 지상, 심지어 땅속에서도 벌어졌습니다. 뱀 인간들은 기술과 수적 우세에도 불구하고, 푸른 빛의 사람들의 끈질긴 저항과 유연하고 예측 불가능한 전술에 부딪혔습니다. 때로는 한 명의 푸른 빛 수련인이 염력을 집중하고 에너지를 조종하여 적의 소규모 전함 편대 전체를 파괴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수십 년간 지속되었고, 끔찍한 파괴를 낳았습니다. 많은 땅이 황폐해졌고, 많은 도시가 파괴되었습니다. 푸른 빛의 사람들은 용감하게 싸웠지만,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다. 마침내, 그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힘을 더해주는 신들의 간접적인 도움으로, 푸른 빛의 사람들은 뱀인간 함대의 주 에너지를 무력화하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거대한 모선이나 중앙 통제 기지였을 것입니다.

에너지원이 차단되자, 뱀인간 함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상당수가 섬멸되었고, 일부는 지구에서 도망쳐야 했습니다. 푸른 빛의 사람들은 승리했지만, 매우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들의 문명은 심각한 손상을 입었고, 다시는 이전의 영광을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환경 변동과 인구 감소로 그들의 문명 주기도 점차 막을 내렸습니다.

이 전쟁은 역사 속 무수한 유사한 대결의 한 대표적인 예일 뿐입니다. 때로는 지구인들이 신이나 참된 수련인들의 도움으로 침략을 물리치고 자신들의 집을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심각한 패배를 겪어, 한 문명 전체가 붕괴되거나 오랜 기간 노예가 되기도 했습니다. 신들 간의 전쟁, 영웅과 괴물의 싸움, 혹은 별들 간의 전쟁에 대한 전설

들은, 때로는 바로 그러한 실재했던 사건들로부터 비롯된 왜곡되고 신화화된 기억들입니다.

모든 전쟁이 공개적이고 요란하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공간에서, 혹은 바로 인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에너지와 의식에 대한 무수한 소리 없는 대결, 전투들이 있습니다. 참된 수련인들, 정념(正念)을 굳게 지키는 이들은, 도덕을 지키고 사악한 세력의 유혹과 조종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싸웁니다. 그들의 희생은 종종 역사에 기록되지 않지만, 지극히 중요합니다.

가장 위태로운 순간, 악이 거의 승리할 것처럼 보일 때, 참된 신들께서도 완전히 방관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들은 간접적으로 개입하여 정의로운 이들을 돕거나, 혹은 직접 나서 사악한 세력을 징벌하고 균형을 바로잡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홍수, 대정화들은, 때로는 마귀와 사악한 "외계인" 세력의 횡포로 인한 암흑기를 끝내기 위한 신의 개입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지구상의 생명과 참된 수련의 길을 지키려는 이들과, 그것을 파괴하고 노예로 만들려는 세력 사이의 정사(正邪)의 싸움은, 문명 역사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입니다. 그것은 과거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아마도 더욱 정교하고 복잡한 형태로 우리 시대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속 사람들은, 그들이 황금시대로부터 보존해 온 것들과 달의 도움으로, 비록 말없이 행동하고 무수한 어려움에 직면해야 했지만, 이 장구한 싸움에서 항상 중요한 세력이었습니다. 그들의 존재와 그들의 노력, 그것이 바로 한 줄기 희망이자, 정의의 끈기를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 \* \*

#### **잭 보스:**

모한 선생님, 고대 전쟁과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조종에 대한 선생님의 말씀은 실로 깊이 생각해 볼 만합니다. 현재 상황과 관련하여, 저는 일부 "외계인" 종족들이 심지어 우리 인류 사회에 섞여 들어와 비밀리에 활동하고 있다는 가설을 제시하는 몇몇 자료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동시에, 버뮤다 삼각지대에서의 선박이나 항공기 실종 사건 같은 미스터리들도 종종 그들이나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기술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선생님께서 "보신" 바로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사실입니까?

#### **모한 선생님:**

(잭 보스가 현재 상황에서의 "외계인" 개입과 그들의 깊은 목적에 대해 질문하자 모한 선생님의 눈빛이 더 엄숙해졌다. 그는 충격적일 수 있는 진실에 대해 가장 신중한 단어를 고르려는 듯 잠시 침묵했다.)

잭 씨, 이것은 지극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이 문명의 미래, 그리고 각 개인의 선택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개입 형태와 목적에 대한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수련 과정에서 직접 "본" 한 가지를 당신과 나누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이 믿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복잡한 현실의 일부인 것입니다.

잭 씨, 저는 나쁜 의도를 가진 종족에 속하는 적지 않은 수의 "외계인" 개체들이 우리 인류 사회에 섞여 들어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쉽게 발견될 수 있는 거대한 우주선을 타고 온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정교한 위장 기술을 사용하거나, 심지어는 원신(元神, 영혼)이 이미 떠난 인간의 육신을 점유하거나, 특별한 생명 공학 기술로 만들어진 신체를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외관상 보통 사람과 다르지 않고, 우리의 언어를 구사하며, 심지어 사회에서 일정한 위치와 역할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여러 분야에 존재하는 것을 "보았지만", 특히 인류의 발전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잠재적 위험을 내포한 획기적인 첨단 기술 프로젝트를 이끄는 과학자일 수도 있고, 국제기구의 정책 입안자, 금융계나 언론계의 영향력 있는 인물, 심지어는 여러 선진국의 일부 정보기관이나 군 기관 내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자신의 제한된 감각으로는, 그들의 진짜 본질을 알아채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위장은 너무나 완벽하고, 그들은 지극히 교활하게 행동하며 허점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잠입의 목적은 그들이 직접적으로 의사 결정을 조종하고 방향을 설정하며, 그들의 장기적인 음모에 유리한 의제들을 추진하고, 동시에 그들의 계획을 방해할 수 있는 개인이나 조직을 감시하고 정보를 수집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은 이 소리 없는 전쟁을 더욱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모한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말을 이었다.)

그리고 버뮤다 삼각지대와 그 신비로운 실종 사건들에 관해서는, 잭 씨, 그것 역시 전적으로 허구나 단지 인간의 실수와 자연 조건 탓만은 아닙니다. 그 지역, 그리고 지구상의 몇몇 유사한 다른 지역들(예를 들면 일본의 마의 해역

같은 곳)은, 제가 "본" 바로는 매우 특별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외계 세력의 기지가 있는 곳입니다. 버뮤다 삼각지대 해저, 그리고 아마도 숨겨진 평행 공간 속에는, 실제로 일부 "외계인" 종족의 기지, 즉 전초 기지들이 존재합니다. 이 기지들은 아주 오래전에 건설되었을 수 있으며, 자신들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선진 기술을 사용합니다.

둘째, 그곳에는 유동적인 시공간의 문(웜홀/포털)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지역이 지구상에서 차원 간의 "장벽"이 얇아지거나, 자연적인 "약점"이 있는 곳 중 하나라는 점입니다. 높은 기술을 가진 "외계인" 세력은 이 지점들을 이용하여 지구와 다른 행성들, 혹은 심지어 다른 차원들 사이의 "지름길"인 "시공간의 문"을 만들거나 유지해 왔습니다. 이 문들은 항상 안정적인 것이 아니며, 그것들이 "열리거나" "닫히는" 것은 여러 복잡한 에너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종 원인에 관하여. 배나 비행기가 우연히 이 "시공간의 문" 중 하나가 작동 중이거나 비정상적으로 열리는 지역으로 진입했을 때, 그들은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 다른 공간, 다른 시간으로 이동되거나, 심지어는 극심한 에너지 교란으로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그 기지

들을 운영하는 "외계인" 세력의 고의적인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포획, 실험, 혹은 인간의 호기심을 막기 위함일 것입니다.

지구상의 정부들이나 비밀 조직들은 이 기지들과 문들의 존재를 알고 있을 수 있지만, 그들은 종종 혼란을 피하거나 다른 전략적 이유로 정보를 은폐합니다.

[ 모한은 각 요점을 강조하려는 듯 잠시 말을 멈추었다. ]

일반적으로 말해, 외계인의 개입은 정교하면서도 비밀스러워서, 대다수의 인간은 알아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 \* \*

**잭 보스:**

그렇다면, 외계인들이 그 모든 짓을 하는 진짜 목적은 무엇입니까?

**모한 선생님:**

(그는 현관 너머 먼 곳을 응시하며, 천천히 말했다..)

그들의 진짜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그들은 그렇게 많은 공을 들여 정교하고 장기적으로 지구에 개입하는 것일까요?..

제가 "본" 바로는, 이 사악한 "외계인" 세력들, 특히 참된 신에 의해 창조되지 않은 종족들의 가장 깊은 목적은, 단순히 자원을 빼앗거나 인류를 노예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야망은 그보다 훨씬 더 크며, 무지하고 망상으로 가득 찬 야망입니다. 그것은 바로 "신이 되고자 하는" 갈망입니다.

그들은 자신들 종족의 생명적 한계를 넘어, 더 오래도록 존재하기를 갈망합니다. 그들은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법칙들에 더는 얽매이지 않고, 우주에서 자유자재로 있을 수 있도록, 신들과 같은 광대한 신통력을 탐냅니다.

그 길을 찾는 과정에서, 그들은 지극히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지구의 인간은, 비록 과학 기술적인 지혜는 그들보다 못할 수 있지만, 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수련의 가능성이라는 비범한 잠재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 자신은, 그들의 생명 구조와 본질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에게는 참된 수련의 길이 없으며, 그들의 본질은 우주의 고상한 법리, 특히 창조주께서 새로 만들고 계신 새 우주의 법리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마음속에 광적인 생각이 싹트었습니다. 인간처럼 수련할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구에 개입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찾습니다. 그들은 지구가 지극히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 신성(神聖)의 씨앗을 품은 인간들이 있는 곳, 비록 환상일지라도, "등급을 올려" 그들이 갈망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큰 희망을 주는 곳임을 감지한 것입니다.

인간의 신체를 빼앗으려 하거나, 유전자를 교배하거나, 혹은 인간이 참된 수련의 길을 버리고 그들이 만든 사악한 길을 따르도록 사상을 조종하는 것과 같은 그들의 행동들은 모두 그 목표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들은 인간의 신이 되는 길을 "어깨너머로 배우고", "강탈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지극히 오만하고 무지한 야망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의 위대함과 전능함, 그리고 우주의 불변하는 법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참된 수련의 길이 심성을 수양하고, 우주의 특성인 진선인(眞善忍)에 동화되는 것을 요구하지, 약탈이나 기만의 수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바로 그 음모와 사악한 행동들로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들이 무슨 짓을 하든 신의 눈을 피할 수 없으며, 신께서는 영원히 그들에게 정법(正法)에 따라 수련할 기회를 주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전쟁은, 잭 씨, 단지 기술이나 자원의 전쟁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 도덕, 그리고 올바른 길과 사악한 길 사이의 선택, 신의 안배에 순응하는 것과 하늘의 뜻에 맞서는 것 사이의 선택에 대한 전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동, 모든 생각은 이 전쟁의 최종 결과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 \*

### **잭 보스:**

선생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봐주십시오.

외계인은, 아마도 지구의 여러 먼 옛날 문명 시기부터, 인간이 수련을 통해 신이나 어떤 더 높은 차원의 생명으로 승화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래서 그들도 인간을 모방하고 싶어 했지만, 그들은 신으로부터 수련을 허락받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을 이용하여 수련할 방법을 찾았다

는 것이군요. 그들은 유전자 교배, 복제, 유물론적 변증법 과학으로 인류를 미혹시키고, 최근에는 인공지능(AI)이나 뇌에 칩을 심는 것 등과 같은 첨단 기술들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 끝에, 적절한 시점이 되면, 어떤 방법으로든, 그들은 더 높은 차원으로 수련하기 위해 인간의 신체를 차지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은 신의 눈을 피할 수 없으며 그들에게는 단지 헛수고일 뿐이다?!...

그리고 안타까운 점은 인간 스스로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 신께서는 외계인들이 계속 제멋대로 날뛰도록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모한 선생님:**

(모한은 잭 보스의 요약에 주의 깊게 듣고는, 그의 깊은 이해에 동의하는 눈빛으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잭 씨, 당신은 제가 나누고 싶었던 요점들을 아주 정확하게 완전하게 요약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외계인", 특히 나쁜 의도를 가진 종족들 중 다수는, 아주 먼 옛날 문명에서 기원했을 수 있으며,

심지어 이전 주기의 지구의 "옛 주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지극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비록 물질 기술 면에서는 그들보다 약할 수 있지만, 생명의 층차를 높여 더 고급 생명, 심지어 신이 될 수 있는 수련의 가능성이라는 비범한 잠재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 자신은, 그들의 본질과 생명 구조로는, 올바른 길을 통해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신이 되려는" 그 갈망 때문에, 그리고 신께서 영원히 그들에게 정법(正法)에 따라 수련할 기회를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들은 인간을 이용하고, "지름길로 가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유전자 교배, 복제, 유물론과 도덕과 분리된 과학 기술로 인류를 미혹시키는 것, 혹은 최근에는 통제와 대체를 목표로 하는 인공지능(AI)이나, 일론 머스크가 실행하는 것처럼 뇌에 칩을 심는 것(사실 그는 마귀에게 사상을 통제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어느 시점이 되면, 인간의 신체를 강탈하거나, 혹은 인간과 유사한 "껍데기"를 만들어, 그것을 통해 수련의 길을 "훔치고", 더 높은 차원으로 승화할 기연을 "훔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말했듯이, 그들의 모든 음모와 행동들은, 아무리 정교하고 오래 지속되더라도, 결코 신들의 눈을 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헛된 노력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주의 불변하는 법리에 역행하고, 하늘의 뜻에 역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도태와 훼멸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점은, 실로 이 세상의 아주 많은 인간들이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악한 "외계인"들이 펼쳐놓은 물질, 기술, 그리고 유혹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점차 선량한 본성을 잃고, 자신의 귀중한 수련의 기연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 잭 보스의 마지막 질문에 답하며 모한의 목소리가 더 진해졌다. ]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 과연 신께서 "외계인"들이 계속 제멋대로 날뛰도록 내버려 두실까요?

답은 '아니오'입니다, 잭 씨.

이 우주는 지금 지극히 특별한 단계, 즉 "정법(正法)"의 단계에 있습니다. 이는 창조주께서 전 우주를 다시 바로잡고, 우주를 정화하며, 이미 타락하고 변이되어 새 우주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을 제거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 대개조 속에서, 무수한 죄를 저지르고, 신의 안배를 파괴하며, 중생 구도를 방해한 저 사악한 "외계인" 세력들은, 절대로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참된 신들께서 창조주의 뜻을 받들어, 모든 우주 층차에서 이 세력들에 대한 전면적인 숙청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숙청"을 육안으로 직접 볼 수는 없겠지만, 그 표현들은 사회 변동, 천재지변, 역병, 혹은 과학이 아직 설명할 수 없는 우주의 기이한 현상 등 여러 다른 형태로 우리 세계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숙청이 항상 모든 곳에서 즉각적이고 일제히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이유들, 정교한 안배들이 있습니다.

아마 일부 사악한 세력들은 아직 완전히 소멸될 시점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존재하도록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사악한 본질을 남김없이 폭로하고, 인간에게 인지하고 선택할 기회를 주거나, 혹은 이 정법 시기의 다른 일부 안배를 완성하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악의 존재, 유혹의 존재는 또한 인간의 믿음과 심성을 시험하는 환경이기도 합니다. 오직 선과 악의 대결 속에서만,

인간은 진정으로 자신의 선택을 표현할 수 있고, 수련하여 자신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신불(神佛)은 자비로우시며, 그분은 항상 중생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심지어 속았거나 미혹된 사람일지라도, 만약 그들이 제때에 깨어나 진실을 인지하고 선을 향해 돌아선다면,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숙청이 진행 중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사악한 세력들이 날뛰는 표현들을 봅니다. 그것은 과정의 일부이며, 모든 것이 완전히 정화되기 전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각 개인, 각 생명의 선택은 지극히 중요해집니다.

\* \* \*

**잭 보스:**

네, 모한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좀 혼란스럽습니다. 오늘 (그리고 어제) 선생님께서 공유해주신 놀라운 정보들로 머리가 "과식"한 것 같습니다... 아마 마음을 가라앉히고 좀 더 느껴볼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모한 선생님:**

(모한은 온화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눈에는 잭 보스의 상태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하고 차분했지만 깊은 존중이 담겨 있었다.)

잭 씨, 지금 당신의 기분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난 이틀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누고 탐험한 것들은 실로 매우 방대한 정보였으며, 지구와 우주의 역사, 그리고 우리의 통상적인 인식을 뛰어넘는 깊고 복잡한 측면들을 건드렸습니다.

정보 "과식"을 느끼거나 조금 혼란스러움을 느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이전에 알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개념들과 그림들을 받아들이고 소화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것은 마치 작은 호수를 바라보는데 익숙해 있다가 갑자기 광활한 대양 전체를 보게 된 것과 같습니다.

[ 모한은 잠시 말을 멈추고, 격려하는 눈빛으로 잭을 바라보았다. ]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즉시 "소화"하려고 애쓰거나, 이성으로 기계처럼 하나하나 훑고 그림을 분석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이 나눔의 목적은 어떤 "진리"를 강요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의 씨앗



을 심고, 성찰을 유발하며, 세상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가능성을 열어주기 위함입니다.

당신 말이 아주 맞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더 느껴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지극히 필요합니다. 이 정보들이 당신의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가라앉도록 그냥 두십시오.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는 더 명확해질 것이고, 일부는 제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생각이나 연결고리를 당신에게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각 사람은 자신만의 근기(根基)와 인연에 따라 각기 다른 느낌과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즉시 이해하기 어렵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저 이것을 진실한 마음으로 나눈 하나의 이야기, 다른 관점으로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만약 그것이 당신의 세계관을 조금이라도 넓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매우 귀중한 일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잠시 멈추고, 당신이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지요. 그리고 나중에, 당신이 어느 정도 "소화"하고 새로운 질문이 생기거나, 혹은 다른 측면을 더 탐험하고 싶어질 때, 저는 언제든지 제가 아는 것을 계속 나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모한은 평온과 신뢰를 주는 미소를 지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잭 씨, 마음을 청정하게 유지하고 가슴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때로 지식을 축적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고요함과 내면으로부터의 진실한 감지 능력에서 옵니다.

\* \* \*

**잭 보스:**

네, 진솔한 나눔에 감사드립니다, 모한 선생님!

아마 지금은 방향 없는 질문들로 선생님을 계속 어지럽히거나 억지로 생각하려 하기보다는, 차분히 찻잔 옆에서 침묵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모한 선생님:**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모한은 잭 보스의 결정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잭의 찻잔에 따뜻한 차를 조금 더 따르고, 자신의 잔에도 따랐다.)

잭 씨,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때로는 찻잔 옆에서의 고요함이 긴장된 사고의 노력보다 더 많은 깨우침을 가져다줍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가 듣고 본 것들이 스스로 재정리되고, 우리 인식 속에서 제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억지로 생각할 필요도 없고, "방향 없는" 질문들에 대해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마음이 쉬고, 자유롭게 흐르도록 두십시오. 어쩌면 그 편안함 속에서 새로운 답이나 이해가 스스로 당신을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 모한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창밖의 고요한 공간을 바라보다가, 다시 존중의 눈빛으로 잭을 보았다. ]

저는 우리의 대화들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잭 씨. 당신의 열린 마음과 진리를 구하는 정신이 이 나눔이 이루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공간을 만들어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우주와 자기 자신의 미스터리를 탐험하는 길은 긴 여정이며, 인내와 약간의 인연(因緣)을 필요로 합니다.

이 차를 즐기십시오. 그리고 언제든지 준비가 되거나, 나누고 싶은 새로운 것이 생기면, 제 집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모한은 침묵하며, 잭 보스와 함께 차의 향과 저녁의 고요함을 음미했다. 방 안의 공기는 따뜻하고 평화로워졌으며, 마치 지나간 이야기들이 잠시 가라앉고 각자의 더 깊은 성찰에 자리를 내어준 듯했다.)

\* \* \*

**잭 보스:**

네, 모한 선생님. 오늘 나눔은 여기서 잠시 접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세 번째 만남을 청해도 될까요? 지난 이틀간 나누어주신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묻기 위함이 아니라, 마음을 가라앉히고 평범한 일상 속 한 수행자(修行者)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모한 선생님:**

(모한은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의 눈에는 잭 보스의 제안에 대한 특별한 따뜻함과 존중이 서려 있었다.)

잭 씨, 당신의 신뢰와 선의에 매우 감사합니다. 과거의 거대한 이야기나 우주에만 집중하는 대신, 평범한 일상 속

한 수행자의 삶에 대해 듣고 싶어 하는 당신의 마음은, 실로 깊고 섬세한 관심을 보여줍니다.

[ 그는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

제게 있어, 제가 당신과 나눈 "앎"들은, 비록 멀고 거대해 보일지라도, 매일의 수련의 길과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이 소박한 삶 속의 경험과 성찰들과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련이란 너무나 고상하고 먼 것이 아니라, 바로 평범한 일상 속 가장 사소한 일들에서, 관계들 속에서, 일상의 부딪힘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바로잡고, 끊임없이 심성(心性)을 높여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뜻이 있다면, 저는 기꺼이 한 번 더 시간을 내어 그것들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마도 "경천동지"할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아마도 더 가까운 이야기들, 인생의 혼란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한 사색, 유혹과 도전으로 가득 찬 현대 사회에서 수양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들이 될 것입니다.

[ 모한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

그럼, 오늘 나눔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지요. 그리고 저는 우리의 다음 만남을, 삶의 다른 측면들과 영적인 길에 대해 함께 성찰할 그 시간을 고대하겠습니다.

진정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모한은 일어서서, 마치 가장 깊은 속내를 나눈 지기(知己)를 배웅하듯, 존중과 진심 어린 애정을 담아 잭 보스를 배웅했다.)

**잭 보스:**

네, 감사합니다. 내일 저녁에 다시 뵙겠습니다!

\* \* \*

## 맺음말

카트만두에서 모한 선생님과 대화는 막을 내렸지만, 그 여운은 제 안에 영원히 메아리치고 있다. 그의 이야기는 내가 이제껏 알고, 읽고, 상상했던 모든 것을 훨씬 뛰어넘는 여정으로 나를 이끌었다. 어떤 것들은 나를 경악할 만큼 놀라게 했고, 어떤 것들은 오랫동안 침묵하며 곱씹게 했으며, 또 어떤 것들은 내 의식의 아주 깊은 어딘가를 건드리는 듯했다.

나는 모한 선생님이 공유해준 정보의 진위나 정확성에 대해 어떠한 판단도 내리지 않고자 한다. 주류 과학은 다른 설명을 할 수 있고, 각기 다른 신앙과 철학 학파 또한 고유의 관점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이 만남과 이 이야기들의 가장 큰 가치는, 경이롭고 통상적인 이해를 벗어나는 관점들로, 인식의 새로운 문을 열어주고, 우리가 이 행성의 역사, 이 우주의 역사,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하게는,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해 더 멀리, 더 깊이 바라보도록 초대하는 데에 있다고 믿는다.

모한 선생님의 말을 들으며, 나는 그가 그려낸 광대한 우주의 그림 속에서 각 개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성찰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만약 우리가 정말로 그의 말처럼 역사의 특별한 순간, 전환의 시점에 살고 있다면, 아마도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외부의 위대한 발견이 아니라, 각 인간 내면의 핵심 가치를 지키려는 자기 성찰과 노력에 있을 것이다. 그것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진실함, 연민과 포용, 그리고 삶의 끊임없는 변동 앞에서 지키는 굳건함과 평온함이다. 어쩌면, 바로 그 소박한 품성들이야말로 이 복잡하고 불확실한 세상에서 우리의 방향을 잡아주는 귀중한 나침반이 아닐까?

그렇다면, 과연 흔적도 없이 사라진 문명들, 비범한 능력으로 우리 이전에 존재했던 실체들이 정말로 존재하는 것일까? 우리가 흔히 '신화'나 '전설'이라 부르는 것들은 단지 옛사람들의 풍부한 상상력의 산물일까, 아니면 그것들이야말로 시간에 의해 희미해진, 더 위대한 진실의 남은 조각들, 모호한 기억들일까? 그리고 아마도, 우리 각자에게 던져진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일 것이다. 이 광대하고 미지수로 가득 찬 그림 속에서, 나 자신이 선택할 길은 어디이며, 우리는 어떤 흔적을 남길 것인가?



모한 선생님의 고요한 작은 집을 나서, 카트만두의 일상으로 돌아오며, 나는 문득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달은 여전히 그곳에, 휘영청 밝고, 말없이, 신비롭게 떠 있었다. 마치 수많은 흥망성쇠 역사의 증인이자, 우리 이전에 있었던 것들에 대해, 그것을 창조한 손길에 대해, 그리고 아마도, 여전히 지켜보고 있는 저 높은 곳의 눈들에 대해 말없이 상기시켜주는 듯했다. 그리고 한순간, 나는 궁금해졌다. 이 땅 위의 작은 생명들—자신의 미래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한 시대 전체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대한 선택의 문턱 앞에 서 있는 인간들을 향해, 어떤 너그러운 미소가 향하고 있지는 않을까?

잭 보스 기자 (Jack Voss)

THE LIVES MEDIA

\* \* \*

## 부록

---

과학적 관점에서 본 지구  
와 우주의 미스터리 – 아직  
풀리지 않은 질문들

이 부록은 모한 선생님이 공유한 내용들을 증명하거나 반박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독자들이 우리 세계의 미스터리에 대해 더 넓은 시각을 갖고 스스로 성찰해 볼 수 있도록, 여러 분야의 과학적 사실, 이야기, 그리고 사색을 추가적으로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 \*

# 파트 A: 달에 대한 몇 가지 과학적 데이터

---

지구의 익숙한 동반자인 달은, 현대 과학이 끊임없이 탐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수한 미스터리를 품고 있습니다. 아래는 많은 질문과 사색을 불러일으키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과학적 사실들입니다.

- **순수한 자연위성이 되기에는 "너무 큰" 크기:**

- 달의 지름(3,467km)은 지구의 지름(12,756km)의 약 27%에 해당합니다.
- 태양계의 다른 행성들과 비교: 화성의 가장 큰 위성인 포보스(Phobos)의 지름은 단 23km(화성의 0.34%)입니다. 목성의 가장 큰 위성인 가니메데(Ganymede)의 지름은 5,000km(목성의 3.5%)입니다. 토성의 가장 큰 위성인 타이탄(Titan)의 지름은 4,500km(토성의 3.75%)입니다.
- 태양계의 어떤 자연위성도 모행성 대비 크기 비율이 5%를 넘지 않습니다 (명왕성에 대한 카론은 예외이지만, 둘은 이중 왜소 행성계로 간주됩니다). 지구에 대한 달의 27% 비율은 지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 **생각해 볼 질문:** 왜 달은 모행성에 비해 이토록 비범하게 큰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태양계의 다른 어떤 자연위성과도 다른 특징일까요?

- 비정상적으로 "너무 얇은" 운석 충돌구:

- 과학적 계산에 따르면, 거대한 운석이 고속으로 충돌하면 자신의 지름보다 4~5 배 깊은 구덩이를 만듭니다. 이는 지구의 운석 충돌구들로 검증되었습니다.
- 하지만 달의 운석 충돌구들은 이상할 정도로 얇습니다. 예를 들어, 지름 186 마일(약 299km)인 가가린 충돌구(Gagarin Crater)는 마땅히 깊이가 최소 700 마일(약 1126km)이어야 하지만, 실제 깊이는 약 4 마일(약 6.4km)에 불과합니다. 이는 지름의 약 2%에 해당하는 깊이입니다 (계산상 4 마일 깊이를 지름과 비교하면 12%가 되거나, 지름의 4~5 배 비율로 계산하면 훨씬 더 깊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 많은 과학자들은 이것이 현재의 이론으로는 설명될 수 없으며, 달 표면 아래에 운석의 더 깊은 관통을 막는 지극히 단단하고 두꺼운 껍질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 **생각해 볼 질문:** 왜 달의 운석 충돌구들은 그토록 얇을까요? 표면의 먼지층 바로 아래에 인공적인 "갑옷"이나 초강력 구조물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 **"종처럼 울리는 진동"과 내부가 비어 있을 가능성:**

- 아폴로 임무 중, 우주선의 모듈이나 운석이 표면에 충돌했을 때, 달은 비정상적으로 길게(때로는 1 시간에서 4 시간까지) 진동했으며, 이는 "큰 종처럼 울렸다"고 묘사되었습니다.
- NASA 과학자들은 이것이 달이 속이 비어 있거나, 적어도 균일한 고체 암석 덩어리가 아닌 매우 다른 핵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만약 고체 덩어리였다면 진동은 훨씬 빨리 멈췄을 것입니다.
- **생각해 볼 질문:** 이 비어 있거나 특별한 구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이 자연적인 형성 과정의 결과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것일까요?

- **개기일식을 만들어내는 "완벽한" 크기와 거리의 비율:**

- 달은 태양보다 지름이 약 395 배 작고, 동시에 지구에는 태양보다 약 395 배 더 가깝습니다.
- 이 놀라운 "우연의 일치"는 지구에서 볼 때 둘의 겹보기 크기를 거의 같게 만들어, 개기일식 현상이 정확하게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만듭니다.
- **생각해 볼 질문:** 이처럼 완벽한 비율의 "우연"이 우주에서 일어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이 경이로운 현상 뒤에 어떤 안배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 **"비정상적인" 궤도와 그 안정성:**

- 태양계의 모든 자연위성(지구와 다른 행성 포함)은 모행성의 적도면을 중심으로 공전합니다. 하지만 달은 지구의 황도면(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궤도면)을 따라 공전하는데, 이는 매우 다른 점입니다.



- 달의 지구 주위 궤도 또한 거의 완벽한 원에 가까운 궤도 중 하나이며, 이는 지구상의 많은 요소들의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 **생각해 볼 질문:** 왜 달의 궤도는 이처럼 "비정상적인" 특징을 가지면서도 지구 생명에 지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 **영원한 "어두운 면"과 아직 탐사되지 않은 미스터리:**

- 조력 고정 현상 때문에, 달은 항상 한쪽 면만을 지구로 향합니다. 그것의 "먼 쪽 면"(far side)은 우주선이 탐사하기 전까지 항상 미스터리였습니다.
- 먼 쪽 면의 표면은 가까운 쪽 면에 비해 지형이 훨씬 더 울퉁불퉁하고 "바다"(maria)가 적습니다.
- **생각해 볼 질문:** 달의 양면 사이의 뚜렷한 차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두운 면"이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 "기이한" 암석 성분과 순수 금속의 존재:

- 달에서 채취한 암석 샘플에는 티타늄, 크롬, 이트륨과 같은 희귀 원소가 지구에서는 찾기 힘든 비정상적으로 높은 함량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금속들은 매우 단단하고, 내열성이 있으며, 부식에 강해, 종종 항공 우주 산업에 사용됩니다.
- 더욱 놀라운 것은, 과학자들이 암석 샘플에서 산화되지 않은(녹슬지 않은) 순수 철과 구리 입자를 발견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자연 상태에서는 거의 일어날 수 없으며 복잡한 제련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 달의 일부 암석 나이는 지구보다 더 오래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 지구는 약 45 억~46 억 년으로 추정되는 반면, 53 억 년 된 암석도 있습니다).
- **생각해 볼 질문:** 이 순수 금속들과 높은 함량의 희귀 원소들의 기원은 무엇일까요? 그것들이 어떤 문명의 인공적인 제련 과정의 산물은 아닐까요? 왜 달에는 모행성보다 더 오래된 암석들이 있는 것일까요?

- **약한 자기장과 고대 자기장의 "유령":**

- 현재 달은 자기장이 매우 약합니다. 하지만 달 암석 샘플들은 그것들이 과거에 훨씬 더 강한 자기장 속에서 자화(磁化)되었음을 보여줍니다.
- 이는 달이 과거에 자기장을 생성하는 강력한 활동을 하는 용융된 철 핵을 가졌었거나, 혹은 강한 자기장이 있는 환경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 **생각해 볼 질문:** 달의 고대 자기장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것의 약화가 과거의 어떤 변고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 **"매스콘(Mascons)" – 신비로운 고밀도 지역:**

- 달의 거대한 "바다"(어둡고 평탄한 지역) 아래에는, "매스콘"(질량 집중 지역)이라 불리는 물질 밀도가 매우 높은 지역들이 존재합니다.

- 그것들의 존재는 중력장에 이상 현상을 일으키며, 그 정확한 기원은 여전히 수수께끼입니다. 묻혀버린 거대한 운석이라는 가설도 있지만, 다른 의견들도 있습니다.
- **생각해 볼 질문:** 이 "매스콘"들은 실제로 무엇일까요? 그것들이 묻혀버린 고대의 인공 구조물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위의 과학적 사실들은, 비록 일부에 불과하지만, 달이 단순히 생명 없는 돌덩이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기이한 특징들, 설명하기 어려운 "비정상적인" 점들을 담고 있어, 우리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과연 달에 대한 우리의 현재 이해가 정말로 충분한가? 그리고 과학이 측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다른 진실들이 있는 것은 아닐까?

# 파트 B: 지구와 인류 역사의 다른 미스터리들

---

## 1) 생명의 기원과 "캄브리아기 대폭발":

지구 생명의 기원에 대한 질문은 현대 과학에 있어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이자 가장 심오한 도전 과제입니다.

많은 연구 노력과 무수한 가설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이고 통일적이며 널리 받아들여지는 설명은 여전히 요원합니다.

➤ **생명의 기원에 대한 주요 가설들:**

- ☆ **자연 발생설 (Abiogenesis):** 이 가설은 생명이 원시 지구의 조건에서 일어난 일련의 자연적인 화학 과정을 통해 무기물로부터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1952 년의 유명한 밀러-유리 실험은 원시 지구를 모방한 조건에서 단순한 무기 화합물로부터 아미노산(단백질의 기본 구성 요소)이 생성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단일 아미노산에서부터 자가 복제와 신진대사 능력을 갖춘 살아있는 세포에 이르기까지는, 과학이 아직 재현하거나 완전히 설명하지 못한 무수한 복잡한 중간 단계를 거쳐야 하는 거대한 도약입니다. "RNA 세계"(RNA world – DNA 가 아닌 RNA 가 생명 초기 단계의 주요 유전 물질이자 촉매였다고 보는 가설)나 심해 열수 분출공 (deep-sea hydrothermal

vents) 근처에서의 생명 형성 같은 가설들도 제시되었지만, 각 가설마다 장점과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 ☆ **판스페르미아설 (Panspermia, 생명 종자 우주 기원설):** 이 가설은 생명의 씨앗(미생물 또는 복잡한 유기 분자)이 운석, 혜성 또는 우주 먼지를 통해 우주 공간에서 지구로 왔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일부 운석에서 아미노산과 다른 유기 화합물이 존재했다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판스페르미아설은 지구가 식은 후 비교적 이른 시기에 생명이 출현한 것을 설명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생명의 기원 문제를 우주의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뿐, 그곳에서 최초의 생명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 **"캄브리아기 대폭발" – 생물 다양성의 신비로운 폭발:**

최초의 단순한 생명이 나타난 후, 지구 생명의 역사는 약 5 억 4,100 만 년 전에 일어나 캄브리아기의 시작을 알린, "캄브리아기 대폭발"이라 불리는 또 다른 놀라운 사건을 목격합니다.

- ✧ **특징:** 이 시기는 오늘날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주요 동물 문(門, phyla)들(예: 절지동물, 연체동물, 원시 척삭동물 등)이 화석 기록에 갑자기 그리고 일제히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단계입니다. 신체 구조(body plans)의 다양성이 불과 수천만 년에 걸칠 수 있는 비교적 짧은 지질학적 "순간"에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 ✧ **전통적 진화론에 대한 도전:** 놀라운 점은 그 이전의 선캄브리아 시대(Precambrian)의 화석 기록에는 캄브리아기의 다양성으로 이어지는 중간 단계의 생명 형태, 즉 "잃어버린 고리"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완전히 새롭고 복잡한 신체 구조 설계도가 마치 "무(無)에서" 나타난 것처럼 보이는 현상은, 시간에 따른 작은 돌연변이의 축적에 기반한 점진적 진화론(gradualism)의 관점에 큰 도전 과제를 제기합니다.
- ✧ **설명 가설들:** 캄브리아기 대폭발을 설명하기 위해 대기와 해양의 산소 농도 증가, 발생 조절 유전자(예: 신체 구조 형성을 담당하는 홈스 유전자)의 진화, 전 지구적 빙하기("눈덩이 지구" – Snowball



Earth)의 종식, 해양 화학의 변화, 혹은 새로운 생태적 관계(예: 포식자)의 출현 등 많은 요인들이 제안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일 가설 하나만으로는, 심지어 그것들을 조합하더라도, 캄브리아기 대폭발에서 나타난 신체 구조 설계도의 갑작스러움, 폭발적인 다양성, 그리고 전례 없는 새로움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요컨대, 생명의 기원과 캄브리아기 대폭발 사건 모두 현대 과학의 지구 생명 역사책에서 여전히 비어 있고 도전으로 가득 찬 장들입니다. 그것들은 생명의 본질과 그 발전을 지배하는 법칙들에 대한 깊은 질문들을 불러일으킵니다.

- **생각해 볼 질문:** 과연 생명은 순전히 물리적, 화학적 조건들로부터 지구상에서 완전히 우연히 "싹튼" 것일까요, 아니면 의도적인 "씨앗 뿌리기"나 외부로부터의 개입이 있었을까요? 수많은 복잡한 생명 형태가 갑작스럽게 출현한 "캄브리아기 대폭발"은, 특별한 "창조 사건"의 증거일까요, 아니면 모한 선생님이 암시했던

것처럼 이 행성의 "생명 프로그램"에 있어 방향성을 가진 거대한 변화였을까요? 과연 현재 과학이 아직 도달하지 못한, 생명의 출현과 발전을 조종하는 어떤 법칙이나 힘이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요?

## **2) "비정상적인" 고대 문명과 "시대에 맞지 않는 유물"(Out-of-Place Artifacts - OOPArts):**

우리가 교과서를 통해 흔히 알고 있는, 원시 사회에서 현대 문명으로 이어지는 직선적인 발전 과정처럼 보이는 인류 역사의 그림 곁에는, 우리의 통상적인 이해에 도전하는 무수한 고대의 흔적, 건축물, 그리고 유물들이 존재합니다. 그것들은 과거가 주류 역사학계가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찬란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 위대한 고대 건축물 – 기술과 지식의 경이:**

전 세계에 걸쳐, 메마른 사막에서부터 깎아지른 산봉우리에 이르기까지, 고대 건축물들은 지나간 시대의

말없는 증인처럼 우뚝 서서, 과학자들과 역사학자들에게 어려운 질문들을 던집니다.

☆ **기자 대피라미드 (이집트):** 수백만 개의 수 톤짜리 돌덩이를 놀라울 정도로 정밀하게 조립한 거대한 규모뿐만 아니라, 대피라미드는 수학(예: 밑면 둘레와 높이의 비율이  $2\pi$  에 거의 근사), 천문학(지리적 방향 및 특정 별자리들과의 거의 완벽한 정렬),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그 실행 방식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는 건축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여줍니다.

☆ **푸마 푼쿠 (볼리비아):** 티와나쿠 근처에 위치한 푸마 푼쿠는 거대한 안산암과 사암 블록으로 유명하며, 이것들은 마치 현대 기계로 가공한 듯한 정밀도로 절단되어, 직선의 흠, 완벽한 직각, 그리고 복잡한 드릴 구멍을 형성합니다. 수십, 심지어 수백 톤에 달하는 이 돌덩이들을 어떻게 운반하고 가공했는지는 여전히 큰 미스터리입니다.

☆ **스톤헨지 (영국):** 이 거석 원형 구조물은 인상적인 건축물일 뿐만 아니라 고대의 천문 관측소로서, 태양, 달, 그리고 천문 주기의 움직임에 대한 정교한 이해를 보여줍니다.

☆ **괴 베 클 리 테 페 ( 튀 르 키 예 )**: 연 대 가 약 11,000~12,000 년 전으로 추정되는(즉,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농업과 토기가 나타나기 전) 괴베클리 테페는, 동물 형상이 정교하게 조각된 거대한 T 자형 돌기둥들의 군집입니다. 수렵-채집 유목민의 시대로 여겨졌던 시기에 이처럼 복잡하고 조직적인 구조물이 존재했다는 사실은 문명의 시작에 대한 많은 관념을 뒤집었습니다.

이 건축물들과, 다른 많은 건축물들(예: 이스터섬의 모아이 석상, 페루의 나스카 라인, 고대 도시 삭사이와만 등)은 종종, 주류 연대 추정에 따라 그것들을 건설한 문명들의 것이라고 보기에는, 훨씬 뛰어넘는 수준의 기술, 노동 조직 능력, 그리고 자연 과학에 대한 이해를 보여줍니다.

➤ **"시대에 맞지 않는 유물"(Out-of-Place Artifacts - OOPArts) – 시간에 도전하는 조각들:**

OOPArts 는 고고학적 지층이나 역사적 맥락에서 발견된 물건들 중, 그 존재가 당시 시대에 알려진 기술

수준과 부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 ✧ **바그다드 배터리 (이라크):** 약 2000 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구리 원통과 쇠막대를 담은 점토 항아리입니다. 옛사람들이 전기를 사용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일종의 원시적인 전지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 ✧ **안티키테라 기계 장치 (그리스):** 고대 난파선에서 인양된 이 복잡한 장치는 수십 개의 청동 톱니바퀴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원전 2 세기경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태양, 달, 그리고 행성들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었던 일종의 고대 "천문 컴퓨터"로 여겨지며, 당시로서는 놀라운 기술적 성취입니다.
- ✧ **피리 레이스 제독의 지도 (튀르키예):** 1513 년 오스만 제국의 피리 레이스 제독이 그린 세계 지도의 일부인 이 지도는, 남미 해안선과 심지어 얼음으로 덮이지 않은 남극 대륙의 일부를 상당히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어 놀라움을 자아냅니다. 이는 당시의 탐험이나 지리적 지식 수준을 뛰어넘지 않고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입니다.

- ☆ **클렉스도르프 구체 (남아프리카):** 수십억 년 된 퇴적암층에서 발견된 작은 금속 구체들로, 일부는 둘레에 평행한 홈들이 파여 있어, 그 인공적 기원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OOPArts 들은, 일부는 자연적이거나 통상적인 설명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여전히 어려운 수수께끼로 남아, 잊혀진 기술적 가능성이나 지식을 시사합니다.

이 위대한 건축물들과 "시대에 맞지 않는 유물"들은, 전체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인류의 과거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 즉 정점에 도달했다가 쇠퇴하여 오늘날 우리가 발견하도록 모호한 흔적들을 남긴 문명 주기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합니다.

- **생각해 볼 질문:** 과연 지구 문명의 역사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직선적 진화의 길을 걸었을까요? 아니면 주류 교과서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더 진보된, 오늘날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거나 재현하지 못하는 지식과 기술을 가진 문명들이 존재했을까요? 이 건축물들과 유물들은 단지 예외적인 사례일

까요, 아니면 그것들이야말로 모한 선생님이 그의 이야기에서 암시했던 것처럼, 시간과 문명의 "리셋"에 의해 희미해진 "찬란하고 비극적인 장들"의 남은 조각들일까요?

### 3) 고대 예언들과 기이한 일치:

전 세계 고대 문화의 가장 매혹적이면서도 신비로운 측면 중 하나는 바로 무수한 예언들의 존재입니다. 종종 신성한 문서, 석판, 혹은 세대를 거친 구전을 통해 전해진 이 메시지들은, 세계의 주기, 대변동의 시기에 대한 깊은 이해를 담고 있는 듯하며, 주목할 점은, 종종 한 시대의 종말과 새로운 시대의 시작과 관련된 미래의 중대 사건, 즉 신들, 구세주, 혹은 깨달은 자들의 재림을 동반하는 사건을 예고한다는 것입니다.

#### ➤ 세계 주기와 새 시대에 대한 예언의 전 지구적 보편성:

놀라운 점은 이러한 예언 모티프들이 몇몇 단일 문화에만 국한되지 않고, 지리적으로 수천 킬로미터, 시간

적으로 수천 년이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대륙과 다양한 영적 전통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 **마야인 (중앙아메리카):** 약 5,125 년의 큰 주기를 가진 마야의 유명한 장기력 (Long Count Calendar)은 2012 년 12 월 21 일에 끝났으며, 많은 이들은 이를 문자 그대로의 종말이 아니라, 한 세계의 종말과 새로운 세계의 시작이라는 거대한 전환의 징표로 해석합니다. 그들의 문서 또한 이전 세계들의 창조와 파괴 주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 **호피족 (북아메리카):** 호피족의 전설은 인간의 도덕적 타락으로 인해 존재했다가 파괴된 여러 "세계들"(Worlds)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제 4 의 세계"에 살고 있으며, 더 평화로운 "제 5 의 세계"로 들어가기 전 "정화의 날"(Day of Purification)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또한 "파하나"(Pahana, 길 잃은 백인 형제) 또는 구원자의 재림에 대한 예언도 가지고 있습니다.



- ✧ **고대 이집트:** 이집트 문서들은, 비록 마야처럼 명확한 예언 체계는 없지만, 우주 주기("제프 테피" - Zep Tepi, 최초의 시간)와 재생에 대한 개념들을 담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소티스 주기(시리우스 별과 관련)가 거대한 역사 단계에 대한 이해를 담고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 ✧ **성경 (유대교와 기독교):** 신약의 요한계시록(Book of Revelation)은 마지막 시대, 선과 악의 전쟁, 최후의 심판,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세우기 위한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적으로 묘사합니다. 구약 또한 메시아에 대한 많은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 ✧ **힌두교:** 힌두교의 "유가"(Yuga, 시대) 개념은 사트야 유가(황금시대), 트레타 유가, 드바파라 유가, 그리고 칼리 유가(철의 시대, 현재의 도덕적 타락과 갈등의 시대)라는 네 시대를 포함하는 거대한 우주 주기(마하 유가)를 묘사합니다. 칼리 유가가 끝난 후, 보통 비슈누의 마지막 화신인 칼키의 출현으로 예고되는, 사트야 유가의 재건과 함께 새로운 주기가 시작됩니다.

✧ **불교:** 일부 불교 경전 또한 "말법(末法)" 시대(불법이 쇠퇴하는 시기)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 후 미래불 미륵(彌勒, Maitreya Buddha)이 나타나 정법(正法)을 다시 일으키고 중생을 해탈로 이끌 것이라고 말합니다.

✧ **기타 동양의 참언(讖言):** 중국(예: "추배도(推背圖)"의 예언), 베트남(예: "짱찐의 예언")과 같은 다른 많은 아시아 국가들도 역사적 변고, 왕조 교체, 그리고 미래의 특별한 시기를 예고하는 유명한 예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 **북유럽 신화 (스칸디나비아):** 라그나로크(Ragnarök)는 신들의 마지막 전투를 묘사하며, 이는 현재 세계의 파괴와 더 나은 새로운 세계의 재생으로 이어집니다.

➤ **놀라운 유사점들:**

비록 각기 다른 언어, 상징, 그리고 문화적 배경으로 표현되었지만, 이 예언들은 종종 주목할 만한 공통점을 공유합니다.

- ✧ **주기에 대한 관념:** 역사는 직선이 아니라 흥망성쇠 주기의 연속입니다.
- ✧ **종말로 이어지는 도덕적 타락:** 한 주기의 끝은 종종 인간의 도덕적 부패, 신성한 원칙으로부터의 이탈과 연결됩니다.
- ✧ **대변동, 정화의 시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기 전, 보통 혼란, 천재지변, 전쟁, 또는 거대한 시련의 시기가 있습니다.
- ✧ **신/구세주/깨달은 자의 재림:** 신성한 인물이나 신성한 힘이 나타나 선한 사람들을 구원하고, 악한 자를 벌하며, 인류를 더 나은 새 시대로 이끌 것입니다.
- ✧ **인간의 선택:** 많은 예언들이 이 전환기에서 개인의 선택(선과 악, 믿음과 회의 사이의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전 세계에 걸쳐 놀라운 유사점을 가진 이 예언들의 존재는, 옛사람들의 인식 능력과 시간 및 역사의 본질에 대한 깊은 질문들을 제기합니다.

- **생각해 볼 질문:** 과연 이 예언들은 단지 인간 상상력의 우연한 일치일까요, 아니면 그것들이 고대 문명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파악했던 우주 운행 법칙과 역사 주기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반영하는 것일까요? 그것들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개인이나 집단, 즉 "예언가"나 특별한 능력을 개방한 수련인들로부터 전해진 메시지일까요? 혹은 그것들이 이전 문명 주기에서 남겨진 기억, 즉 오늘날 많은 사람이 역사적 전환점 앞에 서 있다고 믿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점차 깨닫고 있는 더 큰 계획의 일부로서, 후손들을 위해 남겨진 경고와 희망일까요?

#### 4) "전생을 기억하는" 현상과 사후 의식에 대한 연구:

인류 미스터리의 광대한 그림 속에서, 육체가 죽은 후 의식이 존재하는지와 환생 또는 윤회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은 항상 가장 깊은 관심과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주제 중 하나였습니다. 현대 주류 과학은 종종 의식을 뇌 활동의

산물로 보고 뇌가 멈추면 의식도 끝난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다른 가능성을 시사하는 주목할 만한 현상과 연구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 **어린이의 전생 기억 현상 – 시간을 초월한 기억들:**

윤희에 대한 믿음이 깊이 뿌리내린 동양 문화권에서부터 현대 서구 사회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보통 2 세에서 7 세 사이의 어린이들이 자신의 "이전 생"에 대해 자연스럽게 상세하게 이야기하는 수천 건의 사례가 기록되었습니다.

■ **사례들의 공통된 특징:**

- ☆ **구체적인 세부 사항:** 이 아이들은 종종 "이전 생"에서의 이름, 장소, 가족 구성원, 직업, 중요한 사건들, 심지어는 어떻게 죽었는지까지 매우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 ☆ **강렬한 감정:** 아이들은 종종 전생의 기억 속에 있는 사람들과 장소에 대해 강렬한 감정(그리움, 두려움, 또는 사랑 등)을 표현합니다.

☆ **비정상적인 행동:** 일부 아이들은 현재의 나이 나 교육 환경에 맞지 않지만, 자신들이 이야기 하는 삶과 일치하는 행동, 취향, 또는 기술을 보일 수 있습니다 (예: 운전을 배운 적 없는 아이가 오래된 차종의 운전법을 상세히 묘사하거나, 현생에서 물에 빠진 사고를 겪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생에 물에 빠져 죽었다고 기억하며 물을 두려워하는 아이).

☆ **상응하는 모반 또는 선천적 기형:** 일부 주목할 만한 경우, 아이들의 몸에 있는 모반이나 선천적 기형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고인(故人)의 상처나 신체적 특징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 **과학적 연구:** 고(故) 정신과 의사인 이언 스티븐슨 (Ian Stevenson) 박사와, 이후 버지니아 대학교 (미국)의 그의 동료들은 전 세계 수천 건의 전생을 기억하는 어린이 사례를 수십 년에 걸쳐 체계적으로 연구했습니다. 여러 권의 책과 과학 논문에 기록된 그들의 연구는, 상상, 거짓말, 혹은 아이가 우연히 정보를 접했을 가능성과 같은 통상적인 설명

들을 배제하려 노력했습니다. 그중 많은 사례는 조사를 통해, 아이의 현재 가족이 이전에 전혀 알지 못했던 특정 고인의 삶과 세부 사항들이 일치함이 확인되었습니다.

➤ **임사 체험 (Near-Death Experiences - NDEs) – "저편"을 엿보는 경험:**

NDEs 는 죽음에 매우 가까웠거나 임상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지만 나중에 소생한 사람들이 보고한 경험들입니다. 개인적인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많은 NDE 는 경험자의 문화적, 종교적 배경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놀라운 공통된 요소들을 공유합니다.

☆ **유체 이탈 체험 (Out-of-Body Experience - OBE):** 많은 사람이 자신의 의식이 육체를 떠나, 위에서 떠다니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관찰하는(예: 의사들이 자신을 구하려 애쓰는 것을 보거나, 대화를 듣는 것) 느낌을 이야기합니다. 주목할 점은,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의식이 신체에 국한되어 있었다면 도저히 알 수 없었을 정확한 세부 사항들을 묘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 **빛을 향해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경험:** 흔한 경험 중 하나는 어두운 공간을 빠르게 통과하는 느낌으로, 이는 종종 터널로 묘사되며, 끝에 있는 눈부시고 따뜻하며 사랑으로 가득 찬 광원을 향해 나아갑니다.
- ✧ **"빛의 존재" 또는 고인이 된 친지와의 만남:** 많은 사람이 빛나는 존재들을 만났다고 보고하는데, 이들은 종종 안내자, 천사, 또는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들로 느껴지며, 이 만남에서 평화와 무조건적인 사랑을 느낍니다.
- ✧ **생애 회고 (Life Review):**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삶 전체 또는 중요한 순간들을, 종종 빨리 감기 필름처럼 다시 보는 경험을 하며,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 ✧ **평화롭고 행복하며 돌아가고 싶지 않은 느낌:** 긍정적인 NDE 를 경험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깊은 평화, 평온, 그리고 행복감을 묘사하며, 이 때문에 종종 자신의 육체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 ✧ **경험 후의 깊은 변화:** NDE 를 경험한 사람들은 종종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감소, 연민 증가, 그리고



삶의 의미에 대한 더 깊은 감각과 같은, 생활 태도, 가치관, 그리고 영적 믿음에 있어 장기적인 변화를 보고합니다.

레이먼드 무디(Raymond Moody) 박사, 케네스 링(Kenneth Ring) 박사, 또는 펴 반 롬멜(Pim van Lommel) 박사와 같은 이들의 NDE 에 대한 과학적 연구들은 이러한 현상들을 이해하려 노력해왔습니다. 비록 뇌의 생리학(산소 부족, 엔도르핀 방출 등)에 기반한 일부 설명들이 제시되었지만, 그것들은 종종 NDE 의 모든 측면, 특히 뇌가 작동하지 않거나 매우 약하게 작동한다고 여겨지는 동안에 명확하게 인지하고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전생 기억 현상과 임사 체험 모두는 의식이 육체에 완전히 의존하지 않을 수 있으며, 죽음 이후에도 계속 존재할 수 있고, 또한 이전 생의 기억과 경험을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생각해 볼 질문:** 과연 의식은 육체가 죽을 때 정말로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전 세계의 많은 고대 영적 전

통에서 언급되었던 윤회나 환생과 같은 개념처럼, 이 물질적 삶을 넘어선 어떤 존재가 있는 것일까요? 만약 기억이 여러 생에 걸쳐 존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자아"의 진정한 본질과 존재의 목적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어쩌면 이러한 경험들은 인간이 단순히 생물학적 실체일 뿐만 아니라, 모한 선생님이 그의 나눔에서 암시했던 것처럼, 여러 생애에 걸쳐 배우고 진화하는 여정 위에 있는 하나의 영혼이라는 증거는 아닐까요?

## **5) 지질학적 기록과 신화 속 전 지구적 대재앙의 흔적:**

모한 선생님이 언급한 "대정화"나 문명의 "리셋"에 대한 관념은 단지 순수한 영적 아이디어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구의 지질학적 기록과 인류의 풍부한 신화의 보고를 들여다볼 때, 먼 과거에 일어나 행성의 표면을 재편하고 존재했던 문명들을 말소했을 수 있는, 전 지구적이고 참혹한 변고들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징후들이 있는 듯합니다.

➤ **지질학적 기록으로부터의 증거:**

지질학자들은 지구가 대량 멸종이나 대규모의 급작스러운 환경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사건들과 함께 격렬한 변동의 시기를 겪었음을 보여주는 많은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 **대량 멸종 사건들:** 지구 생명의 역사는 최소 다섯 번의 주요 대량 멸종 사건(The "Big Five" mass extinctions)으로 점철되어 있으며, 이때 상당한 비율의 생물 종들이 비교적 짧은 지질학적 시간 내에 사라졌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약 6,600만 년 전의 K-Pg 멸종 사건(백악기-팔레오기)으로, 이는 공룡(조류의 조상 제외)과 다른 많은 생명 형태를 쓸어버린 것으로 여겨지며, 종종 거대한 운석 충돌(칙술루브 충돌체)과 관련됩니다. 페름기-트라이아스기 멸종 사건(약 2억 5,200만 년 전, "대멸종" – The Great Dying 이라고도 불림)과 같은 다른 멸종 사건들은 훨씬 더 참혹하여, 해양 생물 종의 96%, 육상 척추동물 종의 70%까지 쓸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의 원인은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며, 운석 충돌, 대규모 화산 분출

(large igneous provinces), 극심한 기후 변화, 또는 해수면 변화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초대형 홍수(Megafloods)의 흔적:** 세계 여러 곳에서, 지질학자들은 현대 역사에 기록된 어떤 홍수도 훨씬 뛰어넘는, 상상할 수 없는 규모와 힘을 가진 홍수의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예:

- ☆ **채널드 스캐브랜즈 (미국 북서부):** 이 지역은 마지막 빙하기 말에 거대한 빙하 호수(미줄라 호수 등)가 갑자기 터지면서 단시간에 엄청난 양의 물이 방출되어 형성된 것으로 여겨지는 거대한 협곡, 마른 폭포, 그리고 거대한 모래톱(giant current ripples)을 가지고 있습니다.

- ☆ **영국 해협:** 이 해협은 약 45 만 년 전과 16 만 년 전에 북해의 자연적인 빙하 댐이 무너지면서 발생한 두 차례의 초대형 홍수로 형성되었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 ☆ **흑해:** 연구에 따르면 약 7,500 년 전에 지중해의 물이 보스포루스 해협을 통해 밀려 들어오면서 흑해의 수위가 매우 빠르게 상승했으며,

이는 일부 대홍수 전설의 영감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 **급작스러운 기후 변화:** 빙하 코어(ice cores), 심해 퇴적물 및 기타 고기후 데이터들은 지구가 과거에 매우 빠르고 극단적인 기후 변화의 시기를 겪었음을 보여주며, 온도는 불과 수십 년 또는 수세기 만에 섭씨 몇 도가 오르거나 내릴 수 있었습니다. 영거 드라이아스기 사건(약 12,900 년에서 11,700 년 전)은 급작스러운 한랭화와 그 후의 빠른 온난화 시기의 한 예로, 거대한 빙상의 해빙이나 혜성/운석 충돌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전 지구적 대홍수 전설들의 유사성:**

잭 보스와 모한 선생님의 대화에서 언급되었듯이, 전 세계 문화 신화에서 가장 놀라운 유사점 중 하나는, 거의 모든 생명을 파괴한 전 지구적 대홍수 이야기입니다. 이때 소수의 사람(과 동물)만이 신이나 신성한 존재의 지시 아래 배나 어떤 구조 수단을 통해 살아남았습니다.

- ✧ **전 지구적 범위:** 이 이야기들은 중동 지역(성경의 노아 이야기나 수메르의 길가메시 서사시 속 우트나피쉬팀 등)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리스(데우칼리온과 피라), 인도(마누와 물고기 마츠야), 중국(대우치수, 비록 완전한 파괴보다는 홍수 통제 성격이 강하지만),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예: 호피, 아즈텍, 잉카), 호주, 그리고 다른 많은 곳에서도 발견됩니다.
- ✧ **원인:** 홍수의 원인은 종종 인간의 도덕적 타락에 대한 신의 징벌로 여겨집니다.
- ✧ **생존과 재건:** 항상 자신의 의로움 때문에 선택받아, 재앙을 예고받고 생존 방법을 안내받은 한 사람(또는 몇몇)이 있으며, 그 후 그들은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됩니다.

문화적 배경에 따라 세부 사항은 다르지만, 대홍수 전설들의 보편성과 핵심적인 유사점들은 많은 연구자로 하여금 그것들이 실제로 일어났던 한 사건에 대한 인류의 집단 기억이 아닌지 의문을 갖게 했습니다.

지질학적 흔적들과 신화 속의 메아리들은, 대재앙이 주기적으로 지구 표면을 "정화"하여 새로운 시작을 위한 조건을 마련했을 수 있는, 격동으로 가득 찬 과거를 함께 가리키는 듯합니다.

- **생각해 볼 질문:** 과연 모한 선생님이 말한 문명의 "리셋"이, 과학이 멸종 사건, 급작스러운 기후 변화, 혹은 이러한 초대형 홍수들을 통해 점차 발견하고 있는 물리적 흔적을 남긴 것은 아닐까요? 대홍수 전설들은 단지 상상력의 산물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형된 역사적 기억으로서, 지구의 거대한 "정화"들을 기록한 것은 아닐까요? 만약 그러한 재앙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그것들은 어떤 주기를 따르는 것이며, 우리는 미래를 마주하기 위해 과거의 교훈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 파트 C: 우주의 미스터리들

---

### 1)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

현대 천체물리학과 우주론의 가장 놀랍고도 도전적인 발견 중 하나는,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가 모든 별, 은하, 행성, 그리고 인간을 포함하더라도, 우주 전체 질량-에너지의 아주 작은 부분만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과학자들이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라고 이름 붙인, 완전히 보이지 않고 신비로운 것들로 구성된 것처럼 보입니다.

## ➤ **암흑 물질 (Dark Matter):**

- **존재의 증거:** 암흑 물질의 존재는 1930 년대에 천문학자 프리츠 츠비키(Fritz Zwicky)가 코마 은하단을 관측하면서 처음으로 시사되었습니다. 그는 은하단 가장자리의 은하들이, 관측 가능한 물질(별, 가스)의 중력만으로는 붙잡아 둘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빠르게 움직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빛이나 어떠한 전자기 복사도 방출하지 않으면서, 필요한 추가 중력을 만들어내는 대량의 "숨겨진" 물질이 있어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이후, 다른 많은 증거들도 암흑 물질의 존재를 뒷받침했습니다.

- ☆ **나선 은하의 회전 곡선:** 나선 은하(우리 은하수 같은) 가장자리의 별들은, 관측 가능한 물질만 고려했을 때 뉴턴의 중력 법칙이 예측하는 것처럼 거리에 따라 속도가 줄어들지 않고,

거의 일정한 속도로 은하 중심을 돕니다. 이는 은하를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암흑 물질 헤일로 존재를 보여줍니다.

☆ **중력 렌즈 효과 (Gravitational lensing):** 먼 은하에서 온 빛이 거대한 은하단을 지날 때 휘어져, 왜곡되거나 복제된 이미지를 만듭니다. 이 휘어짐의 정도는 종종 은하단 내의 관측 가능한 물질의 양보다 커서, 대량의 암흑 물질이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Cosmic Microwave Background - CMB):** CMB의 미세한 온도 변화는 초기 우주의 물질 구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관측 데이터와 가장 잘 부합하는 모델들은 모두 암흑 물질의 존재를 요구합니다.

- **신비로운 본질:** 존재에 대한 많은 간접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암흑 물질의 실제 본질은 여전히 현대 물리학의 가장 큰 수수께끼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빛이나 다른 형태의 전자기 복사와 상호작용하지 않거나(혹은 매우 약하게 상호작용하여), "어둡게" 만들어 직접 관측할 수 없게 합니다. 그것

은 또한 일반적인 물질처럼 바리온(양성자, 중성자)으로 구성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WIMPs(약하게 상호작용하는 무거운 입자), 액시온, 또는 무거운 뉴트리노와 같은 여러 암흑 물질 입자 후보들을 제안했지만, 아직 직접적인 실험적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우주에서의 비율:** 현재 추정에 따르면, 암흑 물질은 우주 전체 질량-에너지의 약 \*\*27%\*\*를 차지하며, 이는 일반 물질(약 5%)의 5 배 이상입니다.

## ➤ **암흑 에너지 (Dark Energy):**

- **존재의 증거:** 1990 년대 말, 두 독립적인 천문학자 팀이 멀리 있는 Ia 형 초신성(Type Ia supernovae)을 관측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우주의 팽창이 중력 때문에 느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속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가속 팽창을 설명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암흑 에너지"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공간 전체에 균일하게 분포하며, 음압(陰壓)을 가지고 반 중력처럼 작용하여 우주를 점점 더 빠르게 팽창시키는 신비로운 형태의 에너지입니다.

- **더욱 신비로운 본질:** 만약 암흑 물질이 이미 미스터리라면, 암흑 에너지는 몇 배는 더 신비롭습니다. 그것의 본질이 무엇인지는 여전히 완전히 이해의 범위를 벗어나 있습니다. 일부 가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우주 상수 (Cosmological constant):**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 방정식에 도입했다가 다시 제거했던 우주 상수는, 진공의 내재적 에너지를 대표할 수 있습니다.
- ✧ **스칼라장 (Scalar fields) 또는 "퀀테센스 (Quintessence)":** 시간과 공간에 따라 변하는 동적인 에너지장의 한 형태입니다.
- ✧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새로운 중력 이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우주에서의 비율:** 암흑 에너지는 우주에서 지배적인 구성 요소로 여겨지며, 전체 질량-에너지의 약 **\*\*68%\*\***를 차지합니다.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의 존재는 우리가 우주에 대해 아는 것이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함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 구성 요소의 95%가 우리가 볼 수도, 만질 수도 없고, 그 본질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로 이루어진 우주에 살고 있습니다. 이는 우주의 구조, 진화, 그리고 최종 운명에 대한 지극히 깊은 질문들을 제기합니다.

- **생각해 볼 질문:**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는 실제로 무엇일까요? 그것들은 우리의 현재 감각과 과학 도구로는 감지하거나 측정할 수 없는 다른 공간 차원, 다른 층에 존재하는 물질과 에너지의 형태일까요? 어쩌면 그것들의 존재야말로 이 우주가 우리가 익숙한 3 차원 물리 모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층적이며, 우리가 이제 막 열기 시작한 우주의 법칙과 힘들이 있다는, 즉 모한 선생님이 다른 공간 차원과 다양한 생명 형태에 대해 공유한 것과 같은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는 아닐까요?

## 2) 지구 밖 생명체 존재 가능성과 페르미 역설:

우리가 우주에서 외로운 존재인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은 수천 년 동안 인류의 상상력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우주의 광대한 규모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지구 밖 다른 생명체와 문명의 존재 가능성은 점점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주로부터의 놀라운 침묵은 풀기 어려운 역설을 제기합니다.

### ➤ 광활한 우주와 생명의 확률:

- **우주의 규모:** 관측 가능한 우주에는 수천억, 심지어 수조 개의 은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은하수 같은 각 은하는 또다시 수천억 개의 별을 포함합니다. 최근 몇 년간, 수천 개의 외계 행성(exoplanets)이 발견되었고, 그중 다수가 표면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온도를 가진 "생명체 거주 가능 구역"(habitable zone)에 위치해

있어, 다른 많은 곳에서도 생명이 싹틔을 가능성을 더욱 높여줍니다.

- **드레이크 방정식:** 1961 년, 천문학자 프랭크 드레이크(Frank Drake)는 우리 은하 내에서 교신 가능한 문명의 수를 추정하기 위한 유명한 방정식을 만들었습니다. 이 방정식은 별 형성 속도, 행성을 가진 별의 비율, 항성계당 생명체 거주 가능 행성의 수, 행성에서 생명이 발생할 비율, 생명이 지적 문명으로 발전할 비율, 교신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는 문명의 비율, 그리고 그러한 문명의 평균 수명과 같은 요소들을 포함합니다. 드레이크 방정식의 많은 요소들이 여전히 추측에 불과하지만, 신중한 추정치를 사용하더라도, 결과는 종종 은하수 내에만 수천, 심지어 수백만 개의 문명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페르미 역설 – "그들은 다 어디에 있는가?":**

수많은 외계 문명의 존재에 대한 높은 확률에 직면하여, 물리학자 엔리코 페르미(Enrico Fermi)는 1950 년 한 비공식적인 대화에서, 오늘날 페르미 역설로 알

려진 간단하지만 심오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그토록 많은 외계 문명이 있고, 그중 일부는 우리보다 수백만, 심지어 수십억 년 더 오래 존재했을 수 있으며, 뛰어난 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다면, 왜 우리는 그들의 존재에 대한 어떠한 명확한 증거도 보지 못하는가? 우주선도, 무선 신호도, 대규모 기술 공학의 흔적도 없지 않은가?"

우주의 이 침묵, 외계 문명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의 부재는 확률 계산과 큰 모순을 이룹니다.

➤ **페르미 역설에 대한 가능한 설명들:**

페르미 역설을 설명하기 위해 수많은 가설이 제시되었으며, 이는 몇 가지 주요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그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는 매우 드물다):**

☆ **희귀한 지구 가설 (Rare Earth Hypothesis):**

복잡한 생명과 지적 문명의 형성은 지극히 희귀한 여러 천문학적, 지질학적 요인들의 조합을 요구하며, 이로 인해 지구가 우주에서 유일



하거나 극히 드문 경우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 ✧ **거대 필터 (Great Filter):** 이 가설은 생명이 단순한 형태에서 항성 간 여행이 가능한 문명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넘기 매우 어려운 어떤 장벽("필터")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필터는 우리 뒤에 있을 수도 있고(예: 생명의 형성이 극도로 어렵다), 혹은 더 우려스럽게도, 우리 앞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예: 문명은 특정 기술 수준에 도달하면 자멸하는 경향이 있다).

■ **그들은 존재하지만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또는 그들이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치 않는다):**

- ✧ **너무 먼 거리:** 우주는 너무나 광대하여, 항성 간 이동이나 교신이 선진 문명에조차 너무 어렵거나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 ✧ **다른 존재 시간:** 문명들은 각기 다른 시기에 나타났다가 사라질 수 있으며, 두 문명이 동시

에 존재하며 교신할 수 있는 시간의 "창"은 매우 짧을 수 있습니다.

- ✧ **다른 기술:** 그들의 교신 기술이 우리가 찾고 있는 것보다 너무 진보했거나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예: 그들은 전파를 사용하지 않는다).
- ✧ **동물원 가설 (Zoo Hypothesis) 또는 프라임 디렉티브 (Prime Directive):** 선진 문명들이 우리에게 대해 알고 있지만, 우리가 자연스럽게 발전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보호 구역의 동물을 관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 ✧ **그들은 이미 여기에 있다 (They are already here) 또는 존재를 숨기고 있다:** 아마도 그들은 이미 지구에 왔거나 우리를 비밀리에 관찰하고 있으며, 그들의 존재가 그들 자신이나 지구상의 세력에 의해 은폐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 그들의 본질이 너무나 다르다:

- ☆ 그들의 지능이 우리와 너무나 달라서, 우리가 그들의 흔적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그들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페르미 역설은 여전히 해답이 없는 큰 질문 중 하나로, 우리로 하여금 우주에서의 우리의 위치와 생명 및 지성의 본질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만듭니다.

- **생각해 볼 질문:** 과연 외계 생명체는 확률 계산이 시사하는 것처럼 정말로 흔할까요? 만약 그렇다면, 왜 그들은 우리에게 공개적으로 연락하거나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혹시 접촉이 제한되거나 은폐되는,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깊은 이유, 우주적 규칙, 혹은 어떤 개입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혹은 모한 선생님이 공유했듯이, "외계인"과 지구 인간을 포함한 문명 간의 상호작용이, 주류 역사와 현재 과학이 아직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목적과 소리 없는 투쟁과 함께, 복잡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 3) 우주의 기원과 운명:

구성 요소와 생명 존재 가능성에 대한 미스터리 외에도, 우주 자체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그것은 어디에서 시작되었고 어디로 갈 것인가—은 여전히 인류의 이해에 대한 가장 큰 도전 과제입니다. 과학이 우주론 모델을 구축하는 데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핵심적인 질문들이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 ➤ 우주의 기원 – 빅뱅 이론과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들:

- **빅뱅 모델:** 현재, 빅뱅 모델은 우주의 시작과 초기 진화를 설명하는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이론입니다. 이 모델에 따르면, 우주는 약 138 억 년 전, "특이점"(singularity)이라 불리는 극도로 뜨겁고 밀도가 높은 상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초기 상태에서, 우주는 급격한 팽창(인플레이션 – inflation) 단계를 거친 후 계속해서 팽창하고 식어가며, 기본 입자, 원자(주로 수소와 헬륨), 그리고

마침내 오늘날 우리가 관측하는 별, 은하, 그리고 더 큰 구조들을 형성했습니다.

■ **빅뱅 지지 증거:** 빅뱅 모델을 지지하는 세 가지 주요 증거 기둥이 있습니다.

☆ **우주의 팽창 (허블-르메트르 법칙):** 관측에 따르면 먼 은하들이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으며, 그 이동 속도는 거리에 비례합니다. 이는 우주가 과거의 한 공통점에서부터 팽창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CMB):** 이것은 양성자와 전자가 중성 수소 원자로 결합하여 빛이 처음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던, 우주가 아직 매우 젊고 뜨거웠던 시기(빅뱅 후 약 38 만 년)의 잔광 복사입니다. CMB는 1964 년에 발견되었으며 빅뱅 모델의 가장 성공적인 예측 중 하나입니다.

☆ **가벼운 원소의 풍부함:** 빅뱅 모델은 빅뱅 후 첫 몇 분 동안 형성된 가벼운 원소(수소, 헬륨, 리튬 등)의 비율을 정확하게 예측하며, 이는 오늘날 우주에서 관측되는 것과 일치합니다.

- **아직 풀리지 않은 질문들:** 성공에도 불구하고, 빅뱅 모델은 여전히 한계와 미해결 질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 ☆ **빅뱅 "이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빅뱅 모델은 초기 시점 이후이후의 우주 진화를 설명하지만, 그 이전에 무엇이 존재했는지, 혹은 무엇이 빅뱅을 일으켰는지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빅뱅 이전"이라는 개념은 일반 상대성 이론의 틀 안에서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시간과 공간이 바로 그 특이점에서 시작되었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 ☆ **초기 특이점의 본질:** 특이점은 우리의 현재 물리 법칙(일반 상대성 이론 등)이 더는 적용되지 않는 지점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양자 중력(quantum gravity)에 대한 통일된 이론이 필요할 것입니다.

- ☆ **지평선 문제(horizon problem)와 편평도 문제(flatness problem):** 왜 우주는 멀리 떨어진 지역들(지평선)에서 놀라울 정도로 균일하며, 왜 그것의 기하학은 거의 완벽하게 평평할까요? 인플레이션 단계가 이 문제들을 해결하

기 위해 제안되었지만, 인플레이션장(inflaton field)의 본질은 여전히 가설입니다.

➤ **우주의 최종 운명 – 가능한 시나리오들:**

우주의 운명은 물질과 에너지의 평균 밀도, 우주의 기하학적 형태, 그리고 특히 암흑 에너지의 본질을 포함한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요 시나리오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빅 크런치 (Big Crunch):** 만약 물질과 에너지의 밀도가 충분히 크다면, 중력이 결국 우세해져 팽창이 느려지고, 멈춘 다음, 우주가 다시 수축하기 시작하여 결국 시작점과 유사한 특이점으로 붕괴할 것입니다. 이는 "닫힌" 시나리오입니다.
- **영원한 팽창 (빅 프리즈 또는 열죽음, Big Freeze or Heat Death):** 만약 밀도가 충분히 크지 않거나 암흑 에너지가 계속 지배한다면, 우주는 영원히 계속 팽창할 것입니다. 별들은 연료를 소진하고 스러져 갈 것이며, 은하들은 점점 더 멀어지고, 결국 우주는 차갑고, 어둡고, 텅 비게 되어, 엔트로피

피가 최대인 상태에 도달할 것입니다. 이는 "열린" 또는 "평평한" 시나리오입니다.

- **빅 립 (Big Rip):** 만약 암흑 에너지가 시간에 따라 밀도가 증가하는 "유령 에너지"(phantom energy)의 한 형태라면, 그것의 반중력은 점점 더 강해져 은하단, 은하, 항성계, 행성에서부터 원자와 기본 입자에 이르기까지 우주의 모든 결합 구조를 찢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는 파국적인 종말 시나리오입니다.
- **순환 우주 (Cyclic Universe):** 일부 모델(에크피로틱 우주 모델이나 양자 순환 우주론 등)은 우주가 팽창과 수축의 반복적인 주기를 겪거나, 혹은 각 붕괴 단계 후에 새로운 "빅뱅"이 촉발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이 모델들에서, 빅뱅은 절대적인 시작이 아니라, 끝없는 우주들의 연속 속에서 단지 하나의 전환 단계일 뿐입니다.

현재, 우주의 가속 팽창에 대한 관측은 영원한 팽창 또는 심지어 빅 립 시나리오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지



만, 암흑 에너지의 실제 본질은 여전히 알려지지 않은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우주의 기원과 운명에 대한 질문들은 단지 순수한 과학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광대한 우주의 그림 속에서 인간의 위치와 의미에 대한 가장 깊은 철학적, 영적 측면에까지 닿아 있습니다.

- **생각해 볼 질문:** 우주는 정말로 단 한 번의 "폭발"에서 시작하여 단 하나의 종말로 나아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것이 고대 철학과 모한 선생님이 "대주기"와 "성-주-괴-멸" 법칙에 대해 암시했던 것처럼, 형성, 발전, 쇠퇴, 그리고 재생의 반복적인 과정, 즉 더 큰 주기의 일부일까요? 우리가 아는 우주 "외부"나 "평행"하여 존재하는 어떤 공간 차원이나 실재들이 있으며, 현재 과학이 발견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이 모든 운동을 지배하는 초월적인 법칙들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 파트 D: 창조주와 초월적 지혜에 대한 성찰

---

1) 뉴턴, 헬리 그리고 태양계 모형 – 창조주  
에 대한 한 가지 교훈:

➤ **뉴턴과 핛리에 대한 이야기:**

자신의 이름을 딴 행성의 궤도를 정확하게 계산한 유명한 천문학자 에드먼드 핛리(Edmond Halley)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 중 한 명인 아이작 뉴턴(Isaac Newton)의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신에 대한 깊은 믿음을 가졌던 뉴턴과 달리, 핛리는 처음에 이 복잡한 우주가 한 창조주에 의해 설계되었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뉴턴의 집을 방문했을 때, 핛리는 뉴턴이 제작한 태양계 기계 모형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형은 지극히 정교했습니다. 중앙에는 태양을 상징하는 금도금된 구가 있었고, 주위에는 행성들이 올바른 위치와 비율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손잡이 하나를 당기기만 하면, 행성들은 즉시 자신의 궤도를 따라 조화롭고 정확하게 움직이며, 지극히 아름다운 광경을 만들어냈습니다.

핛리는 크게 감탄하며 이 멋진 모형을 누가 설계하고 제작했는지 뉴턴에게 물었습니다. 뉴턴은 태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오, 이 모형은 아무도 설계하거나

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여러 재료들이 우연히 부딪히고 결합한 결과일 뿐입니다."

헬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어찌 되었든, 누군가가 그것을 만들었음에 틀림없고, 그 사람은 분명 천재일 것입니다."

그때서야 뉴턴은 미소 지으며 헬리의 어깨를 두드리고 말했습니다. "이보게 친구, 이 모형이 비록 매우 정교하지만, 우리의 실제 태양계와 비교하면 실로 아무 것도 아닐세. 자네조차도 이 단순한 모형에 제작자가 있어야 한다고 믿는데, 하물며 이 모형보다 수억 배는 더 복잡하고 정교한 태양계가, 어찌 전능하신 신께서 그 무한한 지혜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그 말을 듣고, 헬리는 마치 깨달음을 얻은 듯, 오랫동안 그를 괴롭혔던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마침내, 그 또한 창조주의 존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 **생각해 볼 질문:** 과연 우주의 복잡성, 질서, 그리고 아름다움이 초월적 지혜의 존재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는 아닐까요?

## 2) "미세 조정된" 우주 상수 (Fine-Tuning of the Universe) – 안배의 흔적인가?

과학자들이 우주를 지배하는 기본 법칙들을 더 깊이 파고 들면서, 그들은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우리 우주가 복잡한 구조와, 가장 중요하게는, 생명의 존재를 허용하도록 지극히 정밀하게 "미세 조정"된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많은 기본적인 물리 상수의 값이 실제와 아주 조금만 달랐더라도, 우주는 완전히 달라지고, 혼란스러워지며,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은 생명을 결코 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 **"미세 조정"의 개념:**

"미세 조정"이란 몇몇 기본적인 물리 상수의 값과 우주의 초기 조건들이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지극히 좁은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 값들이 그 범위를 아주 조금이라도 벗어난다면, 그 결과는 지극히 심각할 것입니다.

- **중력 상수 (G):** 만약 조금 더 강했다면, 우주는 빅뱅 후 너무 빨리 수축하여 별과 은하가 형성될 충분한 시간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조금 더 약했다면, 물질이 별과 은하를 형성할 만큼 충분히 뭉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 **미세 구조 상수 ( $\alpha$ ):** 이 상수는 전자기력의 강도를 지배합니다. 만약 이 값이 달랐다면, 원자들이 불안정해지거나, 별 내부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과정(탄소, 산소와 같이 생명에 필요한 무거운 원소를 만드는 과정)이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 비율:** 이 두 입자 사이의 미세한 질량 차이(중성자가 양성자보다 약간 더 무거움)는 지극히 중요합니다. 만약 이 비율이 달랐다면, 우주는 온통 수소로만 가득 차거나, 혹은 물과 유기 화합물을 형성할 수소가 없었을 것입니다.

- **강한 핵력과 약한 핵력의 강도:** 이 힘들은 원자핵의 안정성과 방사성 붕괴 과정을 지배합니다. 그 강도의 작은 변화는 무거운 원소가 없는 우주나, 수십억 년 동안 안정적으로 연료를 "태울" 수 없는 별들을 낳았을 수 있습니다.
- **암흑 에너지 밀도 또는 우주 상수:** 언급했듯이, 암흑 에너지의 값은 이론적 예측에 비해 극도로 작지만, 만약 그것이 훨씬 더 컸다면, 우주는 너무 빨리 팽창하여 구조물들이 형성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 **공간의 차원 수:** 우리는 3 차원의 공간(그리고 1 차원의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물리학자들은 만약 공간의 차원 수가 달랐다면(예: 2 차원 또는 4 차원), 별 주위 행성의 안정적인 궤도나 원자의 안정적인 구조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상수들의 허용 범위는 종종 수십억 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지극히 작은 목표물을 화살로 맞추는 것, 또는



수십 자리의 십진수 정밀도로 다이얼을 조정하는 것에 비유됩니다.

➤ **과학자들의 관점:**

이 "미세 조정"은 많은 과학자와 철학자들을 깊은 사색에 잠기게 했습니다.

- 이론 물리학자 폴 데이비스(Paul Davies)는 이 문제에 대해 많이 저술했으며, 우주의 미세 조정이 그 존재 뒤에 어떤 "설계"나 "목적"이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제게는, 이 모든 것들 뒤에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 우주는 의도적으로 설계된 것처럼 보입니다."
- 물리학자이자 신학자인 존 폴킹혼(John Polkinghorne) 또한 미세 조정을 "창조주의 흔적"으로 보며, 우주가 생명이 존재할 수 있도록 이토록 정교하게 조정된 것이 단지 순수한 우연일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종교적 성향이 없는 과학자들조차 이 현상의 놀라움을 인정합니다. 일부는 "다중 우주"(multiverse)와 같은 가설로 그것을 설명하려 시도합니다. 이는 각기 다른 물리 상수를 가진 무수한 다른 우주들이 존재하며, 우리는 우연히 생명에 적합한 상수를 가진 우주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인류 원리 - anthropic principle). 하지만, 다중 우주 가설은 현재 직접적인 실험적 증거가 없으며, 다른 많은 철학적 문제들도 제기합니다.

우주 상수의 "미세 조정"은 현대 과학의 가장 놀라운 발견 중 하나이며, 알면 알수록 우리가 사는 우주의 경이로움과 신비를 더 깊이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 **생각해 볼 질문:** 생명의 존재를 허용하도록 우주 상수가 지극히 정밀하게 조정된 것이, 과연 무수한 가능성 속의 단순한 행운의 우연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것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주를 설계한 의도적인 창조, 초월적 지혜의 부인할 수 없는 흔적일까요? 만약 우주가 생명을 위해 "설계"되었다면, 그 생명, 특히 인간과

같은 의식 있는 생명은 이 위대한 우주의 그림 속에서 어떤 역할과 의미를 가질까요?

### **3) 위대한 과학자들과 창조주에 대한 믿음:**

뉴턴과 핼리의 이야기는 예외적인 사례가 아닙니다. 과학사 전체에 걸쳐, 자연 세계에 대한 우리 이해의 기초를 닦은 많은 뛰어난 지성들도, 우주의 조화로운 운행과 정교한 법칙들 뒤에 있는 초월적 질서, 창조주, 혹은 우주적 지성에 대한 깊은 믿음이나 경외심을 표현했습니다.

이 믿음이 반드시 특정 조직 종교의 형태를 띠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종종 자연의 복잡성과 아름다움을 더 깊이 탐구하는 과학적 발견 과정 자체에서 비롯됩니다. 그들은 순수한 우연을 넘어서는 더 위대한 무언가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아래는 몇 가지 대표적인 예입니다 (간략하게 언급됨).

-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1879-1955):** 상대성 이론의 아버지이자,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물리학자 중 한 명입니다. 비록 인간의 삶에 개입하는 인격적인 신을 믿지는 않았지만, 아인슈타인은 "자연에 현현하는 지성"과 "스피노자의 신"—우주의 질서 및 법칙과 동일시되는 신—에 대해 깊은 경외심을 자주 표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신의 생각을 알고 싶다. 나머지는 세부 사항일 뿐이다." 혹은 "종교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이고, 과학 없는 종교는 장님이다." 그에게 있어, 물리 법칙을 발견하는 것은 우주를 창조한 "정신"의 조화와 아름다움에 닿는 한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 **막스 플랑크 (1858-1947):** 양자 역학의 창시자이자, 물리학의 혁명을 이끈 인물입니다. 플랑크는 종교적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과학과 종교가 모순되지 않고 서로 보완하며, 함께 진리를 탐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종교와 자연 과학 모두 신에 대한 믿음을 요구한다. 신자들에게 신은 시작에 계시고, 물리학자들에게 신은 모든 사유의 끝에 계신다."

- **요하네스 케플러 (1571-1630):** 행성의 운동 법칙을 발견한 독일의 뛰어난 천문학자입니다. 케플러는 깊이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었으며, 자신의 과학 연구를 신이 창조한 "세계의 조화"를 발견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우주가 창조주의 지혜를 반영하는 완벽한 수학적, 기하학적 원리에 따라 설계되었다고 믿었습니다.
- **마이클 패러데이 (1791-1867):** 전자기학과 전기화학 분야에 지대한 공헌을 한 영국의 물리학자이자 화학자입니다. 패러데이는 샌디맨 교회의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그의 종교적 믿음은 그의 삶과 과학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그에게 자연 속의 질서와 통일성에 대한 감각을 부여했습니다.
- **아이작 뉴턴 경 (1643-1727):** 언급했듯이, 뉴턴은 위대한 과학자일 뿐만 아니라 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태양계의 질서와 아름다움이 우연히 나타날 수 없으며, 지혜롭고 전능하신 창조주의 결과물임에 틀림없다고 믿었습니다.

이 명단은 과학사 속의 다른 많은 이름들로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많은 과학자들에게 있어 자연의 복잡하고 정교한 법칙들을 발견하는 것이 초월적 기원

에 대한 믿음을 약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우주에 내재된 위대함과 지혜에 대한 그들의 경외와 감탄을 더욱 굳건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 **생각해 볼 질문:** 왜 수많은 위대한 과학적 지성들, 즉 이성과 실험으로 우주를 탐구하는 데 평생을 바친 이들이, 초월적 기원, 창조주, 혹은 우주적 지성에 대한 비슷한 믿음에 도달했을까요? 어쩌면 과학이 더 발전할수록, 그것이 창조주의 역할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과 우주의 존재에 있어 지적인 설계와 더 깊은 목적의 흔적들을 더 많이 드러내는 것은 아닐까요?

\* \* \*

## 파트 E: 외계인 – 가설, 증거, 그리고 미해결 질문들

---

1) 공식 보고서들과 최근의 폭로들 (예: UAP 에 대한 펜타곤 보고서):

최근 몇 년간, "미확인 비행 물체"(UFO)보다 더 선호되는 새로운 용어인 "미확인 공중 현상"(Unidentified Aerial Phenomena - UAP)을 둘러싼 비밀의 장막이, 적어도 일부 국가에서는 점차 걷히고 있는 듯합니다. 부인이나 침묵에서 인정과 공개적인 연구로의 정부 및 군 기관의 태도 변화는 대중과 과학계의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 **미국 정부와 군의 태도 변화:**

- **영상 및 문서 기밀 해제:** 약 2017 년부터, 특히 2020-2023 년 사이에, 펜타곤(미 국방부)은 미 해군 조종사들이 촬영한 일부 영상들을 공식적으로 기밀 해제하고 공개했습니다. 이 영상들은 인류에게 알려진 어떠한 기술도 훨씬 뛰어넘는 듯한 공기역학적 특성과 이동 능력을 가진 비행 물체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물체들은 보통 날개가 없고, 뚜렷한 추진 기관이 없으며, 충격파를 생성하지 않으면서 급가속, 즉각적인 방향 전환, 또는 초음속 이동이 가능했습니다.
- **국가정보국장실(ODNI) 보고서:** 2021 년 6 월, ODNI 는 많은 이들이 기다려온 UAP 에 대한 예



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분석된 대부분의 UAP 사례(2004 년부터 2021 년까지 144 건)의 기원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 대부분의 UAP 는 아마도 물리적 물체일 것이다.
- ✧ 일부 UAP 는 바람 속에서 정지 상태를 유지하거나, 바람을 거슬러 이동하거나, 급작스럽게 기동하거나, 뚜렷한 추진 수단 없이 상당한 속도로 이동하는 것과 같은 비정상적인 비행 특성을 가진, 진보된 기술을 보여주는 듯했다.
- ✧ 보고서는 이 UAP 들이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의 비밀 기술일 가능성을 (대부분의 경우에 대해) 배제했지만, 그것들이 "다른" 기원을 가졌을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다.

- **전담 기관 설립:** 미국은 UAPTF(미확인 공중 현상 태스크포스)와 그 후 AARO(전영역 이상 현상 해결 사무소)와 같은 기관들을 설립하여, UAP 보고

서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 및 조사하고 있습니다.

- **의회 청문회:** 미 의회 앞에서는 공개 및 비공개 청문회들이 열렸으며, 이곳에서 정보 및 군 관계자들과 증인들(전직 조종사 포함)이 UAP 와의 조우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 **"현재 기술을 뛰어넘는" 특징들:**

UAP 를 특히 주목하게 만들고 설명하기 어렵게 하는 것은 단지 그 출현뿐만 아니라, 보고된 운행 특성들 때문입니다.

- ✧ 즉각적인 가속 능력과 극도로 높은 기동성: 항공기 구조와 인간 조종사의 내구 한계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 ✧ 충격파나 큰 열량의 징후 없는 초음속 비행.
- ✧ "투명화" 또는 갑작스러운 출현 및 소멸 능력.
- ✧ 다양한 환경(공중, 수중, 우주)에서의 활동.

☆ 뚜렷한 추진 시스템이나 공기역학적 제어 표면이 없음.

➤ **의미와 아직 풀리지 않은 질문들:**

이러한 공식적인 폭로와 보고서들은, 비록 여전히 많은 한계가 있고 UAP 의 기원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그것들은 이 현상들이 실재하며, 숙련된 군 조종사들과 첨단 센서 시스템에 의해 기록되었고, 현재 인류가 설명하거나 재현할 수 없는 기술적 특성들을 보여준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모든 UAP 가 외계인의 우주선이라는 것을 자동적으로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드문 자연 현상, 다른 국가의 첨단 감시 기술(비록 ODNI 보고서가 대부분의 경우에 대해 이를 배제하려 했지만), 또는 심지어 미국 자체의 미공개된 획기적인 기술을 포함하여, 각기 다른 사례에 대해 여러 다른 설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UAP 가 지구 밖 기원을 가졌을 가능성은, 특히 통상적인 설명들이 불충분해 보일 때, 여전히 많은 사람이 진지하게 고려하는 가설입니다.

- **생각해 볼 질문:** 이러한 공식적인 폭로들은 세계와 그 속에서의 우리의 위치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는 과연 지구 밖 생명체에 대한 더 큰 발견, 혹은 적어도 우리가 이제껏 알던 것을 훨씬 뛰어넘는 기술의 존재에 대한 발견의 문턱에 서 있는 것일까요? 정부들의 이 신중한 공개는 미래의 더 큰 폭로를 위한 준비일까요, 아니면 단지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고 잠재적 위협을 평가하려는 노력일 뿐일까요? 그리고 과연 모한 선생님과 같은 이들의 "앎"이, 주류 과학이 이제 막 인정하고 탐구하기 시작한 현상들에 대해 보충적인 시각, 또 다른 깊이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 2) 고대 유적과 "고대 우주비행사설

### "(Ancient Astronaut Theory):

현대의 미확인 공중 현상(UAP) 외에도, 또 다른 사상의 흐름은 고고학 유적, 고대 건축물, 그리고 옛 문명들의 문서와 신화들을 재해석함으로써, 먼 과거에 있었던 외계인과 지구의 상호작용에 대한 증거를 찾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 우주비행사설"(Ancient Astronaut Theory)의 핵심입니다.

#### ➤ "고대 우주비행사설"의 주요 내용:

에리히 폰 데니켄(Erich von Däniken, 저서 "신들의 전차?" – Chariots of the Gods?), 로버트 템플(Robert Temple), 제카리아 시친(Zecharia Sitchin) 등과 같은 작가들에 의해 널리 알려진 이 가설은, 외계의 지적 존재들이 고대와 선사 시대에 지구를 방문했으며, 인류의 문화, 기술, 종교, 심지어 생물학적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합니다.

이 가설의 지지자들은 종종 다음과 같은 "증거"나 "암시"를 제시합니다.

- **거석 건축물과 "불가능한" 건축 기술:** 비정상적인 고대 문명에 대한 이전 부분에서 언급했듯이(기자 대피라미드, 푸마 푼쿠, 삭사이와만 등), 이 가설을 따르는 이들은 거대한 돌덩이를 높은 정밀도로 운반하고 건설하는 기술이 옛사람들의 도구와 지식 수준을 뛰어넘는 것이며, 더 진보된 기술을 가진 생명체의 도움이나 지도가 있었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 **고대 문서와 예술 작품 속 "비행 물체" 또는 "하늘에서 온 존재"에 대한 묘사:**

- ✧ 인도의 고대 문서(마하바라타, 라마야나 등)에는 공중, 도시 간, 심지어 다른 행성까지 이동할 수 있는 비행 마차인 "비마나"(Vimana)와, 파괴적인 무기를 사용한 공중 전쟁에 대한 상세한 묘사가 있습니다.

- ✧ 성경에는 눈이 가득한 "바퀴 속의 바퀴"가 날아다니는 묘사(에스겔서)나, 예언자들을 하늘로 데려가는 불수레에 대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 세계 여러 곳의 암각화나 동굴 벽화(예: 이탈리아의 발 카모니카, 알제리의 타실리 나제르)에는 우주비행사와 닮은 기묘한 보호복을 입은 인물상이나 원반형 비행 물체들이 묘사된 것처럼 보입니다.

- **일부 고대 문명의 뛰어난 천문학, 수학 지식:** 수메르인, 이집트인, 마야인 등의 건축물이나 문서에서 발견되는 천문 주기, 태양계 구조, 또는 수학 상수(원주율 파이, 황금 비율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외부 지식의 원천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 **"하늘에서 내려온 신들"에 대한 신화 이야기:** 대부분의 고대 문화에는 "천국"이나 "별들"에서 와서 인류에게 지식, 기술, 그리고 법률을 가져다준 신들, 문명 창시자, 또는 문화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가설은 그 "신들"이 바로 옛사람들에게 숭배받았던, 뛰어난 기술을 가진 외계인, 즉 고대 우주비행사들이었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 **인류 진화 과정에의 개입 (가설의 일부 분파에 따름):** 일부 더 극단적인 연구자들은 외계인이 초기

유인원의 유전자에 개입하여 호모 사피엔스를 만들었거나, 혹은 인간과 교배하여 "반신(半神)"의 혈통을 만들었다고까지 주장합니다.

➤ **객관성과 반론:**

"고대 우주비행사설"은 주류 과학계에서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지자들이 제시하는 많은 "증거"들은 종종 고고학자, 역사학자, 그리고 다른 과학자들에 의해 자연적 요인, 고대 인류의 기교와 창의성, 또는 문서와 이미지의 잘못된 해석으로 설명됩니다.

예를 들어, 거석 건축 기술은 인력, 단순한 도구, 그리고 역학에 대한 이해를 활용한 지혜로운 방법으로 수행되었을 수 있습니다. 고대 문서의 묘사들은 기계를 실제로 묘사한 것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이거나 종교적인 은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미스터리가 만족스럽게 설명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를 멈추어



서서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들, 유적들, 그리고 유물들이 있습니다.

"고대 우주비행사설"은, 비록 많은 논란이 있지만, 과거에 대한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인류 역사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에 도전하는 새로운 사고의 방향을 여는 데 기여했습니다.

- **생각해 볼 질문:** 과연 고대 신화 속의 "신들", 즉 인류에게 지식과 문명을 가져다준 이들이, 실은 옛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뛰어난 기술을 가진 별들로부터 온 방문객들이어서 그들을 신격화한 것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고대 문서 속 "비행 마차"나 "하늘에서 온 존재"에 대한 묘사들이 전적으로 상상력의 산물이 아니라, 여러 세대를 거쳐 전해진, 과거의 실제 접촉에 대한 모호한 기억들은 아닐까요? 그리고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고대 우주비행사들"이 인류에게 남긴 유산은 무엇이며, 그것이 과연 모한 선생님이 외계 세력의 문명 주기 개입에 대해 암시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 \* \*

# 저자 및 THE LIVES MEDIA 프로젝트에 대하여

## 저자 소개

잭 보스는 문화, 사회, 과학, 그리고 영성에 대해 집필하는 독립 작가입니다. 그는 진리를 추구하고, 양심을 일깨우며, 인류의 운명에 대해 성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의 작품들은 종종 실제 인터뷰에서 비롯되며, 정직함과 감정적인 깊이, 그리고 깨달음의 정신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 프로젝트 소개

이 책은 THE LIVES MEDIA 에서 출판한 시리즈의 일부입니다. THE LIVES MEDIA 는 시대를 초월하는 메아리를 보존하고 전파하는 사명을 가진 글로벌 비전의 독립 출

판 프로젝트입니다. 저희는 매일의 뉴스를 쫓기보다는 인간의 의식 깊은 곳에 닿을 수 있는 책을 지향합니다.

## 연락처

- ✧ Website: [www.thelivesmedia.com](http://www.thelivesmedia.com)
- ✧ Email: [editor@thelivesmedia.com](mailto:editor@thelivesmedia.com)
- ✧ QR Code:



## 같은 프로젝트의 다른 작품들

THE LIVES MEDIA 의 다른 출판물들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홍진 · 금광 (Red Dust, Golden Light)

- 권력 그 후: 유산 (After Power: The Legacy)
  - 과학의 황혼과 여명 (Sunset and Sunrise of Science)
  - 붉은 베일 (The Red Veil)
  - 시간 이전의 울림 (Echoes Before Time)
  - 속세로 (Entering The World)
  - 마지막 종소리 (The Last Bells)
  - 우리 이전 (Before Us) → 바로 이 책임니다
  - 천 개의 삶 (Thousand Lives)
-

이 책을 읽기 위해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진리를 탐험하는 당신의 여정에 신과 부처님의 가호가 있  
기를 바랍니다.